제7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조선시대 청백리 정신의 현대적 조명

일시 : 2002. 9. 6. (금) 10:00~16:00
장소 : 성남시민회관 소강당

주 최 : 성 남 문 화 원
주 관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목 차

1. 대회사 남선우 (성남문화원장) ---- 1

2. 축 사 이대엽 (성남시장) ---- 3

김상현 (성남시의회의장) ---- 4

이성무 (국사편찬위원장) ---- 5

3. 일정표 ---- 7

4. 향토문화연구소 연혁 ---- 9

5. 기조강연

이시행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윤리사상), **"공직부패와 청백리윤리"** ---- 13

6. 주제발표

1) 주제발표논문 1

문수진(신구대학/한국사), **"조선시대 청백리제도와 기능"** ---- 31

약정토론 : 정만조 (국민대학교/조선시대 정치사) ---- 52

약정토론 : 이문주 (성균관대학교/유학·동양학) ---- 56

2) 주제발표논문 2

한춘섭 (성남기능대학/국문학), **"陵川 李之直의 淸白史 精神"** ---- 61

약정토론 : 허창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정치학) ---- 86

약정토론 : 정은정 (대전고교/한국사) ---- 95

3) 주제발표논문 3

지교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명예교수/동양철학사상),

"청백리 이병태의 정치철학과 공직윤리" ---- 97

약정토론 : 전보삼 (신구대학/윤리학) ---- 118

약정토론 : 서승갑 (경원대학교/역사학) ---- 121

부 록 ---- 125

- 조선시대 청백리 명단

기 조 강 연

공직부패와 청백리윤리

주제발표 : 이서행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윤리사상)

공직부패와 청백리윤리

이서행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윤리사상)

< 차 례 >

Ⅰ. 서 언
Ⅱ. 공직부패의 주요 요인
1. 개인적 태도와 특성
2. 부정부패의 문화와 제도적 요인
Ⅲ. 청백리의 주요덕목과 공직윤리
1. 청백리 의미와 정신
2. 수기치인의 공직윤리
3. 정직과 염치의 공직윤리
4. 근검과 청렴의 공직윤리
Ⅳ. 청백리윤리의 공직사회화 과제

Ⅰ. 서 언

역대 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부정부패문제의 척결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했지만 오히려 반대현상이 일어나 국제적인 지목을 받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투명성지수와 뇌물공여 지수 등의 순위에서 나아지고 있지 않으며 2002년 5월 14일에 발표한 뇌물공여지수(BPI)에 의하면 21개국 중 18위를 차지하여 OECD 뇌물방지협약을 비준한 조사 대상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국내상황으로 볼 때 작년부터 불어닥친 각종 게이트[1] 사건으로 집권당은 6.13 지방자치선거에서 참패했고 월드컵 열기로 일시 잠복한 듯 했으나 게이트사건과 특권층의 부패문제는 대선 분위기와 연계되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인의 공공생활에서 사회문제로 중요하게 부각되는 쟁점들이 공직생활

1) 진승현 게이트, 정현준 게이트, 이용호 게이트, 윤태식 게이트, 최규선 게이트 등 소위 5대 게이트사건을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발생한 심각한 부패현상을 일컫는 대명사가 되었다.

과 연결되어있다는 조사의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이 조사에서 대상의 50% 이상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지적한 내용을 보면 공직자의 공공생활에 관련되는 부정부패 내용이 극히 높게 나타났다.[2] 특히 정치 행정 분야의 부정부패와 부조리가, 환경공해 다음으로 극히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40% 이상이 공직생활과 관련해서 사회문제라고 지적한 내용들을 포함시킨 경우에는[3] 병역비리, 경찰의 부조리, 정치지도자의 자질부족과 권력형 부패 등 공직자의 무능과 무책임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압도적인 다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각계에서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국민이 기대하는 도리에 어긋나게 공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된다고 대다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이 공공생활을 위해서 공직자에게 사회정의와 공공복리의 창의를 실현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와 상반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한국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우리 나라가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히딩크 감독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개인적인 소질과 능력발견 그리고 부패관련 사회문제들 가운데서 나타난 혈연·지연·학연의 연고주의, 개인이기주의 등의 고질적인 원인을 타파했기 때문이다.

공직자 부패의 일반적인 동기를 보면 개인적 차원인 낮은 보수로 인한 생계비형 부패와 과도한 물질욕의 지배적이며, 권력이 있는 곳에 조직적인 부패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역대 정부에 있어서 공직자 윤리 강화와 권력형 부패 차단의 과제가 제일의 과제가 되어 왔다. 그렇지만 부패척결에 있어 근원적 치유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공직사회의 부패문제의 핵심이 공직자 개개인의 도덕성과 공직관에 있음을 간파하지 못한 탓이다. 나아가 공무원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의식전환, 인사 및 승진제도 개선, 양벌주의 등 엄격한 처벌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도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추진된 감사원법, 검찰청법, 경찰자금법, 공무원법, 공직자 윤리법 등 부패방지제도의 다원화로 효과적인 부패방지가 불가능했지만 다행스럽게도 현재로는 실체적인 통합부패 방지법 입법의 필요로 부패방지위원회가 금년에 설립되었으며(2002.1.25), 통합부패 방지법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공직자의 행동강령이

2) 정의인 부정부패/부조리(1999년, 1위, 75.25%; 1994년, 2위, 66.94%; 두 시점 평균, 71.11%), 금우회 부정부패/부조리(1999년, 3위, 65.33%; 1994년, 3위, 44.40% ; 두 시점 평균, 59.88%), 권력형 비리/부당한 관권개입(1999년, 42위, 43.96%; 두 시점 평균, 47.65%) 등이 포함된다.

3) 병역비리/부정(1999년, 12위, 47.43%), 경찰의 부정부패/부조리(1999년, 26위, 44.18%; 1994년, 100위, 35.67%), 정치지도자의 자질 부족(1999년, 25위, 44.21%; 1994년, 73위, 38.74%, 전체 41.48%), 공무원의 권위적 태도/불사절신 갑어(1999년, 31위, 42.91%; 1994년, 45위, 42.72%)

바뀐되었고 현행 공직자 윤리법이 강화 보완되었으며 부패의 온상인 행정분야 하위직까지 재산등록이 의무화되어 기대된다.

부정부패는 원래 순수한 상태에서 변질되어 버린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는 법규·제도 등이 문란해 혼탁한 사회상황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공무원이 일반시민으로부터 가외 수입을 얻기 위하여 그 외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가리키며, 공직을 남용하여 사리사욕을 극대화하는 불법적인 행위나 범죄행위만 아니라 사회적 공익을 위반하거나 도덕적·윤리적으로 비난을 받을만한 행위의 총체적 의미가 함의되어 있다.[4] 그럼지만 부패문제를 거론할 때 일반적으로 정치권을 포함하는 공직자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정부패가 언제나 공직자 혼자서 저지르는 일방적 행위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부추기거나 동조하는 상대가 있는 '쌍방적 행위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부패한 기업인이 공직자를 부패하게 하고, 부패한 국민이 공직자를 부패하게 하며 물론 그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부패에 대한 처방을 내릴 때에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 대한 인식에 기초를 두고 종합적·총체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한적이나마 반부패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먼저 공직부패에 있어 개인과 조직의 특성상 발생되는 역기능적인 공직부패문제를 제도와 문화측면에서 조명하고, 이의 극복을 위한 순기능차원에서 전통적인 청백리윤리의 개인화 덕목을 통해 공직윤리 구현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II. 공직부패의 주요 요인

1. 개인적 태도와 특성

개인의 부정부패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으로서 부정부패행위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태도나 가치관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떤 대상 또는 상황에 대한 태도가 어느 정도 행위를 결정짓는가의 문제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겠지만, 태도와 행위와의 일관성 여부의 문제는 경험적 분석을 통해 결정지어야 할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반부패 정책입안자들은 어떤 행위를 어떻게 통제하느냐 하는 점에 더 관심이 있지 태도를 바꾸는데 일차적 관심이 있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태도에 관한 연구는 태도가 행위에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는 직접적 영향을

4) 김창국 외, 부정부패 사회학, 나남, 1997, pp.22-25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과제로 보아야 한다. 이점에서 청백리윤리를 재조명해보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청백리의 윤리처럼 공무원의 공직관은 자신들의 직무나 직업자체에 대한 태도로 정의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의 공무원직에 대한 평가는 대개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한편으로 공직자로서의 자부심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다른 직장인들과 비교해서 현실적으로 열악한 직무환경에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직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공무원의 보수 인상율이 생계비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GNP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조사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자신들도 보수의 수준에는 불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이 부정부패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자아갈등과 통제가 범죄나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역사는 깊지만 이 이론의 적용범위를 공직부패가 화이트칼라범죄의 대표적 유형이라고 하는데 까지 연장시킨 것은 Gottfredson과 Hirschi이다.[5] 그들에 따르면 화이트칼라범죄자들은 자아통제 능력이 낮은 사람들로서 순간의 금전적 이익을 보고서 행위의 결과를 생각지 못한 결과로 파악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화이트칼라들의 자아통제력은 일반인들보다 높기 때문에 화이트칼라범죄가 어느 사회에서나 그다지 빈번하지 않다고 본다. 자아통제의 수준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이 이론이 어느 정도 경험적으로 지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설명하면서 개인적 특성들이 얼마나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경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역사적인 청백리들의 공직태도하를 볼 때 가난이나 낮은 보수로 인해 부정부패가 용납되지 않으며 확고한 공직관으로 생사를 초월 할만큼 자아통제력이 높았기 때문에 그들의 공직윤리가 역사와 함께 살아 있는 것이다.

---

5) 이러한 논리의 한 예로 Gottfredson과 Hirschi의 범죄일반이론에 관한 논의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들은 화이트칼라범죄를 유발시키는 동기와 다른 범죄들을 낳게 하는 동기는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고 본다. 범죄는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확실한 이익을 단시간 내에 모색함으로는 목적에서 저질러지며 이와 같은 목적은 화이트칼라범죄와 다른 부류의 범죄들을 모두 설명해 주는 요소라는 것이다. Gottfredson, Michael and Travis Hirschi,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6) 청백리157명 선물분석자료와 부록 청백리정신사례 인명록 참조(이서행, 청백리정신과 공직윤리, 인간사랑, 1990, pp.149~174)

2. 부정부패의 문화와 제도적 요인

부정부패의 뿌리가 무엇이냐 하는 의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접근으로 찾을 수밖에 없다. 우리문화는 부패의 균이 서식하기에 비옥한 토양이 되었고 여기서 나타난 부패는 구조화, 관례화 되어 총체적 부패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문화는 국민의 생활방식을 규정하는 신념, 가치, 행위, 물질적 대상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간사회활동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지만 분석적인 개념으로서 인간행위에 대한 문화적 설명은 사회구조적인 설명과는 구별된다. 사회구조란 사회체계내에서 개인들 사이의 혹은 사회적 지위들 사이의 지속적이면서 제약적인 사회적 관계의 유형이라고 본다면, 문화란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며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인지적이고 평가적인 신념들로 구성원들이 공유하여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신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사실 이 두 가지는 현실에서는 상호 연결될 수밖에 없는 개념이다. 즉 사회구조는 사회적 신념들을 생성시키는데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가치나 신념은 구성원의 사회적 관계를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화가 부정부패를 조장한다는 논지는 사회구조적 조건과는 별도로 한 집단 구성원들의 가치, 신념, 규범, 정서 등이 인간행위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는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문화가 어떤 면에서 부정부패를 조장하며 근대화와 부정부패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인데 우리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7]

첫째로, 한국의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와 가족주의, 연고주의는 전통적으로 한국사회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어왔다. 그런데 가족주의, 연고주의는 공정해야 할 정부와 공직자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부정부패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가족주의의 전통문화는 공무원이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공무를 수행하기보다는 혈연이나 지연과 학연 등과 같은 폐쇄적 인간관계에 의해 일을 처리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의리의식과 정의적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은 공평무사해야 할 공직에 장애가 되며 타인의 청탁을 의리관계나 정을 생각해서 부득이 들어줄 수밖에 없고 또 일반 민원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공직자에게 청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관례는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을 처리해야 할 공직사회까지 연장되어서 부정부패의 소지가 되고 있다.

---

7) Klitgaard, Robert,Controlling Corrup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pp.62~64

셋째, 전통적인 관존민비의 사상은 공직자가 우월감에 사로잡혀 권위주의적으로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행태를 조장했고 이는 관료사회에서 행정책임의 부재를 조장했으며 일반인들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권력있는 관료들에게 줄을 대려고 애쓰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와 일반인 사이에는 후원자와 고객이라는 부패거래가 싹틀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전통적인 문화가 부정부패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는 논의가 타당한가의 문제를 접어두고라도 부정부패에 대한 문화적 접근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조건하에서 문화적 요소들이 부정부패를 조장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부패를 충분히 설명한 것이 될 수 없으며 극복방안 마련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관료의 부정부패를 설명함에 있어서 개인적 변수, 조직 내적인 변수, 사회문화적 변수를 뛰어넘는 제도적이며 체계적인 설명방식은 사회전반에 구조화된 부정부패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조화된 부정부패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제도적 요인들로는 무엇보다도 정치구조의 취약성을 들 수 있다.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정치권력과 경제의 유착으로 인하여 정치권은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조달받고 그 대가로 행정조직을 통하여 기업에 특혜를 주는 일들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정치구조의 취약성이야말로 사회의 전반적 부정부패를 조장한 면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지난 수십년동안 권력의 과도한 집중화현상이나 그로 인한 소위 독재정치는 부정부패를 사회전반에 만연케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제도 측면에서 볼 때 처벌법 적용의 미흡이 부정부패재발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부여가 됨을 알 수 있다. 공직자 부정부패의 만연은 범죄의 결과로 마땅히 따라와야 할 법적 처벌의 부재 내지는 미흡과도 연관성이 있다. 처벌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인간행동이 이득실을 따져 본 후 합리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라는 가정하에서 가능하다. 범죄에 있어서의 억제이론 혹은 합리적 선택이론은 공리주의의 영향을 받은 고전주의 범죄학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데 사회학에서는 원래 범죄로부터 얻는 이득의 측면은 고려되지 않고 처벌이라는 손실의 측면만을 고려했다. 즉 억제이론에서 국가의 처벌을 하나의 손실로 보고 이것의 엄격성과 확실성 그리고 신속성이라는 처벌의 세 차원에서 범죄행위를 파악했던 것이다. 범죄행위가 선택되기 위해서는 범죄로부터 오는 손실을 최소화하면

서 이익이 극대화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다시 말해 범죄행위가 선택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로 처벌받을 확실성이 떨어지고 처벌의 강도가 가혹하지 않고 신속하게 범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이며 한편 범죄행위로 얻는 금전적 혹은 기타 이득이 많은 경우일 것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범죄예방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이론적으로 중요한 주제이지만 이를 경험적으로 검토해보는 일도 매우 흥미있는 과제임에 틀림없다.[8] 부정부패행위의 처벌에 대한 객관적 지표들이나 이에 대한 개인적인 인지적 차이는 조직의 관행이나 문화와는 다른 차원에서 곧바로 개인의 부정부패행위에의 가담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은 말 할 나위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전통사회에서는 반부패의지를 어떻게 실현했는가를 개인적 차원, 제도적 차원,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개인적 차원인 청백리의 성품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주요덕목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Ⅲ. 청백리의 주요덕목과 공직윤리

1. 청백리 의미와 정신

국가의 통치를 담당하는 위정자들이나 행정을 담당하는 관료들에게 직업윤리의 하나로 청렴성을 강조하는 것은 동서양 고금의 보편적 규범이며 전통이었다.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 청렴하다는 것은 기초상식에 속하는 윤리이며, 어떤 형태의 정치체제나 어떤 문화권에서도 공통되는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교가 정치와 사회의 중심 이념이 되었던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특히 관료들의 청렴성이 강조되었다. 우리 나라도 삼국시대 이래 유교가 국가를 다스리는 중요한 이념과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관리들의 공직윤리로 유교적 청렴윤리가 강조되었다. 유구한 민족사를 되돌아보면 삼국시대부터 청백리정신과 吏道刷新의 확립을 위한 작업을 통해 청렴결백하고 선정을 베풀어 인중의 추앙받는 良吏와 淸白吏의 배출을 위해 노력하

8) 공료부패로 인한 부정한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은 1995년 1월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관료부패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법으로서 관료가 특정한 범죄 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 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환수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특정 공무원범죄로 얻은 재산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까지 몰수하게 되어있지만 몰수할 재산의 불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면제하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몰수나 추징을 피하려는 재산도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소 전후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법원이 몰수, 추징보전 결정을 발동하여 재산처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몰수 대상과 관련해서 동법이 목적하는 대로 부정부패에 대한 좀더 효과적인 억제를 위해서는 범죄의 범위를 특정공무원범죄라고 하여 적용대상을 제한하기보다는 일반적인 공무원범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였음을 볼 수 있다. 청백리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설문해자적인 접근법을 적용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9] 「淸」은 靜(고요함), 澄(맑음), 潔(깨끗함) 등을 나타내는 조어이다. 지상에 존재하는 것 중 물이나 불보다 맑은 것이 없기 때문에 精(깨끗함, 맑음)이 쌓여서 푸름을 이룬다고 하여 「淸」이 되었다. 「白」은 純(순수), 明(밝음), 潔(깨끗함)이며 「吏」란 「一」자와 「史」자에서 나온 것으로서, 곧은 역사적 심판과 사실역사만의 교훈으로 공직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청백의 의미를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 최초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의미해석을 시도하면 다음의 몇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① 품행의 순결성 ② 청의를 위한 순직 ③ 검도와 청백한 방법이 아니면 모든 공직에 나아가지 않는 것 ④ 신분에 부적합한 직업을 회피하는 것 ⑤ 청백은 家나 身과 같다 ⑥ 公과 私에 있어 사리가 분명하고 청초하며 과오가 없을 것 ⑦ 지역의 풍속에 밝고 애민하는 신하 등이다. 그리고 「後漢書」에는 청렴결백하여 백성을 撫育, 敎化할 능력이 있을 것으로 관리의 청백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청백리의 어원적 의미를 종합해 보면 맑은 물처럼 티없이 깨끗하여 소색으로 때묻지 않은 광명의 淸官·淸正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맺부터 청귀한 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품행이 단정·순결하여 자기 일신은 물론 家內까지도 청백하며 汚賤에 조종되지 않는 정신을 가진 관리를 청백리 즉 소극적 의미인 부패하지 않은 관리가 아닌 적극적인 의미가 담긴 맑고 깨끗한 관리라고 하였다. 청백리 정신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청렴정신은 자체의 의미가 밝히고 있듯이 탐욕의 억제, 비밀행위의 금지, 성품의 온화성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廉은 관리나 백성 모두에게 표본을 뜻하기 때문에 청렴윤리는 청백리의 기본정신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의 생명력과 도덕성을 활성화하고 따라서 역사적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청백리는 본래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8덕목(淸白·勤儉·厚德·敬孝·仁義·善政·忠誠·遵法)을 실천한 바람직하며 깨끗한 공직자상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어 왔다. '청백'이라는 말은 '청렴결백'의 약칭으로 이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 가장 이상적인 관료의 미덕으로 지칭되는 것이기도 하다. 청백리는 청렴한 관리를 지칭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조선시대에 제도화되어 청백리안에[10] 명단이 올랐던 사람들을 말하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청백리는 작고한 사람들에 대한 호칭이고, 산 사람에 대하여는 보통 廉謹吏 혹은 廉吏라고 불렀다. 염근리로 선발된 사람은 승진

[9] 이서행, 청백리정신과 공직윤리, 인간사랑, 1990, pp.37~39
[10] 위의책, pp.103~116

이나 보직에 많은 특혜를 받았고, 죽은 후에도 자손들에게 벼슬이 주어지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관료로서의 큰 명예였으며 가문을 빛내는 일이기도 하였다.

반대로 부정 부패한 관료는 탐관오리 혹은 贓吏라고 불렀다. 탐관오리로 지목되어 탄핵을 받았거나 처벌받은 관리들은 장리안에 수록되어 본인의 관직생활이 막히는 것은 물론 그 자손들이 과거를 보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바람직한 공직자 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청렴정신의 유교사상적 뿌리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렴은 본래 유교에서 드러나게 표방하는 주요 교리의 조목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이상을 추구하던 유학자들이 공직자의 윤리로서 매우 중시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청렴은 유교 정치사상의 핵심에 속하는 인정 곧 덕치주의, 위민사상, 정직의 윤리, 청빈사상 등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총체적 의미에서 관료나 학자들의 개인적 수양 덕목에 속하는 염치, 의리, 명예심 등의 선비정신과도 결부되어 있으며, 총체적으로는 인격의 완성을 지향하는 仁의 덕목 속에 함축되어 있다.

유교의 청렴 사상은 개인의 성실성 강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의 공직자들이 반드시 높이켜 보아야 할 대목이다. 모든 부정과 부패는 그것을 엄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에서부터 야기되지만 아무리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부정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마침내는 드러나게 된다.

"혼자 있을 때 삼가야 한다"는 공자의 가르침은 개인적 성실성의 확립이 모든 사회활동의 기초가 된다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다. 유학자들의 견지에서는 적어도 이러한 성실성이 확립되어야 비로소 집을 다스리고 국가를 다스릴 만큼 수양되었다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교에서 말하는 수기치인의 원리이다. 유교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통치자나 공직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지적·도덕적 훈련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2. 修己治人의 公職倫理

유교의 공직사상은 修己와 治人이라는 두 범주로 구성되며 청백리 8덕목을 수기치인에 적용하여 구분해보면 수기덕목에는 청백·근검·후덕·정효·인의가 해당되고 치인덕목에는 선정·충성·준법 덕목이 해당된다. 즉 자기 수양을 통하여 성품과 인격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청백리에게 제일 요구되는 자질이 개인 윤리적인 도덕성이고, 이러한 도덕성은 정치적 실천과 연관된다. 유교사상에 나타난 덕치주의, 청렴, 정직, 염치, 근검 등은 청백리 정신의 뿌리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

한 이것이 우리 나라 고유한 선비정신의 근간임을 알 수 있다.

공직자가 되어 남을 다스리기 위하여는 먼저 자신을 수양하고 도덕성을 함양해야 한다는 것은 유교 정치사상의 핵심에 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직자의 자질 확립을 통해 바른 정치를 실현하려는 이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유교 경전이 『大學』이다. 이 책에는 유교 정치사상의 기본적인 원리와 체계가 잘 나타나 있다.

『대학』의 8조목은 통치자나 행정 관료의 기초적인 수련 요건을 단계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즉 格物, 致知, 誠意, 正心,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의 단계적 수행 과정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성의'와 '정심'이 바로 청렴 사상과 직접 관련되는 조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스스로의 수양이 곧 가정과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자질이 된다는 것이다.

개인의 수양에도 여러 단계가 있었다. 수양을 하려면 먼저 마음을 바르게(正心) 해야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자면 먼저 뜻을 성실하게(誠意) 가져야 한다. 그리고 뜻을 성실히 하자면 폭넓은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지식을 갖추려면 세상 만물의 이치를 궁리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유학자들이 특히 강조하였던 것이 '정심'과 '성의'였다.

요컨대 마음은 모든 지각과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가지지 않으면 사물을 잘 보고 그 의미를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항상 바르게 유지하여야 하는데 노여움이나 두려움, 편향적인 애착이나 근심 걱정이 있으면 마음이 평온하게 될 수도 바르게 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신에는 마음을 바르게 하는 일이 급선무가 된다는 것이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것을 지향하여 동요하지 않게 하는 것이 수신의 요체가 될 것이다. 이것이 확립되면 부정과 부패가 스며들 소지가 없어질 것이다. 반대로 사리사욕의 유혹으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정심'이 이루어질 수도 없을 것이다.

보통 사람은 나쁜 일을 하면서 감추려 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남들이 자기의 내심을 들여다보는 것은 마치 오장육부를 들여다보듯이 한다.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마음속에서 성실하게 되면 그것이 외면으로 드러나게 된다.

3. 정직과 엄치의 공직윤리

공자는 政治의 요체를 "바르게(正) 하는 일"이라고 파악하였다. 먼저 나를 바로 잡고(正己) 그리고 나서 남을 바로 잡고(正人) 사회와 국가를 바로 잡

는다는 것이다. 이는 수기치인의 원리나 다를 바가 없다. 굽은 것을 바르게 펴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부정과 비위를 공정과 선행으로 바로 잡으며, 모순과 혼란을 질서와 정화로 돌리는 일이 바로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잡는 일은 두 가지가 있다. 자기를 바르게 하는 일과 다른 사람들 곧 사회를 바르게 하는 일이 그것이다. 공자는 물론 위정자들이 자신을 정직하게 바로 잡는 일을 우선시켰다. 공자는 정직이야말로 사람의 삶에 핵심이 되는 원리요, 생명력이라고 파악하기도 하였다. 그는 "사람이 사는 것은 정직 때문이니, 그렇지 않고도 사는 것은 요행히 죽음을 면한 것일 뿐"이라고 단언하기도 하였다.[11]

공자가 정과 직을 강조한 데 비하여, 맹자는 공직자나 선비의 자세로 염치를 강조하였다. 염치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가짐을 말한다. 맹자는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것이야말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하였다.[12] 그의 말을 보면

> "사람은 염치가 없을 수 없으니, 염치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부끄러움(염치)을 아는 것은 사람에게 큰 일이다. 염치가 남과 같지 못하면 무엇이 남과 같겠는가?"

여기서 맹자는 사람의 인간 됨됨이에서 염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말하였다. 그것 없이는 사회에서 존중받기 어렵다. 보다 큰 문제는 염치없음을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교 사회에서는 염치가 사람을 평가하는 하나의 큰 기준이 되었던 것이다. 때로는 이것이 지나치게 사람들의 마음을 죄어서 사회활동에 소극적인 태도를 조장하기도 하였지만, 위정자들이나 관료들에게는 이것이 욕심을 단속하는 조건이 되기도 하였다. 이 역시 전통시대 청렴정신을 기르는 한 사상적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염치에 대한 맹자의 기준은 상당히 엄격하였다. 그는 "가져도 좋고 가지지 않아도 좋을 때 가지는 것은 염치를 손상하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비록 죄가 되거나 크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철저히 깨끗하지 않으면 염치를 해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조그만 욕심이나 권모술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맹자는 "권모술수를 교묘히 하는 자는 염치를 쓸 곳이 없다"고 하여 술수 부리기 좋아하는 자들을 비판하였다. 따라서 염치도 개인의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도덕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11) 「論語」, 雍也, 「子曰, 人之生也直, 罔之生也, 幸而免」.
12) 「孟子」, 盡心上, 「孟子曰, 人不可以無恥, 無恥之恥, 無恥矣, 孟子曰, 恥之於人, 大矣, 爲機變之巧者, 無所用恥焉, 不恥不若人, 何若人有」.

오늘날에도 공인이라고 하면서 부끄럽지 아니한 뱃뱃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가장이라고 집안에서는 큰 소리를 치는 사람도 상관이나 권력자들 앞에서 비굴한 언사로 아부하고 견마처럼 복종하면서 부귀를 나누어 받기를 염원하고 있다면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부끄러움이 없게 되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게 된다. 이 모두가 몇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끝없는 물욕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4. 근검과 청렴의 공직윤리

『政要』라는 책에는 전통시대 관직 생활의 요체를 간결하게 정리하였다. "벼슬할 때는 세 가지의 오묘한 비결이 있다. 첫째는 청렴함이며, 둘째는 謹愼함이며, 셋째는 근면함이다" 이는 간략한 말이지만 공직자들의 기본정신과 태도를 명쾌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백리는 廉謹吏라고도 하였다. 이 말은 여기에 선발되는 관리들의 두 가지 요건을 표시하고 있다. 청렴과 근면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현실 정치에서 요구되는 관리들의 품성이라고 할 수 있다. 벼슬하지 않는 선비들에게는 청빈한 생활만으로도 미덕으로 칭송되지만 행정을 맡은 관료는 근면한 업무수행을 통하여 통치의 실효를 거두고 국민들에게 실제의 혜택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렴하다는 명성만 있을 뿐 정사를 게을리 하여 직무를 방기하는 관리들은 도리어 단핵을 받았다.

유교에서는 위정자들의 부귀를 무조건 배격한 것은 아니다. 공자에 의하면 나라에 도가 행해지고 모든 것이 점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에서는 부귀하게 되지 못하는 것이 수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나라에서는 도덕과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하기 때문에 벼슬을 하고 부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나라가 무도한 지경에 빠지게 되면 부귀하다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된다. 그 자신도 무도하게 하지 않으면 그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자는, "나라에 도가 있을 때 빈천하게 사는 것은 수치요, 나라에 도가 없는데도 부귀하게 사는 것은 수치다."[13] 라고 말했던 것이다.

조선시대 학자로서 고위 관직을 지냈던 청백리 栗谷은 공직자의 자세를 『擊蒙要訣』에서 일목요연하게 설파하였다. 그 역시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청렴과 근면으로 보았다.

13) 「論語」, 泰伯, 「邦有道, 貧且賤焉, 恥也. 邦無道, 富且貴焉, 恥也」

율곡은 "벼슬이란 남을 위한 것이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관직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려는 정치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지,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이 때문에 자신의 도를 실현할 가망이 없으면 벼슬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다만 매우 궁핍하여 먹고살기 위해 벼슬을 하는 경우에는 도를 실현할 수 없더라도 벼슬을 할 수는 있지만 책임이 적은 낮은 관직을 자청하여 겨우 생계나 유지할 정도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도 역시 청렴하고 직무에 충실하고 부지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공직자의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유학자들 가운데서 행정의 실제와 관료의 품성 및 행동의 준칙들을 가장 깊이 연구하여 정리한 사람은 실학의 집대성자라고 할 수 있는 다산 丁若鏞이다. 그의 『牧民心書』는 주로 지방관들의 일선행정에 대하여 정밀하게 서술한 명저이지만, 여기에는 전통시대 관료들이 가져야 할 심성과 행동의 준칙들을 망라하여 수록하였다. 이것은 비단 그의 사상일 뿐만 아니라 중국과 한국의 역대 유학자들의 논의들을 집대성한 것이기도 하다.

다산은 청렴이야말로 수령의 본무이며, 모든 선의 원천이고, 모든 덕의 근본이라고 보았다. 청렴하지 않고는 능히 수령 노릇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청렴은 관료들의 당연한 의무이며, 그것이 천성적으로 체질화되어 자연스럽게 표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를 공리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는 청렴이 관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자산이라고 설과하였다. 심지어 그는 청렴을 "천하의 큰 장사"라고 표사하기도 하였다. 벼슬에 욕심이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청렴에 대한 평가와 명성이야말로 계속하여 그 사람의 승진과 영전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청렴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극히 어리석게 보았다. 그토록 뻔한 사리를 지혜가 짧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부정과 부패에 물들어 관료로서의 빛나는 전도를 망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Ⅳ. 청백리윤리의 공직사회화 과제

우리의 역사상에 있어서 표상이 될 人間像을 말하라고 한다면 유교적인 군자상과 선비상 일 것이다. 동양에 있어서 군자는 공자 및 유가의 이상적 인간상이어서 물리를 터득한 자이자 여러 덕목의 결집체인 仁을 터득한 사람으로서 인격과 지성의 圖表요 덕치를 궁극적 목표로 하는 이상적인 정치

가요 행정가 즉 청백리라고 말할 수 있다. 청백리정신의 올바른 구현을 위해서는 시대인식에 따른 자기표현과 더불어 시대를 넘어선 보편적 본질 인식이 병행되어야 한다. 오늘의 시대상황으로 볼 때도 청백리정신을 통해 淸廉潔白, 勤儉厚德, 正直廉耳, 見利思義, 修己治人, 和而不同하는 바람직한 지식인상과 公職者像의 제현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 선비출신인 청백리는 분명히 그 사회의 양심이요 지성이며 인격의 기준으로 인식되었고, 심지어 생명의 원동력인 원기라 지적되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사회까지 그 시대적 양상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공인정신의 주체였던 청백리는 각 시대에서 지도적 구실을 하는 지성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왔다. 청백리는 현실적·감각적 욕구에 매몰되지 않고 보다 높은 가치를 향하여 상승하기를 추구하는 가치의식을 갖는다. 그리고 그의 신념을 실천하는데 꺾이지 않는 용기를 지니고 자신의 과오를 반성할 줄 아는 성찰자세를 겸비했으며, 사회의 모든 계층을 통합하고 조화시키는 중심문화를 형성했다. 청백리는 이제 신분적 존재가 아니라 인격의 모범이요 시대사회의 양심으로서 인간의 도덕성을 개인 내면에서나 사회질서 속에서 확립하는 원천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청백리는 평상시에 엄격한 자기 규율하에 화평하고 유순한 마음으로 公私無私한 中庸을 지키지만, 그러나 도덕결치와 의리의 정당성이 손괴될 때에는 목숨을 걸고 가장 준엄하게 비판하고 배척하는 정신을 결코 잃지 않았다.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한 과제이기도한 公職者像의 정립을 위해서라도 현대판 선비에 가장 가까운 고뇌하는 知識人像과 시대적 公人像을 먼저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현대사회의 공직자가 되는 과정에 전통적인 선비와 청백리가 되는 인격화과정학습과 제도도입이 필요하며 현대화가 절실히 요망된다. 즉 선비와 청백리가 되는 과정으로는 생활상에 있어서 修學 30년 行道 30년(修己治人)의 인생과정을 통해, 지식의 양적 축적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고 도리를 확신하고 실천하는 인격의 성취에 목표를 두었다는 실천적인 지식인상과 공직자상을 남겼고, 제도화 과정으로는 군주나 관리의 修飾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 즉 군주에게는 經筵을 통해서 왕도정치가 지속적으로 주입되었고, 諫言제도를 통해서 治治 위배에 대한 충고가 끊임없이 상소되었으며, 관리들에게는 부단한 청백리교양작용과 감찰기관 및 암행어사 제도 등을 통해 견제작용을 과면서 도덕결치 구현을 추구했다.

청백리윤리의 공직사회화 과제는 일차적으로 의무교육기관을 비롯해서 전 교육기관이 인성교육과 공인(책임있는 사회인)교육의 내용을 적극 반영해야

하며, 공직입문 과정에서도 청백리윤리의 덕목과 공직관을 체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특히 인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공직생활에 있어서도 청백리의 생활덕목들이 공직사회의 중심가치의 역할을 하도록 평가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조선조는 바람직한 관료상으로서 청백리제도를 활성화하여 모든 관리들에게 청백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였으며 실제 청백리에게는 본인과 자손들에게 각종 정신적·물질적 혜택을 주었고 大宴의 실천으로 여기게 하였다.

그러나 조선사회의 정치문화 특색처럼 왕조 창건당시의 체제정비가 지나고 勳戚勢力을 중심으로한 지배계층의 수탈정치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불의는 가속화되면서 부패척결 의지는 나약해지고 사간원·사헌부·홍문관·암행감찰 제도 등의 운영은 형식화되기에 이르렀다.

아무리 이상적인 유교의 왕도정치 이념과 전통적인 淸白吏像을 제시하여 긍정적 측면에서 반부패의지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장려한다해도 탄핵하는 반부패의 제도적 측면이 상호 보완되지 않으면 어느 사회에서나 부패척결은 요원하게 마련이다. 또한 조선조의 三司같은 전통적인 반부패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해도 끊임없는 당쟁과 정국혼란으로 반부패기능이 마비되면 三政紊亂 등의 부정과 부패로 인해 반정부의 민란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 결과 20세기초에 나라를 잃게 되었으며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부패망국의 망령이 존속되어 부패공화국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패의 늪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회기강의 확립을 위해서는 청백리 정신에 근거한 정다산의 목민심서같은 근본적인 공직윤리 확립 지침이 요망된다.

또한 전통사회에서는 군왕으로서의 덕을 잃지 않기 위하여 평소에도 측근에 諫官이나 臺官을 두어 혹 자신이나 관료들이 직분에 충실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했듯이 현대사회 통치자도 교훈 삼을 일이다. 자신이나 관료의 잘못으로 백성이 도탄에 빠지면 그 책임은 자신의 몫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나 관료들이 직분을 잘 지키고 있는지, 사회의 여론이 어떤지, 백성들의 불편이 없는 지를 늘 살펴야 했기에 闕論政治 실시를 미덕으로 여겼다. 조선조가 유교적인 정치제도에서 반부패 시스템으로 감사기관인 臺諫을 둔 까닭도 여기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부패척결을 위한 교훈면에서 볼 때 공직자 개개인의 도덕화, 인격화의 노력과 통제적인 제도가 동시에 상호작용할 때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제 발표 논문 1

조선시대 청백리제도와 기능

주제발표 : 문수진 (신구대학/한국사)
악정토론 : 정만조 (국민대학교/조선시대 정치사)
악정토론 : 이문주 (성균관대학교/유학 · 동양학)

조선시대 청백리 제도와 기능

문수진 (신구대학/한국사)

<차 례>

Ⅰ. 머리말
Ⅱ. 고려 이전의 청백리
Ⅲ. 조선초의 관리등용
Ⅳ. 청백리 제도의 실시
1. 염근리와 청백리
2. 청백리의 선발
가. 선정기준과 절차
나. 녹선과 외가 및 서용
Ⅴ. 청백리 제도의 기능
1. 염근리와 청백리
2. 청백리의 선발
Ⅵ. 맺음말

Ⅰ. 머리말

청백리란 청렴한 관리라는 뜻이다. 조선왕조는 새 왕조 개창 후 유교의 민본정치를 표방하고 나섰다.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뜻에서 청렴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했던 것이다. 고려의 몰락 원인은 원의 간섭 후에 권문세가의 부패한 정치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새 왕조 개창 후에는 관리의 임명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었다. 청백리제도가 역사적으로 중요시되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처음부터 법제화 한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세종 때에는 도덕적 기강이 바로 잡힌 청백리 재상이 많이 배출되었다. 동대문 밖의 비 새는 초가에서 살았다는 정승 유관(柳寬), 고향에 내려갈 때 검은 소를 타고 다녔다는 명사성, 평생을 근검절약하며 가난하게 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많은 일화를 남겨 오래도록 세인의 칭송을 받았던 황희 정승 등이

다. 이들이 언제부터 청백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청백리가 제도화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밟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지 않다. 이현종의 「청백리 정신과 열전」[14] 김병일의 「조선왕조의 청백리에 관한 연구」[15]가 있고, 이서행의 학위논문인 「조선조 청백리의 공직윤리에 관한 연구」[16]와 이를 보완한 「청백리정신과 공직윤리」[17]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다. 청백리제도의 역사적인 연구와 현대의 공직자의 윤리적인 연관성을 다루었다.

필자는 역사적인 사실을 검토하고 청백리제도의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청백리제도가 대단히 중시되고 체계적으로 갖추어졌을 듯한데 실제로는 법제화되어 명확한 기록으로 남겨지지 못한 듯하다. 그러므로 후세에 청백리를 제도화하려 하였으나 처음과 같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자료도 쉽게 찾을 수가 없고 청백리로 칭송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알아볼 수 밖에 없다. 다만 「朝鮮王朝實錄」에 산견되는 자료와 「典故大方」[18] 등 후세에 만들어진 청백리 인물들을 검토하여 무리하게 주제에 맞추어 보려하였다. 그 외 여러 자료들이[19] 있으나 인물 선정이나 기록에서 일치하지 않고, 신뢰도가 떨어진다.

Ⅱ. 고려 이전의 청백리

한국사에서 관리선발제도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 역대왕조에서는 모두 다 관리의 선발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었다. 신라는 골품제사회로서 극히 제한된 신분에서 관리가 임명되었다. 독서출신과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하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화랑제도로써 인재를 양성하고, 청렴한 인물을 관리로 쓰려는 노력은 엿보였다. 예를 들어 花郎 劍君의 청렴결백한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 A. 신라 진평왕 49년(627) 8월에 서리가 내려 흉년이 들자 다음해 봄에 기근이 심하였다. 자식을 팔아먹고 사는 형편이었다. 이때 궁중의 사인(舍人)들이 창고에서 곡식을 훔쳐서 나누었는데 검군만이 홀로 받지 않았다. 사인들이 말하기를 '여러 사람들이 다 받는데 그대만이 거절하니 무슨 까닭인가? 만일 적다고 해서 그런다면 다시 더

---

14) 李鉉淙, 「淸白吏精神과 列傳」, [illegible]文化社, 1977.
15) 金炳日, 「朝鮮王朝의 淸白吏에 관한 硏究」, 서울대학교 行政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6.
16) 李瑞行, 「朝鮮朝淸白吏의 公職倫理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17) 李瑞行, 「淸白吏精神과 公職倫理」, [illegible], 1990.
18) 姜斅錫, 「典故大方」 1924, 漢陽書院. 韓國古辭典叢書 1卷, 亞細亞文化社 影印(1976)
19) 「大東掌攷」(洪敬謨 純祖때), 「淸選考」(奎章閣), 「增補文獻備考」(1908), 「韓國姓氏大觀」, 「歷代淸白吏傳」, 金元泰, 甲文書籍公社(1980), 「朝鮮朝淸白吏誌」 高檜東(1983)

> 주겠다.'고 하였다. 검군은 웃으면서, '나는 화랑도에 이름을 두고 수양하고 있으므로 의에 어긋나는 일이면 천금의 이로움이 있더라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 하면서 끝내 거절하였다. 그러자 곡물을 훔친 일당은 자기들의 죄상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드디어는 검군을 죽였다.20)

검군은 이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태연히 죽어갔다. 청렴한 관리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고려를 건국한 왕건은 태봉의 제도를 대부분 답습하면서 먼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고자 관리임용에 관심을 보였다. 태조는 즉위 후 6일째 되는 날에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 B. "관을 설하고 직을 분함에 유능한 사람을 임명하는 길이 있고 풍속을 이롭게 하고 백성을 평안하게 하는데는 현명한 사람을 고르는 일이 급한 것이다. 진실로 관직에 소홀함이 없으면 어찌 정사가 거칠어짐이 있으리. 짐이 외람되이 景命을 받아 비도(丕圖)를 밝게 운용함에 있어 위에 임함이 마음 편하기 어려움을 돌이켜보고 총명하고 무심한 데들이지가 두려움직한 것임이 생각된다. 오직 사람을 알아봄이 밝지 못하고 관을 살핌이 실수가 많아 어진 사람을 빠뜨린다는 탄식을 일어나게 하고, 공의 선비 없는 사회에 어긋남과 벌려하며 자나깨나 걱정되는 것은 오직 이것뿐이다. 내외의 관원들이 모두가 그 직책에 충실하면 다만 이때만의 다스림을 이룩할 뿐 아니라 족히 후대의 칭찬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마땅히 열벽(列辟)을 등용하고 군공(群公)을 역시(歷試)하여 정선에 힘써서 모두 고르게 할 것이니 중외가 다 짐의 뜻을 알지어다." 하고 드디어 한찬(韓粲) 김행도(金行濤)로 광평시중(廣評侍中)을 삼는 등 관직을 제수하면서 이들이 다 일찍부터 사무에 숙달하고 청렴근신(淸廉謹愼)하여 가히 봉공(奉公)에 태만함이 없고 결단을 민첩하게 하여 진실로 여러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었다.21)

광종 때에 와서 과거제도가 실시되면서 획기적인 관리 선발이 이루어졌다. 음서제도를 병용한 고려는 흔히 귀족사회로 불리어진다. 과거제도가 실시되면서도 관리 임명에는 청렴도가 대단히 많이 강조된다. 고려의 관제를 갖춘 성종이 5년(986) 9월에 내린 교서에도

> C. "하늘은 말이 없어도 별들을 늘여 놓아 세상을 비치게 하고 임금은 덕화를 베풀어 어진 사람에 의지하여 사방으로 나누어 다스리는 것이다. 과인이 비록 깊은 구중(九重)에 있다 하여도 마음은 널리 백성들에게 있나니 현명하고 능력 있는 신하와 더불어 같이 시화(施化)를 청명하게 하고자 한다. 잠영(簪纓)의 어진 사람을 뽑아 목재(牧宰)의 직으로 보내 세금을 고르게 함으로써 백성을 감화시키고 청렴하고 공평함을 숭상하여 풍속을 이룩하고자 한다. 그러나 사람을 천거하는 이가 적으니 이 일이

20) 『三國史記』 卷48, 劍君

21) 『高麗史』 卷1 世家 太祖元年 6月 辛酉

미루어질까 걱정이 된다. 다시 제죽(祭祝)의 단(端)을 열어 특별히 거듭 교지를 내리나니 무릇 너희들 목민관은 옥송(獄訟)을 지체하지 말고 창고를 충실히 하여 궁핍한 백성을 진휼하고 농상을 장려하며 요역(徭役)을 가볍게 하고 부세(賦稅)를 적게 하며 일을 처리하는데 공정해야 할 것이다. 매사에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하면 그 처음부터 삼가야 하고 장차 흐르는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그 근원부터 밝게 하여야 하나니 차라리 내 것을 덜어 남을 유익하게 할지라도 도천(盜泉)의 물을 마시거나 관청의 촛불을 켜지 아니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제관에서 원망함이 없을 것이고 집에 벌어진 것을 줄지 않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은 그 삶을 즐길 것이고 집집마다 무리들이 그 생업에 안정될 것이다. 금혼(金渾)이 움직이는 것이 칠정(七政)을 합이 빛을 더할 것이고 옥촉(玉燭)이 순환하니 四하를 거느려 질도가 있을 것이니 무릇 외관들은 힘써 준수하여 잊지 말지어다."[20]하였다.

「淸廉」이라는 단어가 『高麗史』 世家에 12건 나오는데 거의가 관리임명과 관련이 있다. 특히 목민관의 임명에 청렴도를 중요시 한 것은 백성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이다. 志에 7건, 列傳에 46건이 나온다. 지의 7건 중에는 관리의 선발과 관계 있는 「選擧志」에 3건이 있다. 열전의 「良吏傳」을 분석해 보면 양리의 선정 기준이 첫째, 지방관리 출신자 중에서 선발하였고, 둘째, 성품이 淸愼하고 인후하여 백성을 무육(撫育)·교화할 수 있는 사람, 셋째, 여사적으로 나타난 모든 양리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이라 하였다.[21] 여기에 유석(柳碩)·왕희(王熙)·김지석(金之錫)·최석(崔碩)·정운경(鄭云敬)이 실려 있다. 이 중 최석은 충렬왕 때 사람으로 승평부사(昇平府使, 順天)로 있다가 비서랑이 되어 올라올 때 주민들이 전례대로 말 8필을 주었으나 다시 돌려보내었다. 주민들이 이를 기려 팔마비(八馬碑)를 세워서, 지금도 순천에는 그 비가 전하여 온다. 고려의 양리는 바로 청백리이고, 고려시대에도 관리의 청렴도를 얼마나 중시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Ⅲ. 조선초의 관리 등용

조선시대는 유교를 숭상하여 유교정치의 이념이라 할 수 있는 덕치·민본사상, 즉 위민정치, 백성을 위한 정치를 표방하였다. 유교사상은 윤리와 정치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않는다. 덕을 갈 쌓은 사람, 다시 말해서 확고한 윤리관을 체득한 인간이라야 올바른 정치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윤리정치철학이 바로 유교의 기본사상이다. 도덕이나 윤리를 외면한 이를테

20) 『高麗史』 卷3, 世家3, 成宗 5年 9月, 己丑
21) 『高麗史』 卷121, 良吏傳, 李離行, 앞의 책, p.83.

면 무도덕·비윤리적인 정치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다. 정치를 하는데 어디까지나 윤리가 그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윤리정신을 정치에 고착시켰다는 점에서 유교정치의 장점이 있었다.[24]

조선의 건국이념은 유교사상에 입각한 이상적 관료국가의 건설이었다. 따라서 왕도정치사상에 의한 덕치와 천명관(天命觀)에 입각한 민본사상(民本思想)·위민사상(爲民思想)이 그 중심이라 할 수 있다. 태조 이성계는 천명사상과 인심론을 중심으로 하여, 즉 "하늘이 백성을 낳고 군장을 세움은 그들을 서로 의롭게 살게 하며 그들을 편하게 다스리기 위함이다. 따라서 군도(君道)에는 얻고 잃음이 있으며, 인심에는 좇음과 배반함이 있어 천명의 거취가 연루되니 이는 이치의 떳떳함이다."[25] 태조 이성계의 건국이념은 천명을 따르는 것이고, 천명을 따른다는 것은, 곧 인심에 순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왕위에 오른 것도 사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심에 순응한 결과이고, 나아가서 천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교적인 천명관에 따른 그의 건국이념에서는 인심에 순응하는 덕성을 갖춘 치자(治者)와 선정하는 관리를 제일 목표로 하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교의 덕치주의·인도주의·민본주의의 영향이라 하겠다.[26] 역대 왕조의 창업자가 그렇듯이, 태조 이성계도 즉위하고 반포한 교서에서 청렴한 관리임용을 강조하고 있다.

D-1) "수령은 백성에게 가까운 직책이니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도평의사사와 대간·육조로 하여금 각기 아는 사람을 천거하게 하여, 공평하고 청렴하고 재간이 있는 사람을 얻어 이 임무를 맡겨서 만 30개월이 되어, 치적이 현저하게 나타난 사람을 발탁 등용시키고, 천거된 사람이 적임자가 아니면 천거한 사람에게 죄가 미치게 할 것이다."[27] 하였다.

2) "무릇 대소 목민관들은 모두 30개월로서 1고(考)로 삼고 임기가 차서 대체(代遞)된 뒤에 경력한 녹봉의 달을 계산하여, 같은 부류를 선발해서 승진 제배(除拜)에 빙고(憑考)하고, 그 수령의 욕심이 많고, 잔인 포악하고, 무능하고, 유약하고, 게으르고, 용렬하여, 직무를 감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각 도의 감사가 그 실상을 조사하는데 따라, 모두 무능한 사람을 물리치고 유능한 사람을 등용하게 하고, 이내 본 도의 한량관 내에 공평하고 근실하고, 청렴하고 재능있고, 재주와 덕망이 다 갖추어진 사람을 추천해 뽑아서 임시로 사무를 대리하게 하고, 예수(禮數)로써 임명하여 공무를 집행하게 하며, 직명을 위에 보고하여 계문(啓聞)에 빙고(憑考)하게 해서 제수하고, 그 덕이 있고 재능이 있어 남보다 뛰어난 사람은 계임에 차례를 밟지 않고 발탁하여 쓰게 하였다."[28]

24) 『한국사』 10권, 국사편찬위원회, 1974, p.219
25) 『朝鮮王朝實錄』 太祖1年 7月 28日(丁未)
26) 李瑄行, 『淸白吏精神과 公職倫理』, pp.59~63.
27) 『朝鮮王朝實錄』, 太祖 元年 7月 28日, 태조의 即位敎書.

위의 내용은 앞서 고려가 건국 후에 내린 교서와 유사한 것으로 관리의 청렴성을 우선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후대에도 이어졌으니 『朝鮮王朝實錄』 전체에 청렴이라는 용어가 1,812건이 등장하는 것으로 봐도 알 수 있다. 이들이 모두 인사문제와 관련이 있다. 특히 건국 초기에 태조와 태종이 관리를 임명하는데 청렴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백성과 직접 접하고 다스려야하는 수령의 임무는 통치의 바탕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 민심을 얻지 않고서는 국가 기강이 서지 않는 것이다. 조선건국의 기본통치이념은 유교의 민본주의에 있었다. 역대 군주와 관리들은 위민, 목민관으로서 백성을 잘 기르는 관리를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약용은 『牧民心書』에서

E. "청렴은 목자의 본무요, 모든 선의 원천이오, 모든 덕행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목자가 될 수는 절대로 없다. 청렴이야말로 다시없는 큰 장사인 것이다. 그러므로 큰 욕심장이일수록 반드시 청렴한 것이니,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까닭은 그의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깊은 지혜를 가진 선비로서 청렴을 고론삼고 탐욕을 경계하지 않는 이는 없었다."[28]고 하였다.

조선초에 청렴한 관리가 많이 나왔다. 이들이 후세에 청백리로 입길에 올랐다. 황희(黃喜)·맹사성(孟思誠)·유관(柳寬) 등이 청백리로 칭송되는데 이들이 당대에는 청백리로 칭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성종 이후 국가체제가 갖추어지면서 청백리로 부르게 된 것 같다.

Ⅳ. 청백리 제도의 실시

1. 염근리(廉謹吏)와 淸白吏

「淸白吏」라는 용어는 『高麗史』에는 단 한번 나온다.

F. "손유는 청주의 아전인데 매양 공무로 인하여 촌락에 출입하였으나 조금도 취하지 않으니 이 때 사람들이 청백리라 칭찬하였다. 우왕 4년에 그가 사는 마을에 화구가 침구하였는데 자녀들이 옷을 불잡고 울었으나 손유가 돌아보지 않고 빨리 어머니의 집에 달려가서 업고 숨어 면할 수 있었으니, 고을 사람들이 존경하고 탄복하였다."(孫有淸州吏也 每因公事出入村落 一毫不取 時稱淸白吏 辛禑四年 倭寇所居里 兒女攀衣號泣 有不顧而走母家 負而匿得免 州人敬服 『高麗史』 卷121, 列傳34, 孝友條引)

28) 『朝鮮王朝實錄』, 太祖 元年 8月 2日 (辛亥).

29) 丁若鏞, 『牧民心書』 (淸心篇), "廉者 牧之本務 萬善之源 諸德之根 不廉而能牧者 未之有也 廉者天下之大寶也 大貪必廉 人之所以不廉者 其智短也 故自古以來 凡智深之士 無不以廉爲誡以貪爲戒" 李乙雄역, 한일사, 1977, p.77.

청백리란 「청렴결백한 관리」 라는 뜻인데 처음에는 특히 하급관리를 칭한 듯하다. 청백리라는 용어가 자주 쓰인 것은 조선 성종 이후라 할 수 있다. 청백리는 이외 청리(淸吏) · 염리(廉吏) · 염근리(廉謹吏)와 통하는 용어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의 용어는 오리(汚吏) · 장리(贓吏) · 탐리(貪吏)라 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 에 청백리란 용어가 처음 나온 것은 연산군 9년 2월 11일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다.

G. 이극균(李克均), 이극돈(李克墩), 박건(朴楗), 송일(宋軼)에게 전교하기를 "지금 대간이 이르기를, '마땅히 청백리를 포상해야 한다.'고 하는데 출척(黜陟)의 임무를 이미 감사에게 맡기고 따라서 출척을 하는 것은 불가하지 않겠는가?"[30]

이 기사는 당시 신하가 임금에게 상주할 때에 "청백리를 포상해야 한다." 고 말한 것으로 보아 이미 청백리라는 용어를 쓰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번역판 「朝鮮王朝實錄」 CD롬에 청백리로 번역하는 경우도 淸白이나 청렴이란 단어를 청백리라고 번역해 놓은 경우가 많다. F의 『고려사』 기록에 청백리라는 용어를 쓴 것을 보면 조선초에 이미 청백리라는 용어를 썼을 듯한데 연산군 때에 처음 기록하였다. 『增補文獻備考』 에 조선 태조 원년에 安省 등을 청백리로 선정했다고 하나 『조선왕조실록』 에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청백리와 염근리는 어떻게 쓰였나를 알아보고자 한다. 염근(廉謹)이란 "청렴하고 삼가 조심한다."는 뜻이다. 염근리는 辭典에서 "마음이 청렴하고 매사에 조심성이 많은 관리" 라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에 염근이란 단어가 146건이 나온다. 또 염근리(廉謹吏라)는 단어가 광해군 14년부터 나오고, 모두 7회 나오는데 다음에 열거해본다.

H-1) 전 좌의정 심희수(沈喜壽)의 졸기에 史臣가 일찍이 그를 염근리로 기록하고 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으로 제수하였다(光海君 14年 5月 17日, 壬子).

2) 朴世采가 청하기를 "청백리를 선정하여 권면과 징계를 엄격하게 하소서." 하고, 남구만이 아뢰기를, "조종조(祖宗朝)에서 청백리를 선정할 적에는 단지 생존한 사람만 뽑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청백리는 죽은 사람 중에 더러 있고 생존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마땅히 죽은 사람과 생존한 사람을 통틀어 선정하되, 죽은 사람은 <淸白吏>라 하고 생존한 사람은 <廉謹吏>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이름을 사용할 수는 없으니, 지금은 단지 염근리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肅宗 20年 7月 23日, 己丑)

30)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9年 2月 11日(戊申) 傳于 李克均 李克墩 朴楗 宋軼曰 今臺諫云 當褒淸白吏 黜陟之任 旣委監司 從而黜陟之無乃不可乎.

3) 晝講에서 박세채가 아뢰기를 "엊그제 올린 차자에 대한 비답은 신의 차자와 뜻이 같지 않았습니다. 고 상신 이원익의 일기에 '청백리를 고쳐 염근리라고 했는데, 이준경(李浚慶)은 명종 임자년에 이미 염근리로 뽑혔고, 그 뒤 宣祖 때에는 또한 청백리로 추후에 뽑혔다.'고 되어 있어, 두 가지 말이 서로 달랐습니다. 효종에서 일찍이 이후원(李厚源)이 사록을 고찰하러 가자, 드디어 청백리에 대해서도 아울러 고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역시 기록한 문적이 없었기 때문에 史冊에 기록해 놓은 것도 자못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뽑는 염근리에 있어서는 마땅히 이원익의 일기에 있는 '2품 이상이 모여서 의논하고 묘당에서 결정한다.'는 예대로 하고, 조종조의 청백리에 있어서는 실록을 고찰해 본 다음에 정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옳게 여기고, 내년 봄에 실록을 포쇄(曝曬)할 때를 기다렸다가 고찰하도록 명하였다.(肅宗20年 11月 7日, 辛未)

4) 묘당에서 청백리·염근리 및 용관 중에 불용질(不用秩)·탁용질(擢用秩)을 초선하여 계하(啓下)하였는데, 청백리에 피선된 사람은 고 영의정 이시백(李時白)·홍명하(洪命夏), 우의정 이상진(李尙眞), 판중추부사 조경(趙絅)…. 등이다. 염근리에 피선된 사람은 호조판서 이세화(李世華), 부호군 강세귀(姜世龜), 전 군수 윤추(尹推)이니, 이세화와 강세귀는 가자를 명하고, 윤추는 군직(軍職)의 제수를 명하였다.(肅宗 21年 7月 11日, 辛未)

5) 장령 이운(李澐)이 6가지 상소한 중에 청렴한 관원을 포장하여 탐오한 풍습을 가다듬게 할 것을 말하고, "고 감사 강유후(姜裕後)는 청백리로 뽑혔고, 그의 아들 고 도정(都正) 강석빈(姜碩賓)은 염근리로 뽑혔으며, 고 군수 신상중(申尙重)과 고 통제사 민섬(閔暹)은 또한 모두 갑술년의 청백리 선발에 들었었는데도, 모두 시기하여 미워하는 자들에게 저지되었으니 일체로 포장하고 그들의 자손을 녹용하기 바랍니다." 하니….중략….가납하였다.(英祖 2年 4月 11日, 丁酉)

6) 송인명이 염근리를 초계(抄啓)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송인명이 말하기를 "만약 염근리를 가려뽑는다면 이의현(李宜顯) 한 사람 이외에는 모두 마땅히 선조의 옛 신하 가운데서 구해야 합니다. 고 판서 황흠(黃欽)·엄집(嚴緝)은 모두 염근하다고 일컬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윤지인(尹趾仁)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니 나는 그가 총관으로 있을 때에 알았다." 하니 조현명이 말하기를 "이병태(李秉泰)는 청백함이 남보다 지나쳐 굶주려 죽었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참으로 애곡하다." 하였다.(英祖 21年 1月 18日, 庚寅)

7) 조인영(趙寅永)이 또 아뢰기를 "대저 권선(勸善)하는 법은 정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조금이라도 외람된 것이 있으면 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접때 청백리를 수합하여 천거할 것을 연석에서 계품하여 윤허 받았습니다. 신이 『大典通編』을 상고하니, 천거조에, '염근리는 2품 이상으로 하여금 각각 아는 바를 천거하게 하여 묘당에 써서 보낸다.' 하였고, 또 정조 때에 천주(薦主)가 된 사람들을 상고하니 또한 6조의 당상이 모두 참여한 듯한데, 때에 따른 조처는 고금이 다르고 벼슬자리의 많고 적

> 은 것이 같지 않으므로 참작하여 절충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선 정랑(正郞) 이상과 비국 당상과 6조·한성부의 당상이 각각 천거할 만한 사람을 천거하되, 또한 한 달 동안 한정하여 수합하라는 뜻으로 다시 분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憲宗 7年 2月20日, 乙亥)

염근리는 생존해 있는 관리를 말하고 청백리는 사후에 녹선된 관리라 하였다. 염근이란 말이 국초부터 썼어도 염근리라고 용어는 훨씬 후대에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 생존한 전현직 관리에게는 염근리라 하고 사후에 녹선하는 경우에는 청백리라 하였던 것이다. 오래전부터 淸廉·淸白·廉謹 등의 용어를 썼어도 청백리나 염근리라고 부르는 것은 후대였음을 알 수 있다. 『增補文獻備考』에서는 태조 때부터 청백리를 녹선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31] 성종 이전의 청백리 명단은 제도화 이후의 사후 녹선으로 추정하게 된다.[32] 위의 사료에서 청백리는 연산군 때부터, 염근리는 宣祖 때부터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조 이전에는 생존한 인물에게도 청백리라 하였다. 조원기(趙元紀)는 좌부승지로, 또 송흠(宋欽)도 장흥부사 재직 중에 청백리에 녹선되었다.[33] 그러나 대부분의 염근리는 죽은 뒤에 청백리로 피선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사실상의 시대와 정책의 차이에 따라 명칭이 달라졌을 뿐 실제로 개념의 차이는 없었음을 알 수 있다.[34]

2. 청백리의 선발[35]

가. 청백리의 선정기준과 절차

1) 청백리의 선정 기준

① 淸廉潔白 : 청렴은 관리의 인품 중 가장 우선적인 덕목으로서 강조되었다. 정약용은 "청렴이란 목민관의 본질적 임무이며 모든 선의 근원일 뿐 아니라 모든 덕의 근원이다."[36]라고 하였다. 목민관으로서 지켜야 할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② 節約·儉素 : 조선시대의 청백리들은 절약·검소를 생활화하여야 하였

31) 『增補文獻備考』 권190, 選擧考15, 薦擧1.
32) 李瑞行, 『淸白吏精神과 公職倫理』, 민간사랑, 1990, p.42
33) 中宗 27年 4月 20日
34) 李瑞行, 앞의 책, p.91.
35) 李瑞行, 앞의 책, pp.86~93.
36) 『牧民心書』 律己 6條, 淸心

다. 청렴결백이 정신적·심리적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절약·검소의 생활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생활양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③ 勤政 : 근면·성실로서 국가발전과 백성의 생활향상을 이루는 것이다.

④ 遵法 : 법을 잘 지켜 백성의 안전을 꾀하는 것이다.

2) 청백리 선정 절차

① 發議와 公示 : 청백리의 선정은 관리의 부정부패행위를 방지하고, 정치적·행정적 개혁이 필요할 때 국왕의 지시 또는 조정의 건의에 따라 발의되었으며, 그 발의된 내용이 결정되면 곧 전국적으로 공고하게된다. 다음의 기록이 이를 알려준다.

I-1) 전교하기를 "청백리를 錄用하는 일은, 중앙의 各司의 堂上·部官과 지방의 수령·첨사·만호 가운데 남달리 청백하여 널리 알려진 사람이 있으면 기록하여 올리고, 지방은 감사에 보고하도록 하라. 자손을 임용하는 일에 있어서는 전에 이미 분명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승진(承聯)을 받도록 하라."(中宗 27年 1月 28日, 丁丑)

2) 전교하기를, "청백리의 후예나 싸우다 죽은 사람의 자손을 모두 소재지의 주·군으로 하여금 식별하여 뽑아서 보고하도록 하고 녹용하여 권장하는 일을 8도에 유시하라."(광해군 원년. 9. 20)

② 推薦 : 초기에는 의정부가 청백리 추천업무를 전담하였으나 필요에 따라 관계부서와 의논하는 경우도 있었다. 명종·선조대에는 의정부의 추천이 있기 전에 인사관계를 전담하는 이조에서 청백리 대상자를 선발하였으며, 그 명단을 의정부에 송부하였다. 결국 의정부와 이조가 서로 합의점을 이루게 되면 곧 선정 대상자로 결정되었다. 관리로 있다가 죽은 사람 중에서 추천할 때에는 청백리라 하고, 생존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현직관리 뿐만 아니라 전직자 중 사임한 인물일지라도 적격자로 인정되면 추천대상이 되었다. 다음의 사료가 이를 증명한다.

J-1) 좌의정 김광필이 청백리를 천거했는데, 죽은 정갑손·정창손·구치관·이약동·김종직·이숭원(李崇元)·유번(柳蕃)·정성근(鄭誠謹) 등의 자손 10여인이다. 이조로 하여금 재간에 따라 뽑아 쓰기를 청하고, 또 아뢰기를, "지금 조정에는 청렴하고 근신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고금의 인물 가운데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절개를 지킨 사람은 적습니다. 몸과 강속들은 여러 고을을 두루 거쳤는데 관청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항상 간략하고 조용하여 재으르지 않았으며, 나이 많아 늙을수록 더욱 청렴하고 곧은한 것을 견지하였으니, 마땅히 표창해야 할 듯합니다."(중종9년 12월 25일, 계축)

2) 이조가 아뢰기를 "청백리와 효행이 남다른 자를 서용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니 정부와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하라고 전교하였다.(명종원년 3월 25일,임오)

3) 청백리를 선발하도록 명하니, 이조가 널리 조정의 의논을 모을 것을 계청하였다. 이에 여러 재신들을 불러 회의를 하였는데, 이항복 등이 아뢰기를, "청백리는 세상에서 종요한 명예인데, 오늘날의 선비들 가운데 이 명성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매우 드물어서, 천거하는 사람도 머뭇거리고 의심하면서 감히 천거하지 못하고 천거받은 사람 역시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先朝에 '염근'으로 천거된 자가 있으니, 지금도 역시 '염근'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 마땅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에 유성룡·이원익·김수(金睟)·이광정(李光庭)·성영(成泳)·최여림(崔汝霖)·허욱(許頊)·오억령(吳億齡)·허잠(許潛)·이유중(李有中)·이시언(李時彦)·김장생·이기설(李基卨) 등 13인을 뽑았다. 대간이 논계하기를, "염근인을 선발할 때에, 혹 인심에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이 선발되기도 하고, 혹 인망에 기대를 모은 사람이 선발에서 빠진 경우도 있으니, 다시 고쳐서 선발하소서."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발세의 일은 대부분이 이 몸이니 내버려두는 것이 옳다. 고칠 필요가 없다. 인심에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은 누구이며, 인망에 기대를 받았는데 뽑아지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가?"하자, 회계하기를, "인심에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은 이유중이고, 인망에 기대를 받았던 사람은 이항복입니다." 하였다. 뒤에 좌의정 김명원이 또 고쳐 뽑기를 청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이에 이원익·유성룡·허잠·이시언 등 4인을 선발하였는데, 상이 "재신인 경우는 그 아들에게 벼슬을 주고 허잠 등은 모두 가자하라."고 명하였다(선수 34년 5월 1일, 무술)

③ 녹선과 재가 및 서용(敍用)

청백리의 자격규정은 본래 의정부가 단독으로 판단한 다음 추천의 절차를 거치면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선정되었으나, 宣祖 이후 의정부가 결정·추천하였다고 하더라도 諸臣會議에 회부한 다음 庭議에 동의를 얻어 대관의 개선요청이 있을 때까지 결정을 보류하는 신중성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K-1) 정부와 이조가 함께 의논하여 청백리를 초선하여 입계하니, "선발된 자에게 각각 1품씩 가자하라."고 전교하였다. 권 전라도관찰사 송흠(宋欽), 통례원 좌통례 윤사익(尹思翼), 태안군수 정연(鄭淵), 의정부 검상 이언적, 장악원 주부 정배신(鄭裵信)이다(중종 33.2.11.).

2) 이조가 아뢰기를 "청백리와 효행이 남다른 자를 서용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

이니 정부와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명종1. 3. 25).

3) 의정부 · 이조 · 예조가 청백리와 효자에 관한 일을 함께 논의한 후 입계하니 전교하기를 "박수량과 장언량은 각각 자급을 뛰어넘어 가자하라. 조사수는 가자하고, 홍담은 한 자급을 더하여 승품시키고, 변훈남은 주부에 준하여 가자하고, 박민헌은 직강에 준하여 가하라."고 하였다(명종1.4.6.).

정2품 이상의 추천자가 표당회의에 명단을 제출하면 회의 결정에 따라 녹선하였기 때문에 추천과 녹선의 단계가 구분되어 있었다. 숙종때의 염근리는 정2품 이상의 관직회의에서 선정하였으나, 청백리만은 정사 기록을 참조하여(H-3, 숙종 20년 11월 7일, 辛未, 박세채 주의 이원익일기 참고) 전시대의 청백리와 비교하는 절차를 거쳐 가능한 한 공명성과 객관성이 있도록 하였다.

청백리 선발이 쉽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기록이 있다. 정조 20년 4월 18일에 6조판서 이하로 하여금 3명 이내의 청백리를 추천하여 올리도록 하였는데, 55명이 추천되었다. 이 중에 4명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4명으로, 고 영의정 서지수(徐志修), 고 군자감정 박사백(朴師伯), 고 판서 조관빈(趙觀彬), 고 병사 이방좌(李邦佐)이고, 3명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한 명으로, 고 영의정 이의현(李宜顯)이고, 두 명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13명이고, 나머지 37명은 한사람의 추천을 받았다. 그런데 다수의 추천을 무시하고, 5월 9일에 5명의 청백리로 선발되었다.[37] 즉 고 판서 윤용(尹容)과 고 화윤 한덕필(韓德弼)은 2명의 추천, 고 절도사 허정(許晶), 고 부제학 이병태(李秉泰,), 고 관돈녕부사 정형복(鄭亨復)은 단 한명의 추천을 받았었다.

조선시대 청백리로 전하여지는 인물들의 수가 각각 다르다. 이것은 자료의 불확실함에도 있으나 청백리제도는 당시 조선왕조가 이상적인 통치를 하고자 했으나 제대로 되지 못하였음을 알려주는 것 같다. 자료별로 청백리 수에 있어 배 이상의 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典故大方』에 나온 수가 218명으로 가장 많다. 현재 전하여지는 자료들의 청백리수를 표-1)로 만들어보았다. 많게는 218명, 적게는 96명으로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실록에 나온 수 137명은 필자가 찾아본 것으로 여기에는 국초의 태조-성종대의 인물은 청백리에 대부분 포함되지 않았다. 이 표에서 보듯이 청백리의 수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중종 때의 박유인(朴有仁),

37) 正祖 20年 4月18日(庚巳)條와 같은 5月 9日(庚辰)條

명종 때의 장언량(張彦良)·양진(梁震)·김수문(金秀文)·송익수(宋益壽), 인조 때의 홍성민(洪聖民)·박순(朴淳)·이홍주(李弘胄)·오윤겸(吳允謙), 숙종 때의 노정(盧錠) 등 10명은 실록에 청백리로 녹선되었으나, 다른 어느 자료에도 청백리로 나오지 않는다.

자 료	전고대방	청선고	대동장고	문헌비고	성씨대관	청백리정신과 열전	역대청백리상	조선조청백리지	실록확인	선정대상
청백리 수	218	176	115	142	179	112	96	115	137	157

표-1) 청백리 수 비교표

역대왕대에 배출한 청백리 수를 표-2)로 도표화했다. 명종을 전후한 시기에 많은 청백리가 출현하였다. 성종 때부터 사림의 발언권이 강해지면서 이상적인 인물이 정치에 나서기를 바라는 시대적 상황이었다. 인조 이후 감소되고 영조 이후에 급감한다. 영·정조시대에 청백리에 대한 논의는 왕성하나 정작 청백리를 선정하는데는 대단히 인색해진다. 이것은 그만큼 신중을 기했음도 짐작할 수 있다. 청백리로 선정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여 사양하는 경우도 있었다. 명종 때 조사수는 다음과 같이 청백리 기록에서 삭제해 달라고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표-2) 조선시대 역대 청백리 수

왕 명	재위기간	청백리 수		청백리수/재위기간 (10년기준)	실록에 나타난 청백리 용어 출현 횟수
		典故大方	선정대상		
태조	7	5	3	7	
태종	18	8	8	4	
세종	32	15	14	5	
세조	14	7	5	5	
성종	25	20	15	8	
중종	39	35	21	9	39
명종	22	45	43	20	10
선조	41	27	15	7	12
인조	27	13	10	5	10
숙종	46	22	19	5	19
정종	54	6	4	2	
영조	52	9		1	20
정조	24	2		1	19
순조	34	4		15	4
합계		218	157		133

* 단명한 임금 정종·문종·단종·예종 때와 연산군·광해군 실정한 임금은 그렇다시고 효종이 10년 현종이 15년 재위했어도 한 명의 청백리가 선발되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

L. 대사간 조사수가 아뢰기를, "소신의 천성이 본래 간략하고 어리석어서 남에게 무엇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남들이 혹시 주는 자가 있으면 받아서 먹기도 하였으니 대단히 청렴하지 못했습니다. 성조에서 너그러이 용납하시어 탐리를 면하게 한 것만으로도 만족한데, 뜰폿 실정에 지나친 이름을 얻고 보니, 이는 신이 하늘을 속이는 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청명한 정치를 지향하는 신정(新政)에도 누가 될 것이 두려우며 몸 둘 바를 몰라 지도 모르게 이마에 땀이 맺히고 등에도 땀이 흐릅니다. 청백리의 이름을 삭제하시고, 아울러 불차(不次)의 명도 거두어 주소서."하니 답하기를, "청백리관에부터 드문 것이다. 경의 행실은 온 조정이 잘 알기 때문에 천거한 것이니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조사수가 다시 아뢰기를, "소신의 죄줄이 생각해 보아도 제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겠습니다. 이러한 몸이 간장(諫長)이 되었으니 더욱 뻔뻔스럽게 그대로 행공(行公)할 수 없는 입입니다. 신의 간청을 따르소서."하니 답하기를, "경의 청덕(淸德)은 어느 한 사람이 천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조정이 다 함께 천거한 것이니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명종 1년 4월 10일, 병신)

연산군의 폭정이 바뀐 뒤 유교의 이상정치를 지향하는 사림의 발언권이 강해진 중종 이후에 청백리제도에 대해 언급이 많아진다. 특히 명종 때에는 가장 많은 청백리가 녹선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국왕이나 신하들이 적극적이었다. 이는 유교의 이상정치를 지향하는 사림이 주도권을 잡아가는 시대였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 보았던 정조 때의 기록으로 보아 2품이하 관리들에게 선정하라 했는데 다수의 추천에 의한 것이 아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던 데서도 알 수 있다. 청백리가 살았던 시대와 녹선된 시기가 다른 경우도 있다. 세종 때의 정척(鄭陟)은 숙종 19년에, 명종 때의 김종순(金從順)은 영조 33년에 청백리로 녹선되었으니 사후 2백여 년이 지난 뒤이다. 정조 때의 청백리는 2명으로 기록되었지만 앞의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으로는, 영조 때의 인물 이병태 등 5명은 정조가 청백리로 선정하였다. 실록 CD롬에 청백리란 용어가 166회 출현하는데 재위연대로 볼 때 중종·정조 때는 년 1회, 명종·숙종·영조 때는 2년에 한번 정도 나온다. 영조·정조 때 청백리에 대한 논의는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후대로 갈수록 청백리에 대한 사회적인 욕구는 강하면서도 이를 뒷받침 할만한 여건, 예를 들어 국왕의 결단이나 당파성으로 인한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 같다.

3. 청백리에 대한 대우

가. 청백리 자신에게 가자(加資) 또는 포장(褒奬)

생존한 청백리에게 가자나 포장으로서 포상을 하였다. 『朝鮮王朝實錄』에

서 그 사례를 다음과 같이 찾아보았다.

M-1) 조강에서 장령 공서린이 아뢰기를 "건에 청백리를 천거한 뒤에 앞서 재상을 지낸자는 이미 가자로 상을 주었으나, 그 나머지 당하관은 다만 표리로 상주었으니, 권장하는 도리에 맞지 않는 듯 합니다. 이를테면 송흠·박상 등이 고을을 잘 다스린 것을 방금 첫째로 상아서 백성이 사모하는데, 박상은 파아흐로 죄를 입고 있으므로 감히 논할 수 없고, 재상은 이미 벼슬이 높으나, 송흠 같이 낮은 자들은 특별히 포장해야 할 터인데 다만 표리로 하였으니, 지극히 온당치 못합니다."(중종 11.1.9)

2) 남곤 등에게 전교하기를 "전라도 관찰사 조원기는 전에 청백리로 천거되었다. 지금은 청탁을 높일 때이며 그는 임기가 찼으니, 자급을 뛰어 올려 형조판서에 단망으로 써서 아뢰라."(중종13.3.11)

3) 전교하기를, "조원기는 전에 청백리로 천거된 사람이라 뛰어서 발탁한다면 뒷사람을 권장할 수 있기 때문에 형조의 장관으로 삼았다."(중종13.3.12)

4) 정원에 전교하기를 "옛날 가운데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자와 청백리의 자손, 절의가 있는 선비 가운데 포장하여 승지(陞職)할 사람들 및 양도목(兩都目)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왕자군의 여서를 마땅히 우선해야 하는데, 승천(陞薦)을 형식으로만 여겨 군명(君命)을 크게 심상하게 보면서 덮어두고 살피지 않는 풍습도 없지 않다. 이 사람들은 우선해서 상세하게 살펴서 주의(注擬)할 일로 다시 승천을 받들도록 하라." 하였다(명종10.11.21, 임오).

나. 자손에게 敍用

청백리는 대부분 생존하지 않았으므로 자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자손을 등용하거나, 포상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기사를 남기고 있다.

N-1) 조강에서 지평 유희선(柳義宣)이 아뢰기를 "근래 사풍이 좋지 못하여 탐오한 것이 풍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청백리의 자손을 등용하여 뭇사람들을 권장하기 바랍니다."(中宗 2年 4月 6日, 己卯)

2) 주강에서 최숙생(崔淑生)이 아뢰기를 "장오(贓汚)의 자손은 기록하여 징계하라 하였으나, 청백리의 자손은 포창하여 권장하는 법이 없으니, 이는 성대(聖代)의 결전(闕典)입니다."하니, 임금이 '옳다.'하고 정승에게 전교하기를, "권한(典翰) 최숙생이 아뢴, 청백리의 자손을 녹용하는 일은 매우 당연하다. 나의 생각으로는 충신·효자의 자손들도 녹용함이 옳을 것 같으니 의논하여 아뢰라."하자 회계하기를, "숙생의 아뢴 바가 매우 당연합니다. 청백리의 자손을 녹용함은 사람들에게 청백을 권장하는 것입니다."하였다(중종2年 11月 25日, 甲子).

3) 이조에 전교하기를 "청백리의 자손을 의정부 및 육경으로 하여금 천거하여 서용하도록 하라."하였다(中宗 9年 11月 16日, 甲戌).

4) 전교하기를, "청백리 및 충신 등의 자손은 이미 녹용하라."고 명하였다(중종 11.5.17).

5) 석강에서 임금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청백리의 자손을 모두 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일 성명을 기록한 사람을 이미 다 서용하였는가?"하매, 특진관 윤은보가 아뢰기를 "청백리의 자손은 이미 초록하였으나 서용하지 않은 자도 있습니다."하였다(중종 14.4.3).

6) 주강에서 임금이 이르기를 "청검한 덕을 위에서 숭상하면, 아랫 사람들이 저절로 앞을 다투어 본뜨게 될 것이다. 전일 청백리의 자손을 먼저 녹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조에 분부하였는데 죄다 서용하였는가?"하였다(중종14.10.9).

7) 만호 첨사의 체직자에게 녹직을 주고 청백리 자손에게 무록직을 주고 있다(중종 27.1.28).

8) 미장용된 자손에게 錄用 또는 서용으로 관직을 주어 공무를 담당하게 한다. 녹을 받지 않는 무록자일 경우 녹직에 제수하였다. 청렴한 관리의 후손이므로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먹을 양식을 하사하거나, 자손들에게 녹직을 제수하여 국록으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였다(중종37.7.27).

9) 정원에 전교하기를 "충신과 청백리의 자손을 서용하는 일은 조종조부터 있어온 것으로 이는 염치를 권장하기 위한 일인데, 지금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上言하는 자들이 많다. 이후부터 충신과 청백리의 자손으로서 쓸만한 사람은 보고 듣는 대로 치부하였다가 서용하라."하였다(명종7.6.28).

10) 전교하기를 "청렴한 덕이 있는 사람은 특별히 초제하여 발탁하고, 청백리 자손은 우선 발탁 등용하여 풍속을 격려하라."고 하였다(선조 원년 10.15).

11) "김종직을 애도하고 선한 자의 자손을 서용하라. 최없이 죽은 청백리 자손은 모두 녹용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성대한 일인데, 이 사람의 자손은 아직 거두어 서용하지 못하였으니 사체에 온편하지 못하다. 子·孫·曾孫 중에서 한 사람을 빨리 상당한 벼슬에 서용하여 녹을 먹을 수 있게 함으로써 조정이 어진 사람을 추숭(追崇)하는 뜻을 보이라."고 전교하였다(선조6.11.23, 己亥).

12) 간원이 아뢰기를 "선현 중에 사절한 사람이나, 청백리 자손 및 儒術과 효행이 사람의 이목에 두드러진 자를 널리 뽑아 이들을 우선 등용시켜 사로를 맑게 하소서."하였다(선조33.11.25).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백리에 관한 기록 중에서 대부분이 자손에게 어떻게 녹용할 것인가, 대우할 것인가를 적고 있다. 청백리가 대부분 생존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그들 후손이 대부분 가난하고 생활이 어려웠음도 원인이 된다.

다. 경제적인 혜택

청렴하고 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백리나 그 후손들은 어렵게 살았다. 그러므로 약간의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었다.

O-1) 정원에 전교하기를, "좌참찬 조원기에게 부의로써, 백면포 1동, 관면포 1동, 정포 1동을 별도로 제급(題給)하고, 승전의 문서에 청백리의 사연을 모두 기록하여 뒷사람을 격려하라."(중종28.8.8)

2) 영돈녕부사 이경석이 아뢰기를 "지금 새해 백두에 주상께서 홀아비·홀어미·고아·자식없는 노인을 걱정해서 음식물을 보내주라는 분부를 내리셨으니, 무릇 보고 듣는 사람이면 누가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청백리와 전투 중에 사망한 사람의 자손에게 일찍이 관직을 제수했던 때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그들은 추위와 굶주림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이는 실로 성조에 흠이 되는 일입니다. 해조로 하여금 음식물 혜택의 특전을 아울러 베푸소서."하였다(효종10.1.16).

3) 승지 강백년이 아뢰기를 "노인과 오갈 데 없는 외로운 사람들을 너그럽게 보살펴주는 일이야말로 왕정에서 급선무로 삼아야 할 일로서 선조 때에 이미 시행한 규례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송호인·설희인·전망인·청백리의 자손들에게까지도 세시에 식물을 내려주었고, 1백세나 90세가 된 노인들에게는 또한 의자(衣資)와 찬물을 지급하였습니다."하였다(현종 개수 즉위년 12.19).

4) 경조(京兆)가 송호·설희·청백리·전망인의 자손을 초록하여 아뢰니,"식물을 제급하라."고 명하고,"후손이 없는 자의 처 및 동생과 조카에게도 똑같이 시행하라."고 하였다(현개1.1.21).

5) 청백리로 뽑힌 사람의 처자로서 가난하여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휼청으로 하여금 을해년의 전례에 의하여 녹미(祿米)를 주어 곤궁함을 구휼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관윤 민진장(閔鎭長)의 소청에 따른 것이다(숙종24.3.10).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직에 있거나 사임하여 있으며 경제적으로 곤궁할 때에 약간의 식량이나 음식물, 면포 등을 지급하였다. 또 후손에게 약간의 식량이나 재물을 지급하였다.

을 수 있었다.

Ⅵ. 맺음말

조선시대의 청백리제도는 유교의 이상정치를 실현하는 데에 꼭 필요한 제도였다. 조선초에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유명한 학자와 관리가 등장하였다. 황희·맹사성 같은 청백리가 등장하고 성삼문·박팽년 같은 집현전 출신의 절의 있는 학자도 출현하였다. 세조·성종을 거치면서 『經國大典』이 완성되고 제도가 정비되면서 훈구대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기성 정치인들과 신진 사림들이 등장하여 갈등이 나타났다. 한편 관료들의 부정 부패도 나타났다. 여기에 백성들과 직접 대하는 관리가 청렴결백하기를 바라는 시대상황이었다.

필자는 역대왕조에서 관리선발에 청렴함을 얼마나 중시했는가를 살피고 조선시대에 청백리제도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역대 군주가 가장 많이 논의하게 되는 것이 백성을 위한 통치였다. 그러므로 국왕을 대신하여 직접 백성과 접하는 관리를 선발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청렴결백한 관리, 즉, 청백리에 관심이 지대했고 이를 선발하여 녹선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청백리제도가 법제적으로 확실하게 문서화되지 않아서 이를 찾아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朝鮮王朝實錄』이나 후세에 만들어진 불확실한 자료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었고, 다시 이들을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역대국왕이 청백리를 발굴하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신하들도 이를 위해 애쓴 흔적이 있다. 조선왕조 전체를 통틀어 한결같이 계속되지는 않았다. 성종 이후 선조 때까지 많은 청백리가 선정되었고, 인조 이후에는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실록에 나온 기록만 보면 임금과 신하가 논의하기는 전시대 보다 적지 않았는데도 인물이 선정되지 못하였던 것은 무엇인가? 이는 정치가 부패해서 청백리가 없었다기 보다는 완전무결한 청백리를 찾다보니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상적인 정치를 피하면서도 현실은 관리들이 실리를 추구하고 현실에서 이상적인 인물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명종 때 가장 많은 청백리가 출현하였는데 그 때가 가장 청렴결백한 인물이 많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림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언관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오히려 형식에 치우쳐 많은 인물을 선발하지 않았나 한다.

청백리제도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백성을 위한 선정을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말리를 벌하기보다는 청렴한 관리를 포상하여 부패한 관리가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역대 국왕이 선정의 첫째 조건으로 청백리를

선발하여 등용하고, 또 그 후손에게 포상을 하여 많은 청백리가 출현하기를 바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성종 이후 명종 때에 정점을 이루어 숙종 때까지는 왕성하였으나 영조 이후 청백리 선발이 주춤한 것은 앞서 선발된 사람들의 후손에 대한 녹선이 주가 되고, 현직관리들의 부담감 등으로 추가 적어진 듯하다.

「조선시대 청백리 제도와 기능」 약정토론

정만조 (국민대학교/조선시대 정치사)

중국 後漢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後漢書의 열전 "楊震"傳에는 다음과 같이 중국 史上에 저명한 청백리로서의 그 모습을 표사하고 있다.

> 성품이 공정하고 깨끗(廉)하였으며 사사로이 청탁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자손들은 매양 채소로만 식사하고 (아비가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걸어서 다녀야 했다. 친구나 어른들이 혹은 재산을 일으키도록 권하기도 했지만, 楊震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후세 사람들에게서 청백리의 자손이라 불리우게끔 하는 것을 남겨주는 것만으로도 이 또한 (내 자손에게) 후하게 남기는 것이 아니리오 라고 말하곤 했다.

권력자의 독선적 횡포와 이를 빌미한 그 친인척들의 부정부패로 국가기강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사회의 혼탁이 극에 달한 오늘날 위와 같은 楊震의 말은 세상을 울리는 격언이라 하겠다. 성남문화원에서 "조선시대 청백리정신의 현대적 조명"이라는 주제로 청백리문제를 새삼 거론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世態에 一條淸香을 피뜨려 匡救하려는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우리가 검토하고자하는 문수진 교수의 논문은 바로 이런 청백리문제에 대해 고려에서부터 비롯하여 주로 조선시대의 그것을 제도사적으로 고찰하고 그것이 당시 사회에 어떻게 기능하였는가를 살핀 글이다.

여기서 문교수는 우선 신라·고려의 청백리에 관한 기록을 살펴, 良吏가 바로 청백리이며 이때부터 이미 官吏의 청렴도가 강조되었음을 밝혔고, 조선시대의 그것에 대해서는 청백리와 廉謹吏의 차이, 청백리 선발의 기준 및 절차, 역대의 청백리 錄選者의 숫자 파악과 그 추이에 대한 해석 및 청백리에 대한 대우 등 그 제도 자체를 여러 면으로 고찰함과 함께, 이를 통해 청백리제가 조선시대 어떤 기능을 가졌는가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청백리제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백성을 위한 선정을 베푸는 수단으로서 운영되었는데, 성종 이후 사림의 진출은 많은 청백리의 선발을 보게 했다고 한다. 그래서 명종때 사림이 정권을 잡으면서 비록 형식에 치우치기는 했지만 가장 많은 인물이 뽑혔으나, 선조를 거쳐 인조 이후로 가면서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든다고 하였다. 청백리에 관한 논의가 앞 시대보다 더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정된 인물이 줄어든 이유는 정치가 부패해서 청백리가 없었다기 보다는 완전무결한 청백리를 찾기가 어려웠고 또 청백리 선정

에 따르는 현직관리들의 부담감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시대의 청백리제도는 유교적 이상정치를 실현하는데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고 결론지었다.

문교수의 이 논문은 청백리에 관한 先行의 연구를 토대로 청백리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놓은 것으로 조선시대의 정치사, 특히 관료제 운영과 행정관리 체계 및 지방관에 관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논문의 주장과 사실해석에 대해 토론자로서보다는 같이 공부하는 同學者로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는 청백리 파악을 위한 자료의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 참고한 典故大方 淸選考 大東掌故 文獻備考 姓氏大觀 등에 실린 청백리 관련 기록자료는 이미 선행의 연구에서 상세히 검토된 바 있다.(李瑞行, 청백리정신과 공직윤리 제4장 1절의 1항) 이들 자료는 대개 19세기나 20세기 이후에 私的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시기가 늦고 거기에다 청백리가 후손에게 영예가 되는 만큼 冒錄한다던가 하는 허위기재의 여지가 많아져 신빙성이 떨어진다.

실록에 『淸白吏錄案』이라는 용어가 나오므로 청백리 명단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숙종대 朴世采가 "청백리는 바로 국가에서 激揚勵世하는 방도인데 史官에서 기록해 놓은 바가 극히 부실하여 단지 자손 중에 蔭職을 받은 자만 기록할 뿐 본래 일정한 명단이 없으므로 마땅히 기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것이 있는가 하면, 거짓으로 이름 올린 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청컨대 史官으로 하여금 실록을 살펴서 근거로 삼게끔 하소서."(문헌비고 권199, 선거고 16, 숙종 20년)라고 한 것을 보면 부실함을 면치 못했고, 그러므로 위의 기록대로 실록만이 유일하게 신빙성있는 자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백리 파악의 일차자료는 실록이며 그런 의미에서 선행 연구에서 간과한 실록에서 청백리를 128인 추출한 이 논문의 성과는 그만큼 값지다고 하겠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논문에는 그 명단이 제시되지 않았고, 조선시대 역대 청백리 수를 제시한 <표 2>에도 없어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다. 물론 연산군 때까지의 실록에 청백리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는 등 문제가 있기는 하나 위의 박세채 말대로 실록이 유일한 근거가 되는 만큼 128인의 명단을 典故大方과 같은 다른 기록과 비교 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석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둘째는 청백리제도가 언제 확립되었느냐 하는 시기상의 문제이다. 실록에 나오는 청백리 기록에 의거해 조선의 문물제도가 갖추어진 성종 때라고 추정하는 이 논문의 주장에 토론자 역시 의견을 같이 하나, 그런 추정을 뒷받

침하는 근거가 예컨대 15세기에 찬술된 墓道文字나 文集과 같은 여러 자료를 통해 검증되어야 보다 설득력을 갖지 않을까 한다.

세 번째의 의문점은 이 논문에서 제시한 청백리의 선정기준이다. 청렴결백, 절약·검소, 善政, 遵法의 네 가지 요소가 어디에 근거하였는지 분명치 않으며, 대부분의 청백리에서 보이는 孝의 덕목이 왜 빠졌는지, 그리고 조선시대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風聞, 즉 각각의 인물에 대한 世評은 선정기준에 들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실록의 기사를 좀 더 검토한다면 그 해답은 쉽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네 번째는 이 논문의 주장대로 청백리의 수가 중종 명종 연간에 많다가 선조대에 들어와 줄어들고 다시 인조 이후 급격히 감소한 이유에 대한 설명에 얼른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명종을 고비로 청백리 수가 감소하는 현상은 박세채가

> "명종조에 청백리로 뽑힌 文臣 武臣의 수가 심히 많았는데 선조 이후 점점 줄어 들고 임진왜란 후 더욱 적어졌으며 인조 때 뽑힌 자는 한 때의 이름난 재상에 불과했고 효종 이후는 한 명도 없다."(공헌비고 권159, 선거고 16, 숙종 20년)

고 한 데서 실제로 확인된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이 논문에서는 "명종 때 가장 많은 청백리가 錄選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국왕이나 신하들이 적극적이었다. 이는 유교의 이상정치를 지향하는 사림의 주도권을 잡아가는 시대였기 때문일 것이다……후대로 갈수록 청백리에 대한 사회적인 욕구는 강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여건, 예를 들어 국왕의 결단이나 당파성으로 인한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 같다"든가 "이는 정치가 부패해서 청백리가 없었다기 보다는 완전무결한 청백리를 찾다 보니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한다."고 이유를 대었다.

그러나 중종 명종 연간은 사림이 대두하던 시기이기는 하나 집권세력은 功臣과 戚臣系였다는 사실을 이 주장은 간과하고 있다. 사림 때문에 청백리가 늘었다면 막상 그런 사림이 집권을 실현하고 그 정치가 본격화하던 인조 이후 청백리가 오히려 급감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당쟁이나 완전무결한 청백리를 구하기 어려웠다든가 현직관리들의 부담감 때문이라는 등의 이유는 역사적 이해와는 거리가 있다. 이 문제는 士林의 政局運營論과 관련지어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사실 중종 명종 때 청백리 수는 크게 늘었으나(명종 때의 청백리는 실은 거의가 濫選史였다.) 사림파는 무관했고, 趙光祖 一派가 활동하던 중종 10년에서 14년 사이에 사림의 요구로 청백리가 선정된 경우는 없었으며 조광조

의 개혁정치 속에 청백리와 관련된 요소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조광조 일파는

"선비를 고르는 것은 벼슬에 나가는 시초에 불아야지 이미 관리가 된 후에는 늦습니다. 일반관리가 비록 많기는 하지만 가히 쓸만한 사람이 없는 것은 처음 벼슬 줄 때 잘 고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볼을 때 잘 살펴서 어진가 여부를 변별한다면 선비의 풍습이 저절로 바른데 이를 것입니다. (문헌비고 권 198, 選擧考 15, 중종 13년)"

라고 함에서 보듯 관리가 된 다음에 고르는 것보다는 처음에 관리를 뽑을 때 신중히 잘 골라야 한다고 하고 있다. 청백리제란 이미 관료가 된 자에게 청렴하기를 요구하며 이를 장려하는 뜻으로 실시하는 만큼 위의 조광조 견해에 비추어 본다면 이미 늦다는 것이며, 따라서 관료가 된 다음에 청렴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관리로 선발할 당시에 賢否와 함께 청렴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조광조 등은 과거제를 비판하고 학문능력과 함께 행실에 대한 평가를 위주로 하는 천거제로서 賢良科의 시행을 주장했으며 그 전제로서 '士'의 집단인 사림을 제대로 薰陶하고 격려하여 그 습속을 바로잡 해야 한다고 역설했던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사림의 훈도 내용으로 철저한 내면적 수양과 의리의 실천을 통해 덕성의 함양에 힘쓰는 爲己之學 곧 修己가 무엇보다 강조되었고, 그런 면에서 勳戚세력의 학풍을 利祿을 좇는 爲人之學으로 규정, 스스로 그들과 구별했던 것이다. 이렇게 修己를 철저히 한 관료를 선발한다면 청백리제 자체는 그렇게 시급한 요소가 아니었다.

중종 명종 연간 사림은 당시의 부패한 공직사회의 비리 척결을 위해 修己에 입각한 用人을 주장하였고, 그런 만큼 이에 대해 집권 훈척세력은 청백리제의 실시로 대응하려 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어떨까. 또 그러기 때문에 사림이 집권하고 사림정치가 전개되는 선조 이후 청백리로 선정되는 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함이 어떨까. 사림정치 하에서 사림의 修己가 강조되는 만큼 관료사회에서 청백리제는 점차 그 입지가 좁아졌다고 본다. 후일 영조 이후 사림정치가 무너지고 탕평정치가 추진되며 이어 세도정치로 변하는 과정에서 청백리제가 다시 거론되는 사실도 이런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청백리가 조선사회에 기능하였던 면도 이러한 이해와 관련하여 새롭게 파악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하나의 試論이기는 하나 이에 대한 연구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끝으로 위의 네 번째 점과 관련하여 조선시대 관인 및 사림들의 淸白吏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촉구하는 것으로 문교수의 논문에 대한 토론을 마친다.

「조선시대 청백리 제도와 기능」 약정토론

이문주 (성균관대학교/유학 · 동양학)

1

묻수진 교수님(이하 필자)의 「조선시대 청백리 제도와 기능」을 잘 읽었습니다. 필자는 논문에서 우리나라 청백리 제도의 연원으로서 신라시대 화랑제도로부터 고려시대의 관리 선발제도를 『삼국사기』와 『고려사』를 통하여 밝혔습니다. 또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청백리 제도의 시행과 그 변천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머릿말에서 청백리라는 말이 언제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어지게 되었으며, 제도화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밟았는가를 알아보고, 기존의 연구 성과를 참조하고, 역사적 사실을 검토하여 청백리 제도의 기능을 밝히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필자는 유교가 건국이념이자 통치철학이었던 조선에서는 건국초부터 유교적 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리 임용에 청렴성을 중시하였다는 것을 조선 태조의 즉위교서를 인용하여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청백리 제도에 대한 고찰에서는 염근리와 청백리를 비교하여 청백리는 연산군 때부터, 염근리는 선조 때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염근리는 현직에 있는 관리를, 청백리는 사후에 녹선된 관리를 의미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청백리의 선발기준은 청렴결백, 절약 검소, 善政, 遵法 등을 들고 있으며, 선정 절차는 吏曹에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의정부에서 결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 자료를 근거로 하여 조선시대에 선정된 청백리의 수를 도표로 만들어 분석하고 있습니다. 청백리에 대한 대우는 청백리 자신에게 벼슬을 올려주는 가자(加資)와 포장(褒奬)과 자손을 등용하거나 포상하는 것, 그리고 경제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 등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백리 제도의 기능으로는 올바른 유교정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탐관오리를 벌주는 것보다는 청백리를 포상함으로써 바른 정치를 이루려고 한 것이 청백리 제도의 기능이자 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2

평자는 필자의 논문을 위와 같이 이해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또 몇 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논평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논문의 목적이 단순하게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것에 그치고, 이러한 청백리 제도가 구체적으로 당시에는 어떠한 역할을 하였으며, 그것이 가지는 현대적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것은 역사적 실체를 아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현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적용이 가능한가를 제시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하며, 본 학술회의도 그러한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논문의 서술방법에 있어서 단편적인 사료를 하나 제시하고는 결론을 내리거나, 구체적인 증거 제시가 없이 추측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p. 2에 『삼국사기』의 검군(儉君)에 대한 기록만으로 신라는 '화랑제도로서 인재를 양성하고 청렴한 인물을 관리로 쓰려는 노력이 엿보인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든가,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독서출신과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하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과 '고려를 건국한 왕건은 태봉의 제도를 대부분 답습하면서'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또 p. 5에 조선초의 관리 등용에 대한 서술을 하면서 조선 후기의 정약용의 글을 인용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논문의 중반부부터는 필자의 글보다는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논문인지 자료집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는 원문을 번역함에 있어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 없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p. 2에 "엽벽(列辟)', '비도(丕圖)', p. 3에 '잠영(簪纓)', '계욕(戒辱)', '옥촉(玉燭), p. 6에 '통용질(通用秩)', '탁용질(擢用秩)', '준직(準職)', p. 8에 '승전(承傳)', p. 10에 '불차(不次)', '행공(行公)', p. 12에 '가자(加資)', '승직(陞職)', '양도목(兩都目)', '주의(注擬)', '표리', '회계', p. 13에 '사점', '제급(題給)', p. 14에 '의자(衣資)', '계본', '금쟁', p. 15에 '소대', '금오의장(金吾議狀)', '판하', '장폐(杖斃)' '능리', '혹리', '세리'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p.2에서 화랑제도로써 인재를 양성하고 청렴한 인물을 관리로 쓰려는 노력이 엿보인다고 하였는데, 화랑 검군의 개인적인 도덕성이 국가의 관리선발 제도와 일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신라시대에 구체적으로 화랑제도를 통한 청렴한 관리 선발을 위한 노력이 진행된 사료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 p. 2에 고려시대에 과거제가 시행되면서도 관리임명에는 청렴도가 강조

되었다고 하였는데, 과거제와 청렴한 관리 임명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묻습니다.

3) p. 5에 성종 이후 국가체제가 갖추어지면서 청백리로 부르게 된 것 같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증거할 구체적인 사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p. 9-10에서 조선시대 청백리로 전하여지는 인물의 수가 자료에 따라 다름을 증거로 조선사회가 이상적인 통치를 하고자 하였으나 제대로 되지 못하였음을 알려주는 것 같다고 추론을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 p. 11에 후대로 갈수록 청백리에 대한 사회적인 욕구는 감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여건, 예를 들어 국왕의 결단이나 당파성으로 인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 같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료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마지막으로 청백리를 우대하는 것은 관리의 도덕성을 중시하는 것이라면, 이외에도 관리라면 주어진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지요. 사실상 오늘날의 관리 선발의 기준은 도덕성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서 조선시대의 청백리 제도가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그 적용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하여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제 발표 논문 2

炭川 李之直의 淸白吏 精神

주제발표 : **한춘섭** (성남기능대학/국문학, 향토사학)
악정토론 : **허창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정치학)
악정토론 : **정은경** (대전고교/한국사)

炭川 李之直의 淸白吏 精神

한춘섭 (성남기능대학/국문학, 향토사학)

<차 례>

1. 머리말
2. 청백리로 추앙되는 인물 조사
가. 역사에 드러난 청백리 정신
나. 성남시 황맥(黃脈)의 청백리 및 사람
다. 성남시 청백리 인물 약전(略傳)
라. 보문각 의제학 이지직(李之直) 평설(評說)
1) 탄천(炭川)의 생애 살피기
2) 시 몇 편 속에서 탄천의 청백리 정신 살피기
3) 한구들 시편(詩篇)에 나타난 탄천의 청백리 정신 살피기
마. 충장공 남이흥(南以興) 장군 평설(評說)
1) 성문(城門)의 생애 살피기
2) 정묘호란에서 충장공의 순국(殉國) 영웅담
3. 맺음말

1. 머리말

우리가 살아 온 20세기는 '창조와 광기' 또는, '문명과 야만' 등의 수식어가 어울린다. 두 차례나 벌어진 큰 전쟁 이후에 냉전과 그 와해, 자본주의 경제와 더불어 과학문명의 발달로 요약될 수 있는 지난 20세기는 우리에게 꿈과 희망 못지 않게 고통과 패배감을 안겨준 비논리의 역사로서 한 마디로 말하여 '격동의 한 세기'였다.

더구나 한국은 서구가 경험했던 2-3백년간의 역사를 1세기 안에 모두 겪은 격동의 역사라는 점에서 인접국들에 의한 식민지 지배와 해방, 한 핏줄끼리의 불법침탈로 인한 분단 내지 이산가족 아픔 그리고, 정치권 독재에 의한 비정상적 근대화 과정이야말로 한 마디로 숨가빴던 '질곡(桎梏)의 부침(浮沈) 1세기'였다. 그러므로 인간의 세상에서 인간이 가장 존중받아야 된다는 논리

는 평화 또는, 통일의 안식처가 마련되지 못한 우리 시대 앞에서 한낮, 허상(虛想) 뿐인 것 같다.

이런 세상 앞에 지금 또, 거대한 정보화 혁명의 파도는 끝도 없이 몰려오고 있다. '무한 경쟁의 지식정보 시대'는 우리에게 기술패권(테크노 헤게모니)을 급박히 요구해 오고 있다. 분명,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해야 하고, 우리도 지난 역사를 교훈으로 하여 새 천년은 더욱 행복해야만 하겠다. 그러나 각 가지 사건사고가 끊치면서 '착한 이'들의 발길음에 흙탕물 묻히기 심상인 철저히 외면 당해질 수 있는 이런 세상속에서 우리는 지난 역사를 돌아보며,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혼돈의 과거에서 소홀했던 일들을 거울로 하여 '사람끼리 살 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우리의 반듯한 사상과 순수한 인간성 되찾기로 새 21세기 갈 길을 제대로 찾아보려는 것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오늘 학술회의 "청백리 정신" 음미도 참된 공직자상 되찾는 일로 가치를 두고자 한다.

역사는 언제나 순환, 반복을 거듭한다. 100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도 좋을 것은 불과 몇 가지일 뿐, 대부분은 힘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부정부패한 일들이 언제나 연속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주변 사건들은 보통 사람들 일상사에 몰과한 일들이겠으나, 항상 권력층 또는 공무집행자 관리들에 의해 물질탐욕, 비인간성 사건들은 한 마디로 '비양심적인 악의 형태'로써 불의에 나락을 걷는 비인륜적 타락상이 아닐 수 없다. 이 논고(論考)의 주제 '청백리(淸白吏)' 정신이 현대에 와서 흙구덩이에 묻혀 버린 채 오직, <돈이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있는데>식의 물질탐욕적 관국에서 과연, 양심대로의 인간 삶이 강조되어도 좋은 건지? 해답은 이 시대 우리 전체의 몫으로 남을 뿐이다.

하여, 청백리라 지칭되며 추앙받는 우리 역사속의 위인(偉人)들 그 가운데 우리 성남시 안에서의 청백리 인물을 조사, 검증해 보면서 이름난 집안 선대(先代)속의 청렴과 강직한 삶이 그 어떤 귀감(龜鑑)이었는지를 규명하려고 한다. 결국, 청백리 발자취로 일생을 바친 위인들의 그 일생동안 정신적 가르침에는 반드시 스승이거나 부모, 형제 앞 세대의 커다란 손짓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가 있다. 한편, 청백리란 그 당대 엘리뜨 선비들로서 가히 추앙받는 권력자이면서도 옛 성현이 갈파했던 도리(道理)를 몸소 말과 글에 앞서 행동화한 흔치 않은 인물들이었다. 다만, 현대 사회에서도 청백리 추천제와 유사한 '모범 공직자' 표창제가 있긴 하나 옛 고려, 조선시대와 사뭇 천거절차와 운영 전반에 다른 면이 없지 않다.

2. 청백리로 추앙되는 인물 조사

가. 역사에 드러난 청백리 정신

한국 전통윤리의 특징은 각 시대별로 다를 수가 있으나 그 원류는 상고시대의 원시신앙(설화)을 기조하여 중국, 인도에서 전래된 유교, 불교 사상과 융합되어졌다. 그러나 삼국시대 이후 왕권 고려에서 조선시대 1천년 사이에 경천애민(敬天愛民) 즉, 인본사상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존엄성으로 나타났으며, 점차 성리학에 근거하여 개인, 가족, 사회, 국가의 윤리가 둘이 아니고 하나의 공동체 생활윤리라는데 까지 연결되면서 '충효사상'으로 정착되어 왔다.

고려시대의 효 실천은 법제화되어 상벌로 강제성을 띠면서 권장되었고, 조선시대는 『가례』 지침에 의거하여 『삼강행실도』, 『오륜도』, 『소학』 안에서 더 구체화되었다. 삼강오륜을 절대절명 인륜으로써 국가통치 원리로 삼아 신봉, 실천케 했다.

조선 중기(16세기)에 이르면 충과 효는 애국애민 사상으로 확대되어 이른바 '사대부 정신' 즉, '선비정신'으로 승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멸사봉공(滅私奉公), 살신성인(殺身成仁)사상에 의해 학처럼 살았던 청백리와 은둔처사(隱遁處士), 송백처럼 지절(志節)을 돋보인 열사(烈士), 의사(義士)들이 속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처럼 멸사봉공, 충의정신에 고귀함을 일생동안 몸소 실행에 옮겼던 인물들이 곧, '청백리'라고 사서(史書)에선 규정짓고 있는 것이다.

그 후로 선인(先人)들을 후세에 길이 빛내기 위하여 그들의 행적을 한 책으로 엮은 것이 고려시대 『염리전(廉吏傳)』과 조선시대 「청백리록」을 들 수 있다.

> 한국의 역사상에 나타난 한국의 전통윤리가 무속의 윤리, 불교의 윤리, 유교윤리 특히, 성리학의 윤리로 이어질지만 전통문화나 전통윤리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유교이다.
>
> 조선조의 전통윤리가 기초가 되고 있는 유교의 성리학 이념은 위인문학(爲人文學=위人), 위기지학(爲己之學=爲己), 등치론, 인성론 등을 사상적 기조로 하고 통치, 위민정치나 왕도정치의 구현을 위해 통치계층의 행동규범으로서 윤리, 도덕의 실천을 강조하였다.[38]

이와같이 조상들이 보여 준 충효, 인의, 신의 민족정신 속에 함양되어 온 청백리야말로 다름아닌 이 나라 역사 맥락의 초석인 된 셈이다.

38) 이서행, 조선조 청백리의 공직윤리에 관한 연구[博論, 단국대학원,1987], P.24

그러므로 청백리 정신은 우리나라의 가슴하늘처럼 맑은 민족의 전통으로 선 앞에서 생명을 희생시킬 줄 아는 슬기와 절신과 의리를 갖고 살아온 것이다. 멸사봉공의 정신은 신라시대 화랑정신에서 시작하여 고려시대 3별초의 대몽 항전정신으로 계승되고, 조선왕조 시대에는 민중들이 국가와 민족에게 닥친 속, 국란을 극복하고자 심신을 다져 스스로 일어나 구국 항쟁대열에 참가했던 의병정신으로 발전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한말이나 일제 침략하에서는 주권을 수호하고 조국의 광복을 위한 독립운동으로 계승 발전되었던 것이다.[39]

그러나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의 역사 기록에서 청백리 그 실체를 찾는 데는 한계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몇몇 충신열사 행적을 작품화한 야사(野史)속 사례조차 불과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의 각 시대마다 국란사태와 부정사건은 무수하게 반복되어 왔음을 역사와의 대화에서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란과 부정한 사실조차 권력을 독세한 이들에 의해 화지우지되었음을 짐작케 하고 있다. 하물며, 높은 권좌에서 일신영달에 욕심을 덜고 세살을 등진 은둔처사라 말 할 수 있는 '청백리'에 관한 올바른 평가를 하기에도 자료의 부족함이 없지 않다.

앞 머리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난 20세기는 자본주의 경쟁과 냉전체제에 의한 '격동의 한 세기'였으므로 하여 인류 공생공영의 생존권을 위한 고민보다는 외형적인 힘을 키우는데 각 나라 지도층들이 주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에 약소국 형편인 우리의 사정은 더 없이 어려움에 봉착된 감이 있고, 우리의 미래를 밝게 열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좀게는 성남시가 되겠으나 시야를 넓혀 한국 전체를 향한 과제가 '숨겨진 소중한 우리 역사 찾기'로서 <청백리 정신>을 자신감 있게 되찾아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청백리 정신>은 오늘날과 견주어 생각하면 '모범(模範) 공무원상(公務員像)'이다. <청백리>의 '청'은 맑은 물처럼 티없이 깨끗함(정수=淨水)이요, '백'은 때묻지 않은 광명이며, (소색=素色) '리'는 다스림의 위치에 있는 사람(치인=治人)이라고 하였다. 삶이 힘겹긴 하지만 배운 대로 즉, 아는 대로 행동하는 선비정신에서 이 정신이 배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욕심을 버리고 검직하게 살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권력조차 국가기강 확립을 위해 지조와 기개를 뀌이지 않은 채 살다간 많지 않은 우리의 옛 청백리 정신이 오늘날 되살아나게 해야 할 것이다.

민족사의 맥락을 이어주는 정신의 하나가 바로 청백리 정신이다. 이는 언제나 민

39) 이현종, 청백리 정신과 열전(초판, 서울, 미세마문화사, 1977). P.5

중을 기르는 양민정신에 있었고, 민중을 기르기 위하여 다루는 것이었다. 이는 미래지향적이며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한 내부정비의 초석이 되는 것이요, 근간이 되며, 외세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의 축적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백리 정신은 언제나 '민유방본(民惟邦本) 본고방녕(本固邦寧)' 즉,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그 근본이 견고해야 나라가 평안하리라> 정신으로 민족사의 발전과정에서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우리 민족의 생의 목표로 면면하게 이어져 온 것이다.

우리 조상이 청백리 정신을 강조하였던 이유는 청백리 정신이 함양될 때 사회정의가 구현되었고, 시대정신과 민족의식이 확립되어 밝은 사회가 이룩되면서 국가기강이 바로 서고, 국위가 선양되면서 창조정신과 개척정신은 물론, 국가발전을 위한 진취적인 기상이 잘 나타났기 때문이며, 그렇지 못할 때 내부혼란이 생겼고, 외침과정에서도 저항력이 약화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40]

나. 성남시 향백(鄕伯)의 청백리 몇 사람

우리는 곧잘, '역사 의식'이란 말을 애용한다. 이는 다름아닌, 시대정신과도 통용될 말이기도 하다. 성남문화원 주최 "조선시대 청백리 정신의 현대적 조명"이라는 대주제 학술회의 개최 역시, 저 지난 역사적 사실들을 단순한 과거 이야기처럼 묻어 두지 말고, 현재를 진단하면서 희망 찬 우리의 앞길을 열어 주는 역할을 위해서다. 왜냐하면, '역사 연구란 시간을 뛰어 넘는 대화의 장(場)'이기 때문이다. 역사는 항상 부족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 또, 사람답게 사는 법을 어느 일면, 체험시켜 주는 열차 여행 패도와 같기 때문이다.

'잃어버렸거나 묻혀진 역사의 착하고 거룩했던 이야기들을 포기하는 민족은 언제고 망하게 마련'이라고 말한 어느 철학교수의 글귀를 회상하면서, 우리는 그 숱한 역사 이야기 속 교훈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우리의 근현대사(近現代史) 몇몇 역사 특히, 정당치 못했던 군부세력의 부정했던 말로가 역사후퇴 내지 자기 파멸만을 자초했다는 사례를 가슴깊이 되새겨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역사는 거짓도 가감도 없다는 교훈적 진리 앞에서 다시는 저주받을 어리석은 민족이 되어선 안될 일이다.

조선초 내지 중기의 청백리 선별내용을 살피면 그 주요 성품은 청렴과 결백함이 최우선이었고, 그 외에 절약, 선정(善政), 준법정신을 중심으로 한 수기(修己)덕목인 후덕, 경효, 인의, 근검과 치인(治人)덕목인 선정, 총성, 준법성 외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선별 절차는 발의-공시-추천-녹선-재가-서용 6단계를 거쳤다.

40) 위의 책(이현종), 序文

중앙부 각(各) 사(司)와 지방 각 감영에 공시하여 의정부 또는 이조에서 주로 선발권을 주도하여 최종 결정해 오다가 조선 후기에는 추천자 범위를 넓혔고, 선별의 방법 또한 객관적이면서 공정성을 강조하였고, 그들에 대한 대우문제에 있어 경제상 혜택은 물론, 인사상 특별난 혜택까지 부여하였다.

조선시대 5세기 중에 청백리에 녹선된 이는 『전고대방』의 경우, 220여 명이다. 이들은 국가를 위하여 예로부터 공정한 처신과 청렴결백한 삶으로 일관했던 역사속의 인물이었다. 나라에 국란이 닥쳤을 경우, 생명을 다 바친 위국충신 못지 않게 우리의 정신적 지주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닌 인물 중에 인물이 아닐 수 없다.

현 서울특별시의 강동, 강남, 송파구 외 광주시를 필두로 우리 성남시와 하남시 전역(全域)을 통칭 '한성 백제권역'인 <경기도 광주군 역사 · 문화 지역>이라 할 때에 지금의 남한강변에 위치한 남양주시 능내 땅도 광주군 권역이었다. 그곳이 곧, 다산(茶山) 정약용의 본향이 된다. 18세기말에서 19세기초의 인물이었던 다산도 그의 저서 「목민심서」(1818?/당시 57세)속 "율기6조"(律己六條) 두 번째 항 '청심'(淸心) 즉, 공직자의 청렴결백한 마음가짐을 깨우친 글 속에서

> 청렴결백한 마음이란 목민관의 본무(本務)이며 모든 선의 원천이요, 모든 덕의 근본이다. 청렴결백하지 않고서 능히 목민을 할 수 있었던 자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 청렴결백이란 천하의 큰 장사이다. 그러므로 크게 탐내는 자는 반드시 청렴결백한 것이니, 사람이 청렴결백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옅기 때문이다.(중략)
>
> 청렴결백한 자는 존체로운 일이 적으니 사람들은 이를 범통으로 여긴다. 모든 복은 자기에게로 돌리고 남을 책하는 일이 적으면 된다. 청탁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청렴결백하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청렴한 소리가 사방에 이르고, 아름다운 이름이 날로 빛나면 또한 인생 일세의 지극한 영광인 것이다.[41]

라고 하여 공직자들의 준실한 직무 규칙을 제시하였다. 벼슬아치들이란 반드시 청렴함과 공정성이 최선의 도리라고 강조한 사실이다.

다산(茶山)은 "율기6조" 다섯째 항 '절용'(節用) 즉, 백성을 사랑하는 길 조문에서도 공직자의 청렴성을 반복하여 지적해 두었다.

> 목민(牧民)을 잘하는 자는 반드시 인자하다. 인자하게 하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결백해야 하며, 청렴결백하게 하려는 자는 반드시 검약하니 절용이란 곧, 목민관이 가장

41) 정약용, 목민심서(박, 노태준), 을유, 서울, 홍신문화사, 1977, PP.56~9

힘써야 하는 것이다.(善爲政者必慈 欲慈者必廉 欲廉者必約 節用者 政之首務也)[42]

『상산록象山錄』에서는 청렴결백함의 세 가지 유형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염결에는 세 가지 등급이 있으니, "나라에서 주는 녹봉 이외에는 아무 것도 받아 먹지 않고, 그 먹다 남은 것은 하나도 가지고 돌아가지 않으며, 복임되어 돌아가는 날에는 한 필 말에 몸을 실었을 뿐 옷소매에 맑은 바람만이 움직이는 것"이 이른바 옛날의 염리로서 최상등에 속한다.

이와같이 옛 사람의 글귀에 나타난 생각이 현대인에게는 한낮, 역사의 생각뿐이요, 현실은 그럴 수가 없다하여 세상 진리와 이치는 경학(經學)에서 군소리로나 밀어제치는게 상례이다. 설사, 역사속의 진리가 옳다고 하더라도 현대사회는 실리추구일 수 밖에 없다고도 하여 명분과 실리가 제 각각인 세 원칙과 방법, 의리와 비리, 이상론과 현실론은 대부분 현실에 서 실천화되지 못하고 있음이 오늘의 현실이다.

일부 비관세력 견해에는 우리나라 윤리에 있어 너무 형식적이고 보수적인 데가 짙다고 하면서, 19세기 말 개항 이후, 서구의 근대 문물을 수용하여 고도 산업화를 달성한 현대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삶의 철학이라고 까지 몰아부치고 있다. 심지어 이런 외견에 발목잡힌 채 이 시대는 대부분의 국민들과 권력·지도층에서도 천민적(賤民的) 자본주의가 팽배하므로써 인간답게 사는 옛 선현속의 몇몇 모범적 청백리의 실천윤리와 철학, 종교와 역사 문제를 도외시하는 경향마저 점차 높아가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실제가 그렇다. 지난날의 충효사상과 도덕적인 윤리실천은 점차 우리 주변에서 멀어지고 있고, 각 가정에서 어른을 공경하는 친족윤리마저 파괴된 채 개인주의 비인간화로 인하여 국민 공동체 결속은 극도로 피폐된 상황이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왔다. 하물며, 전통윤리였던 인간관계조차 결속력을 상실하고 물질적 향락추구의 도덕적 타락상이 오늘의 현실문제로 심각할 지경이 되고 있음은 이 시대를 개탄할 만하다. 그러므로 정보화 사회로 이동된 오늘의 현실에서 윤리·도덕적인 지식전달이란 한낮, 권 근대적 구호에 그치기 쉽다. 오히려 풍요로운 소비향락에 몰두하기 일쑤며, 도시화와 핵가족화가 진행되는 현대사회에서 따뜻한 우정이 흔들리고, 결속력있는 가족관계의 원류적 사랑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가 곧, <인간성 상실>의 소외, 불안감으로 인하여 '사람끼리 살 맛과 멋을 모르는 타락된 세상의 인간 삶'이 되고 있다.

42) 위의 책(역, 노태준), P.82

본론 주제가 될 성남시 지연(地緣)과 인맥이 상통하는 청백리 및 사람을 찾는 참고문헌은 지역사(地域史) 총서로 손꼽히는 『성남시사(城南市史)』, (1993)의 <역사적 인물>(PP.1962~1810) 항목을 필두로 장삼현 교수의 『성남의 뿌리』(1989) 및 『성남의 지명과 인물』(1997) 그리고, 김원태 편 「역대청백리상」(1980) 외 이서행 교수의 학위 제출논문 「조선조 청백리의 공직윤리에 관한 연구」(1987) 등이었다. 이 몇 권 편저술(編著述)에서 밝혀진 위인(偉人)들을 조사한 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조선시대 청백리의 대표인물로 손꼽히는 맹사성(1359~1431), 정약용(1762~1836) 외에 이원(1368~1429), 남세건(1484~1552), 남이흥(1576~1627), 김상헌(1570~1652) 과 더불어 이지직(1354~1419), 한계희(1423~1482), 이극감(1427~1465), 정대년(1503~1578), 한효순(1543~1621), 권 벌(1478~1633), 이자(1579~1667), 이병태(1688~1733) 총 14명이다.[43]

이로써 분석있는 성남시 향토자료로서의 청백리는 의외로 많지 않다. 앞으로 더 확실한 검증을 필요로 하는 이도 없지 않다고 생각하며, 옛 광주권 일부지역이 독립된 신도시 성남으로 커다란 변천을 거치는 과정에서 행정구역의 변화와 묘역 천장(遷葬)에 따른 무연고 인물로 생각한다면 거우, 6명에 불과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성남시 관할구역에 묘역(墓域)이 현존하는 이를 출생연대순으로 보자면, 탄천(炭川) 이지직을 위시하여 문정공(文靖公) 한계희, 이봉(二峯) 이극감, 월탄(月灘) 한효순, 교촌(郊村) 이자, 동산(東山) 이병태로 국한된다.

다. 성남시 청백리 인물 약전(略傳)

1) 이지직(李之直, 1354~1419) : 문신, 학자, 본관 廣州, 자 伯平, 호 炭川, 이 집(李集)의 아들이며 포은 정몽주의 문인(門人). 전구서승(典廐署丞)으로 2등에 급제되어 한림, 교리를 거쳐 관동. 호서지방 관찰사-보문각 직제학-소도(昭悼)의 변란을 극력 반대하였으나 태종, 변계량의 변론에 화는 면하고, 겨우 금고(禁錮)의 처벌로써 현 성남시 탄천변에 낙향하여 온거, 독서로 일생을 마침. 추증 영의정. 묘역 하대원동에 소재.

2) 한계희(韓繼禧, 1423~1482) : 문신, 학자, 본관 淸州, 자 子順, 시호 文靖, 한 혜(韓惠)의 아들이며 식년문과 급제되어 집현전 정자를 거쳐 병조좌

43) 여기 조사된 성남지역 청백리 14명은 불확실이며, 추후 계속 조사, 발굴 예정.

의-승지-공조참판-판서-좌찬성 등 역임, 익대공신 3등으로 西平君에 봉해짐. 편저술에 『경국대전』 및 『의방유취』 30질 간행.

묘역 율동에 소재. 경기도문화재자료 제84호 지정.

3) 남이흥(南以興, 1576~1627) : 무관, 본관 宜南, 자 士豪, 호 城隱. 남유(南 瑜)의 아들이며 무과에 급제되어 현감-판관-부사-통정대부-가선대부-오위도총부 부총관 겸 포도대장-충청병마절도사 겸 진주목사-구성부사 겸 방어사-안주목사 겸 방어사-이 괄의 난 평정 1등공신, 숭록대부-삼도부원수 겸 평안도 병마절도사 겸 영변부사 양서순변사로 정묘호란 때 안주성 전투에서 충절순사(忠節殉死). 성남 신도시개발로 충남 당진군 천장(충남도문화재 52호)

4) 한효순(韓孝純, 1543~1621) : 문신, 본관 淸州, 자 明叔, 호 月灘. 한상경(韓尙敬)의 아들이며 생원으로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되어 검열을 거쳐 영해부사-경상좌도관찰사 겸 순찰사-병조참판-경상, 전라, 충청도 체찰부사 역임. 그 뒤 지중추부사-이조판서-평안도관찰사-판중추부사-우찬성-우의정-좌의정으로 인조반정때 관직이 추탈됨. 편저에 『신기비결』과 『진설』 간행. 묘역 율동에 소재.

5) 이 자(李 資, 1579~1667) : 문신, 본관 全州, 자 润源, 호 郊村. 이사제(李思悌)의 아들이며 사계 김장생 문인(門人). 금정찰방 및 전설사별좌으로 소무원종공신 1등에 책훈되었고, 동부주부-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호종(扈從)-포천현감-금성현령-첨지중추부사 역임.

추증 가선대부 호조참판 홍문관 대제학.

6) 이병태(李秉泰, 1688~1733) : 문신, 본관 韓山, 자 幼安, 호 東山. 이협(李浹)의 아들이며 진사시에 합격되어 별시서봉사 및 내자시직장으로 증광문과 을과에 급제되어 권지부정자-홍문관부제학지제교 겸 경연참찬관 대사성-승지-함천군수 등 역임. 추증 대제학 및 이조판서. 시호 文淸. 묘역 수내동에 소재.

이 지역과 확실한 연관성이 되는 성남시의 청백리 6명에 대한 생애 약전을 우선 소개했다. 오늘 발표회에서 필자는 성남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현존 지역성 연관자로서는 가장 오래며, 그 족적(足跡)이 확실한 탄천

(崔川) 이지직과 충장공(忠壯公) 남이흥을 논구(論究)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그들의 청백리 정신을 조명(照明)하고자 한다.

거듭되는 말이지만 역사연구란, 시간을 뛰어 넘는 대화의 장(場)이기 때문에 그 어느 시대에서도 우리가 취사선택할 사건 및 인물의 행적은 그 시대의 관점에서 규명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고려나 조선시대를 통틀어 보아 청백리로 추앙받는 인물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작 2백여 명 수준을 넘지 못한다. 과거, 귀족계급이란 권세를 악용한 사리사욕의 횡포는 대단히 극심한 중에 나라사정이나 백성들의 좌절감은 파탄지경이 되었다. 특히, 고려말기의 역사 무대를 조명해 보자면 권문세가들의 정치적 비리는 크게 문란하였고, 대외국 원(元), 명(明) 두 나라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하여 외교 노선상에 친원파와 친명파가 대립되어 국가기강은 흔들렸던 시대다. 더구나 친명을 주장한 공민왕이 시해되고 어린 우왕이 즉위됨과 동시에 더욱 어수선한 국론분열 속에 비판 · 개혁의 신진사류(新進士類) 꿈도 혼란만 가중되면서 위기직면을 맞기에 이른 때였다. 이에 내부혼란은 온 백성들의 생업에 대한 열의가 저조하게 되었으며, 사회경제적으로 문무관료의 대농장 점유제와 사상적으로 불교, 유교 대립에 의한 정신적 지도이념이 흔들렸던 시대이기도 했다.

라. 보문각 직제학(直提學) 이지직 평설(評說)

1) 탄천의 생애 살펴기

이지직은 1354년 5월 5일(공민왕3), 여말(麗末)의 성리학자며, 학덕과 지절(志節)을 겸비한 둔촌 이집(1327－1387)과 어머니인 정경부인 정주 황씨 사이의 3남1녀 중 큰아들로 태어났다. 둔촌(遁村)은 광주이씨 줄흥의 시조로 행리(行李)의 먼 조상은 신라 내물왕때 철원성의 내사령 호족인 자성공(自成公)에서 비롯된다. 자성공은 오랫동안 철원의 호족으로 살다가 신라가 패망할 때 충신다운 절의(節義)로 고려 왕건에게 항복을 거부하자 이에 관직을 내려 그 즉시, 회안(현 광주군) 호장(戶長)으로 삼아 고려시대 360여 년 동안을 과거(科擧)조차 못 보는 아전 신분에 처한 집안이었다고 전한다.[44]

첫 이름은 도(途), 자는 백평(伯平)이며 호가 탄천(崔川)이다. 3형제의 이름을 지은 아버지 둔촌은 작명 이야기를 당대 성리학 큰 인물이며 중신(重臣)이던 학자 목은 이 색에게 말한 것이 인연이 되어 목은의 '이씨삼자 명자

44) 이장우, 광주이씨 연혁, <광리회보, 창간호>, 서울, 1987. P.13

설(李氏三子 名字說)' 글 일부를 인용한다.

(前略) 어느날 그는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나에게 세 자식이 있는 데 첫째는 이름이 지직이요, 자는 백평이며, 둘째는 이름이 지강이요 자가 중감이며, 셋째는 이름이 지유요 자는 수명이라 합니다. 이런 데게 혈人의 총명함을 사모함인 것입니다.(中略) 성인은 대체 무엇을 하겠습니까? 또한 그는 따르게 하고 곧게 하며 그 떳떳한 일을 순하게 할 뿐입니다. 옷을 드리우고 있어 아무런 하는 것이 없어도 잘 다스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문에 내 큰자식의 이름을 '지직이라 하고 자를 백평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요순의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함입니다. 또 이것은 성인이 끊은 것을 평탄하고 평안한 세상에 쓴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이 점점 낮아져서 백성들이 퇴폐해지고 물러나서 中이 머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들을 둡고 도와서 그 쓰러져 가는 기운을 진작시켜 中和에 돌아오게 하고 만것이니-"

부모가 자식사랑 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 다를 리 없다. 3형제를 둔 이지직 아버지의 변변찮은 <書經> 이치에 의한 고명한 논리는 재삼 되새겨 볼 만하다. 성인이 갈파해 온 삶 맛 나는 세상의리와 치우침 없는 삶덕(三德) 중화의 의미는 이 시대에도 늘 귀기울일 말이라고 할 수 있다.

3형제가 모두 포은 정몽주 문하생으로 학문에 전념함으로써 만형이던 이지직도 입학부터 스승 포은에게서 "조행(操行)이 독실하고 학문이 고명하다."고 칭찬을 들었다. 천구서습(典舊書丞)으로 생원에 합격되고, 그의 나이 26살 되던 1380년 문과에 아원 급제되고(우왕6), 뒤이어 내한림원에 보직되었다. 학문수행에서 익힌 도학(성리학)의 원리에 의한 엄정한 공직자로서 항상, 밝은 세상을 위해 힘썼던 학덕 높은 벼슬자리에 임하였다. 그 후 함리 광주땅에서 한양으로 거처를 이사하고 예문관 검열로 들어가 대교(待敎)를 지냈고(1394년), 계속하여 정승부(政丞府) 소윤에 옮겼다. 이어 평창·충주·청주 세 곳의 목사(牧使)와 관동·호서지방 관찰사를 역임하는 동안 최상 관료로서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던 이지직은 일을 처리함에 엄정하고 법도가 있었으며, 덕행은 순일(純一)하고 청백(淸白)하였다. 하므로, 그의 아우 두 명과 함께 당대에 남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살만큼 3형제 모두 문과에 등과하고 살았다.[45]

아래 예작(例作)은 이지직이 과거등제 후 스승의 축시로서 그의 인물됨을 그렸다.

45) 남수문(月川), 청백리공 휘 지직 行狀, <광리세적, 7편>, P.282

<예작1>
문촌의 세 아들 미목이 수려한데 / 만형이 먼저 과거에 올랐도다 /
명성이 이만한 거 말할리 있으랴 / 군왕께선 책읽는 이에 자리를 미워 뛸을 뿐이거늘.

내 문하에서 글 배워 과거에 급제하니 / 그 이름 오롯이 소년의 봄일레라 /
제주없는 이 몸 뛰어난 글 밝힌 제자 만나 / 당대 제일가는 사람이 되리로다.

비단 옷 걸친 행차 무늬 옷 새로울고 / 부모앞 귀밑털 오히려 새 봄일레/
아들을 낳으려거든 이씨 가문 아들처럼 / 광릉 땅 세상사람에게 글로써 말 전하니라.
(포은 정몽주 作 : '이태상 운을 맞춰 이둔촌 아들 지적의 과거급제를 축하하리')

아버지 이집선생도 청렴한 관료생활 중에 물의를 참지 못하여 요승 신돈의 그릇된 정치 혼란을 비난한 죄로 인해 일생동안 피신생활 4년여 동안 극도의 고난을 겪은 이였던 것처럼 이지직 역시, 강직한 충신의 절개, 그 한 마음으로 인해 피치 못할 처벌을 받는 일이 생겼다. 다름아닌 1398년부터 불어 닥친 1-2차 '왕자의 난' 이름하여 <소도(昭悼)의 변란>(1400년)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므로써 태종(太宗)을 섬기면서 시사(時事)를 바르게 할 것을 직간하여 태종(壬午) 사월 계축조를 살펴보면 일천자에 가까운 장문의 소를 올리니 모든 백관이 듣고 일어나 공을 탄핵하고 핍박하였으나 태종은 말하기를 이지직은 나의 신하중 가장 순량한 사람이다. 신하가 왕의 잘못을 보고도 간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남의 신하된 자의 도리가 아니다. 무릇 신하는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신하들의 강권에 못이긴 태종은 탄천변으로 공을 내치니 그곳이 지금의 성남 탄천변이다. 다시 태종이 보문각 직제학 형조우참의를 제수하니 공께서는 전가신, 이양명, 노이, 신효, 박신공과 같이(외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게된) 민무구 형제를 구하고져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실패하고 오히려 이일로 탄핵을 받아 다시 탄천에 금고되다 세종원년 상왕의 뜻에 따라 고신을 빼앗다가 단종3년 2월 甲辰에 복관되니 태종처럼 왕권에 집착한 왕이 공을 얼마나 두려워했나를 알 수 있다. 태종이 가장 두려워했던 포은의 제자요 여흥백 민제의 문하이니 탄천은 두분에게서 배운 유교의 최대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경세제민과 충효에 가장 가까이 도달한 이지직을 두려워했을 것은 불문가지이다. 참고로 이조초 청백리에 녹선된 분은 일차(태조2년) 단양백우현보 태종2년에 두 번째로 이지직, 김약항, 이백구, 박서생, 이원, 최유경, 채사의이다.

일생일대 갈림길 정점 앞에 우뚝 섰으리라 짐작되던 '소도세자의 변란' 현

장을 목격한 형조좌의 보문각 직제학 이지직! 그는 정안대군(훗날 태종 이방원)이 아버지 앞에서 아우 소도세자를 죽이려고 병졸을 지휘하여 나설 즈음, 이지직은 대군이 탄 말 앞길에서 고삐를 꽉 잡은 채 막고 나서며, "백일이 중천한 데 아버지 앞에서 아우를 죽이 장차 어찌 하시렵니까? 세상 천륜을 순리대로 받아들이십시오."하고 끝까지 천승(千乘)앞에 엎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극간하니 좌우에 물려있는 병사들이 칼로 이지직을 목베어 죽이려 하였다.

그러자 태종이 황급하게 사방을 돌아보고 나서, "이 분은 나의 옛 친구니 물러들 서오. 어찌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 내 하려는 일을 막으려 했겠오."

때마침 그 옆에는 또 한 사람 친구 변계량이 급박한 이 현장을 막아서서 서둘러 제차, 태종에게 청하길, "이공(李公)의 충성된 속마음은 위로는 일월(日月)과 빛을 다투고, 아래로는 백이숙제와 더불어 지조를 견 줄 만한 사람으로 천년에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한 사람입니다."하여, 겨우 극형을 면하고 금고의 가벼운 형벌만으로 漢陰 村舍에 돈거하고 살게되니 허름한 초가 근처의 단천가는 지금의 성남지역이고 이 고장에서 말년을 보냈다는 몇 구절의 기록이 각 문헌이나 묘갈명(墓碣銘) 등에 전해 온다.

2) 시 몇 편 속에서 단천의 청백리 정신 살펴보기

고려와 조선시대의 청백리 덕목은 강직, 과묵, 정직함에서 청렴결백 그리고, 권력에 아부하지 않은 채 백성앞에 항상, 떳떳한 준법성을 실천함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 모든 수범적인 관직 이행의 선비 참 모습이 이지직의 한 시 몇 편에 담겨져 있기에 살펴보고자 한다.

단 몇 편의 자료만이 전해옴을 못내 아쉽게 여기며, 글을 소개한다.

<매작2>
사직은 중하니 산처럼 못 움직이고
세상은 위태로와 스사로 서로가 빼어집이네
흐르는 눈물, 등잔가에 뿌리니
꿈이야 대궐 둘레 갑싹 도네
늙은 말은 언제나 주인의 생각뿐,
외로운 기러기 긴 세월 딱 잃지 죄없네
그대 띄나 보내며 글 한 편 짓거니
어찌 서글픈가, 옛전에 들리잖아라.
('벗 앞에 보내고')

<예작3>
우리 백성 마음놓고 살이 기르기만 하건만,
조석으로 굴뚝 연기는 먹고 살이 넉넉함일까
정신의 아픔이 많아 참기 어렵더니
세월은 어느 사이 한 해가 지나갔구나
성안의 노랫소리 내 선임자 잘 다스림일꺼며,
벽에 걸린 내 친구의 글씨가 주옥같구려
나도 이제부턴 印綬 내 던지고
한가히 홀쭉 시냇가에 나아가 고기나 낚아 볼까나.
('평창군에서의 읊조림')

<예작4>
그윽한 곳 작은 평상에 누웠으니
고요한 방안에 향연기 가득하네
밤비에 수풀 꽃 윤택해지고
6,7월 바람 기운 서늘하구나.
잎새 짙어 새들은 시끄럽게 지저귀고
진흙찾어 제비는 바삐나네.
무엇으로 긴긴 날을 소일할거나!
새 시나 두어 줄 써보는 재치
('탄천에 유거하며')

탄천 이지직이 남긴 <예작>2-3 漢詩 장르는 모두 律詩型이다. 작품2는 5언이며 작품3은 7언이 배치된 가운데 두 편에 불과한 글이지만 풍부한 언어선택이 돋보인다. 수사법 또한, 품격이 뛰어난 가운데 문맥의 앞 뒤 상통성이 완결미학으로 이해된다. 글을 짓되 말하듯이 흘러가는 냇물소리 엿듣음 같고, 심층갑 느끼는 내용면에서 조차 자신의 사사로운 정감보다 관사, 관찰사 직분의 목민관으로서 愛民, 忠義가 구절구절 마다 번뜩거리고 있음에랴.

작품 2가 사나이와의 우정 담긴 제목인 것처럼 생각하다가도 시대와 역사를 개인으로서 어쩌지 못하고 옛 폐허된 조국의 사라진 과거를 현실에 갑아 권 채 묵묵히 동해가에 발길 돌려 밤고삐 움켜 쥔 대장부의 절장가(節腸歌)로서 눈물져 흘릴 뿐이다. 지난 시대의 군주모습을 그리고자 하는 '상실의 아픔'이 전편(全篇)에 배어난 가편(佳篇)이라고 감상해 본다.

작품 3에서도 정치 권세가의 덕치(德治) 인간성이 물씬 풍겨난다. 부패한 정치 지도자의 반열을 외면한 청백리 가슴엔 굶주리고 고통 당하는 가엾은 백성들에게 조금이라도 세세한 긍휼심을 이웃 사랑하는 마음처럼 눈길 돌려 보고자 하는 것이다. 수련(首聯)은 독특한 愛民으로 꽉 채워져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함련(頷聯)에 응축된 이야기는 관민(官民)간의 해결되지 못하는 정신

적 고뇌를 눈치 챌 수 있다. 중반 이후에 표사된 마음안의 낙락한 노랫소리 조차 전임자 관료의 교화(敎化)일 것이라는 순결한 판단력과 인격앞에 고개 숙여질 뿐이다.

작품 4에서는 온자의 모습이 담기고도 학자적인 기품이 모이고 청백리적인 품성이 담긴 글이다.

3) 친구들 시편(詩篇)에 나타난 탄천의 청백리 정신 살펴보기

탄천선생의 65년 생애는 엄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탄천 이지직의 생애는 엄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 조 교체기에서 아버지 둔촌선생의 영향을 받고 또한 스승인 포은선생의 충, 효, 애민의 사상을 물려받았을 것이다.

둔촌선생의 유자만렵금, 불어교일경이라고 한 말과 포은선생의 처고사유익(處苦斯有益) 목은선생의 유사문은의(有斯文恩義)라 하였으니 유소년 시절부터 보고 듣고 배움에 있어 충, 의, 예, 지, 신 도학의 기본개념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다. 둔촌선생은 또 원정왕후 부친 민중회와도 교분이 돈독함을 둔촌의 시 '희봉삼아 민중회에게 주다'란 4수의 시속에 두 사람의 우정이 보인다. 또한 둔촌선생의 청, 장년기의 기록은 별로 전하여지지 않으나 만년의 처신은 현실에 강하게 대처했다. 난을 만난데 대한 반성이자 귀거래를 표방하면서 출처를 표리 관계로 본 중용적 은일지향인 은현관으로 관직에 있으면서도 은사적 자세를 버리지 않은 점과 일맥상통한다 할 것이다. 다음 예작 四首를 제시하면서 벗에게 참된 은둔을 실천하는 것을 뜻한 하이소창일(何以消長日)하며 본인의 참된 은거를 말하였으나 안능차구거(安能此久居)라고 말한 충정선생의 왕의 부름을 예고했다고 볼 수 있다.

> 둔촌 이집은 고려말기의 신진 사류(士類)이고 성리학자였다. 둔촌은 어느 관직보다는 학덕을 쌓고 지절(志節)을 지키는 데에 보다 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공수, 안보와 좌주문생(座主門生) 관계에 있으면서 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또,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 특히, 이색, 정몽주, 이숭인과는 교분관계가 각별히 두터웠고, 그들의 각별한 신뢰와 존경을 받았는 바, 이것은 그대로 고려말기 성리학계에서의 둔촌의 지위를 말하여 주는 것이다.[4]

둔촌감영을 살펴보면 7언절구 120제, 5언절구 4제, 5언 4운율 39제, 7언 4운율 24제, 7언고시 2제, 5언고시 3제가 실려 있으며, 기증시, 차운시가 주를 이루고 있다.

4) 민병하, 둔촌선생의 성리학적 위치, <함보인물 연구-둔촌 이집선생>, 삼남문화원 3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8, PP.45~

<예작5>
훌륭도다, 이 선생이여!
美名이 소년시절부터 알려졌다네
끝내 과거 응시에 오르더니
삼장의 시험도 잘 치룸이라
뛰어났던 글귀가 선비 중 으뜸이기
이 어찌 스스로만의 지식일까?
자미랑(紫微郎)에 오르더니만
느닷없이 액운을 맛 보았고나
지금쯤 한강 옆 한음촌(漢陰村)에서
독서마저 등돌린 채 한가히 지낼건데
나 역시, 오랫동안 떠돌며 헤어졌지
혼미의 시대에 헛되이 지낼이 부끄럽구려
탄천(炭川)에서 서로 만나 놀기도 하며
더러는 절간도 함께 찾는다오
우리의 함께 원은 마음 무엇으로 견주리까
학이 울면 서로 화답함과 같다고나 할까?
(벗 權之韓 작 '무제')

<예작6>
한 모금 표주박 물로 갈증 달래고,
두어 이랑 밭채소로 배고픔 채우노니
담담한 마음이라 세상 큰 욕심없어
어젯 듯 그대로 바르게 살리라네.
(벗 李 永 작 '한 편 글 드림')

<예작7>
늦가을엔 부지런히 약초를 캐들이고
봄철에는 회색띠고 남새밭에 물을 주지
자연히 세상의 생각이 없어지니
신선이 사는 곳을 사모할 게 뭐 있겠나

실바람은 보리밭을 물결처럼 몰아가고
함박눈은 산속의 채소밭을 뒤 덮었네
천종의 고관도 조개처럼 벌개지고
천지 속에 몇 점 되지 않는 곳에 산다네

가득한 술동이에 푸른 기가 떠돌면
김주위 남새밭엔 채소가 푸르지
단비가 내리기를 생각하고 읊으면서
산택에 거할 생각 산보하며 굳히네

밝으신 인군께서 은일 선비 구하시니
현지의 선비들이 초야에서 나왔다네
동산을 사랑한게 좋기는 좋지만은
이 곳에 오랫동안 살도록 놔 둘는 지
('이지직의 그윽한 거처에 대해 옳은 시권에 쓰다')

<예작8>
흰 돌과 푸른 등속 외길래 길 깊은데
세 서까래 몇집이 솔 그늘에 앉았네
분분한 세상엔 끝없는 싸움인데
그 집 한 치 되는 마음에 들어가지 않으리

스스로 말하네 허리 굽히기엔 천성이 게을러
흰 구름 푸른 선에 멋대로 소요한다네
소나무 바람이 먼 산 비를 불어 보내며
한 벌기 자형화가 만이나 떨어졌네
('은거하는 이를 찾아서')

<예작9>
한 모금 표주박 물로 갈증 달래고,
두어 이랑 밭채소로 배고픔 채우노니
답답한 마음이라 세상 큰 욕심없어
어진 뜻 그대로 바르게 살리라네.
('이래의 한편글 드림')

친구들이 지어 보낸 작품5-9 네 편을 통해 탄천(炭川)선생이 살다간 이곳 성남땅에서의 말년기를 생각해 봄 직하다. 여말선초 그 시대에 특출났던 광주이씨 중시조 문촌 어른을 중심으로 문중(門中) 선후대 모습이 지금껏 이 고장 옛 뿌리가 되고 있음에 다시 새롭게 되새겨진다. 다만, 고려말에서 중흥되기 시작하여 조선전기에 가장 흥성했던 광주이씨 후예였던 탄천선생의 저술활동 자취가 대부분 산실(散失)된 안타까움 속에 4편의 작품을 감상하더라도 자연에 자적(自適)하던 탄천선생의 허송세월이 한탄스럽기까지 하다. 한스러운 점이 있다면 여말 선초에 중흥하였고 조선중기까지 융성하여 정필제, 김종직, 허백정, 홍귀달, 허백당, 성현 등 제현들이 말하기를 동방의 제일 감족이라 하였으나 2제 3자 8손의 당대 제일의 문벌인 광주이씨 후손들의 문적이 전하여지지 않음이 한스럽기까지 하다. 후대에 무오, 갑자 양대 사화를 거치면서 멸문지화가 될 뻔한 최대 수난기를 당하고 또한, 국난을 당하여 문적이나 기록이 소실되었다로 봐야 할 것 같다. 예제 7부터의 여섯 수는

『춘정집』 초간본 제4권(세종 2십사년 왕명으로 집현전에서 간행)에는 보였으나 세조때 재간을 하면서 자신의 약점인 왕위찬탈로 인한 은일사상이 퍼지는 것이 두려워 삭제된 73편 중에 포함되어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속에서 보면 사로에 연연하지 않고 주정야독한 부친 둔촌선생의 생을 그대로 답습한 듯하고 자연을 벗삼으로 가난을 즐기는 청백리의 표상을 보는 것 같다.

또한 이래는 태종조에 종묘에 배향된 사람으로 청백리 단양백 우현보의 사위로서 대제학은 오랫동안 지내며 계림군에 봉군되었는데 정의라는 탄천선생의 기개를 높이 평가하니 선생기개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가 감탄지경이다. 덕불고 필유린(德不孤 必有隣)이라고 하였으니 적이 있으니 석학들이 선생을 추앙하나 그래도 암담한 현실속에서 고뇌의 시련을 보내며, 그의 아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곳 성남땅에서 죄인 아닌 죄인으로 또 청백리로 좌절하지 않고, 경세치민의 성리학풍을 존중하며 선비 중 표본이며, 백세에 자랑할 만한 법도를 갖춘 청백리의 표본이니 후손들이 선조의 유업을 기려 청백사상이 가문의 지표로 2제 3자 8손이 그 뒤를 잇고 동고 이준경, 이한원 같은 청백리가 계속 뒤를 이었던 것 같다.

이외 김구용(金九容), 한 수(韓脩) 두 사람이 탄천의 등과를 축하한 글은 생략하며, 경상좌도 창녕군 운봉촌에 건립된 <운곡서원>의 봉가을 녹고(錄告) 축문(祝文)을 참고로 기록해 둔다.

춘향축문 - 만고에 빛날 높은 충절이요 / 빙산처럼 밝은 지조였도다 / 큰 힘으로 멀리 발년엔 쉬었다 하나 / 백세를 두고두고 우리러 추앙 받으시어라.

추향축문 - 따고 난 그 모습이 황금빛 곧은 절조요 / 굳센 절개 씩씩함이 얼음같이 결백하도다 / 말 머리 두드린 새 꽃봉을 소리 외쳐 / 가을 하늘 서리처럼 늠름한 기상이어라.

마. 충장공 남이흥(南以興)장군 평설(評說)

1) 성은(城隱)의 생애 살피기

남이흥은 1576년 7월 27일(선조9), 임진왜란때 남해 노량전투에서 이충무공과 같이 순국(殉國)한 의천부원군 (증)병조참판 남유(1552~1597)와 어머니 전주유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자는 사호(士豪), 호는 성은(城隱)이며 27세에 알성 무과(武科)급제 후 선전관을 필두로 현・판관을 거쳐 부사, 부총관, 포도대장(1614년), 통정・가선・자헌대부에 올라 목사 외 절도사, 방어사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그의

나이 49세(1624, 인조2년)에 이괄의 난을 평정한 진무1등공신으로 종1품 숭록대부(崇錄大夫)에 봉해졌으며, 이때 영정까지 하사 받았다.

계속하여 연안부사에서 3도 부원수 겸 평안도병변부사 양서순변사 재임 중에 3만대군을 이끈 후금(後金) 왕자 아미타수가 침공해 온 정묘호란(丁卯胡亂) 안주성 전투(1627, 인조5년)에서 종과부적 1천여 병사와 함께 일선지대 성문(城門)을 독전(督戰)하다가 적병을 화약고로 유인하면서 역전의 지휘관으로서 자폭(自爆)하는 최후를 마쳤다.(1627년, 인조5) 그때 52세로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좌의정에 증직(贈職)되고 '의춘부원군'에 봉해지면 시호(諡號)는 '충장(忠壯)'으로 출신정려를 받았던 이다.

충장공 집안의 애국적 이야기는 이외에 더 있다. 그가 순국하기 30년 전, 왜군과의 전장에서 그의 아버지 역시, 순국한 장수였다. 부자(父子) 두 대가 모두 이 나라 역사에 충절의 귀감으로 기록된 훌륭한 가문이 아닐 수 없다. 그의 아버지 남유는 알적이 무과에 급제후 여러 군목(郡牧)을 지내다가 나주목사 재임시절인 1597년(선조30)에 왜란이 발발하므로써 통제사 이순신장군과 죽기로 맹세후 노량전투에 출전하여 격전 중에 장렬한 죽음을 맞이한 이며, 충장공 역시, 아버지의 뒤를 따라 나라에 몸 바친 셈이다. 그러면서도 그의 홀어머니를 모시는 아우들조차 자기 집 한 칸이 없이 청렴결백한 삶을 영위했던 이야기는 오늘 이후, 천추하에도 귀감이 아닐 수 없다.

2) 정묘호란에서 충장공의 순국 영웅담

참고로 최근에 꾸며진 안주성 전투 장면을 인용해 본다

후금 침략군에 본진 포위된 21일 아침이었다. 적군 나졸들은 일제히 소리쳐, "조선의 병졸들아, 어서 성밖으로 나와 모두 항복하라! 너희들 목숨은 살려 줄 것이다." 평안병사 남이흥 장수의 눈치를 보고 있던 병졸에게 군사를 독려하던 한 병졸 지휘자가 "죽기로써 싸울 뿐이다. 조선 남아 죄기는 아직껏 살아있음이야." 큰 소리로 대답했다.

아무튼 안주성이 무너지면 다음엔 평양이 공격목표가 될 것이며, 그리하면 평양이 빨어져 조선의 북관이 모두 적의 수중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 어찌, 항복에 응할 수 있으랴.

북, 뿔가리 소리로 기세를 올린 후금군이 일제히 고함치기 시작했다.

"조선군은 어서 나와 항복하라."

종과부적의 싸움에서 병사 남이흥과 목사 김준은 각 처에서 집결된 군사 1천여 명의 장수들 앞에서 "이제, 죽기로써 싸워야 하오. 강홍립과 적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조선사람의 목기가 아니겠오. 저 안주백성 모두와 우리가 함께 결전대항합시다."

성을 사수하는 우두머리 병사 남이흥의 결전 다짐에 모두들 머리를 끄덕였다. 다

시 남이흥은 전쟁을 독려차 파견된 선전관 이치환을 보며 말했다.

"여기 내가 몸소 피를 짜내어 쓴 혈서가 있으니 이를 조정에 전하시오. 이 즉시 서둘러 이 성을 빠져나가시오."

남이흥은 선전관이 마침내 안주성을 나가기가 무섭게 안주성내 모든 집을 불태우도록 명령했다. 초토작전을 통하여 결사 항쟁에 들어가기로 하였던 것이다. 조선 장졸들은 남이흥, 김준의 지휘아래 사력을 다해 적병들과 맞섰다. 최후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은 남이흥은 그의 아들을 시켜 화약이 든 자루를 가지오게 했다. 그리곤, 성루하지 달려드는 적병들 앞에 갑자기 불길을 붙여 천둥치는 폭음과 화염으로 뒤범벅된 성루에서 여러 장수들과 최후를 마친 것이다. 그렇게 날뛰던 적병들도 모두 폭약 불길속의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다.[47]

무장(武將)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 적에게 항거하며 싸우다가 죽는 일이 본분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 영웅들 한사도 글이나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하물며, 아버지와 아들 두 세대가 위급존망의 국가를 위해 몸바친 영웅담은 오래 두고 기억해 마땅하다.

영웅이란 무엇인가? 한 마디로 정의 내리긴 어렵다. 영국의 19세 사상가이자 역사학자 토머스 칼라일은 "세계역사는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 기록일 뿐이다."라는 명담이 있다. 이는 곧, 인류가 이룩한 역사는 결국, 영웅들의 역사 이야기라는 말이다.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울 때 영웅들은 존재하고 또 그 시대를 구원하고 또, 상징하는 이야기로 채워짐을 우리의 고금 역사에서도 무수하게 배워온 것이다.

전쟁은 쌍방 모두에게 힘을 빼는 비참한 고통이나, 전투하는 마당에서 별사의 죽음은 또, 필연적이지 우연이 아니다. 그러므로 처참한 죽음, 포로, 부상자의 끔찍한 사건은 어느 세월에서나 국민의 분열과 부정한 망각이 지속될 때 어김없이 역사앞으로 성큼 다가선다. 우리 뇌리에 잊혀지지 않고 있는지 을지문덕 장군 외 양만춘, 고선지, 계백, 김유신, 김춘추, 서희, 강감찬, 이순신 장군들 못지 않게 진충보국으로 몸바친 남유, 남이흥 부자간 애국충절은 우리 고장의 역사 이야기로 기록되고 후대에 전해져야 할 말이 아닐 수 없다.

그 후 충장공은 애국충신으로서 평안도 의주에 <충민사 忠愍祀>라는 사당이 건립되어지고 사액도 내려져 내부 정면 중앙에 충장공의 영정을 위시하여 양편 10명 애국선열들이 함께 모셔져 있다. 이곳 현 성남시 청사 대지에 자리했던 충장공 묘역에도 신도비를 비롯한 상석, 표갈 등이 있다가 1971년도 성남 신도시 개발사업에 밀려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도이리로 강

47) 홍성암, 대하소설 '남한산성'<4부, 칠묘호란>, 서울, 태학사, 1992, PP.31~86발췌)

제 천장된 애석한 역사가 지금껏 서려있다. 충장공의 배위(配位)는 경경부인 하동정씨(1576~1657)로 천묘후에도 합봉(合封)되고 있다.

오늘날 당진군민과 충남도민에 의해 연례적인 '남이흥장군 문화제'를 다채롭게 거행함을 거울삼아 우리 성남시에서 빼놓을 수 없던 역사속의 애국 정신 높은 뜻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의 아버지와 함께 숭고한 의절(義絶)로 나라에 바친 의혈일념(義血一念) 순국정신을 성남시 향토역사에 기려두기 위해 이 논고 속에 몇 귀절만이라도 기록해 두려고 한다.

> 나는 일찍이 <충장공 유사>를 읽고 그 장렬한 최후를 생각하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인간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을 초개와 같이 내어던져 나라의 수호신이 된다는 것은 범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후금(청국)의 대군을 맞아 무기도 병력도 부족한 외로운 안주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오로지 충과 의에 의지하여 싸우고 또 싸워 최후의 순간, 성이 무너지자 화약고에 불을 붙여 자폭으로 최후를 마치는 그 장렬한 순간에는 산천도 울었으리요. 일월 마저 그 빛을 잃었으리라.(중략) 여기 한 가지 더 특기할 것은 충장공 남이흥장군이 전몰할 당시에 80 노모가 생존해 계시어 아들의 전몰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지난 무오년(1597년)에는 그 아버지가 전장에서 돌아가시고 올해엔 그 아들마저 죽으니 무슨 한이 또 있으리요!"라고 말하였다 하니 과연, 장한 어버지에 장한 아버니요 또, 장한 아들이었다.[48]

충장공은 각 고을 현감, 군수, 부사, 목사 재임중에 민중들에게 절대적 칭송을 받았던 이었다. 충신문벌의 후예답게 무신으로서 의리가 강한 성은(城隱) 남이흥 장군이 전쟁 중에는 불사신으로 남았고, 지혜와 정의감이 남달라 언제나 세상의 태평함을 추구하는 충신이었다.

백성들의 궁핍한 생활을 살려내고자 노심초사했던 성은 남이흥은 관리로서 권위주의에 빠져들지 않았다고 전한다. 한편, 반적(反賊)과 비리척결에 남다른 청백리답게 타락한 지배계층과 모순점이 허다한 당대의 봉건계급들에 대한 잘못된 정사(政事)를 밝게 하고 엄히했다는 기록이 「충장공 남이흥장군 유사」에 전해 준다.

3. 맺음말

오늘 우리가 청백리의 정신을 뒤좇으려함은 곧, 민족의 미래를 좀 더 밝은 데로 추켜세우는 계기를 마련하려 함이다. 식어진 선비의 지조와 애국 정열을 통해 우리 미래의 자부심을 키워 가자는 지개(志槪)를 펴보려는 것이

48) 남익화 편, <충장공 유사> 목판본, 경상도 칠곡, 1722. (국역) 한묵동 序文

다. 이는 다름아닌 거룩한 '민족의 혼'을 바로 세우려는 데 있다.

탄천 이지직을 통해 무너진 인간의 기본질서를 우리 고장에서 불러일으키려 함이고, 충장공 남이흥 장군의 만고불변 충혼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떳떳한 삶이 그 어떤 데 있는 가를 알게 되었다. 우연의 일치인가 몰라도 평설 대상인 두 문무(文武) 선비가 하나같이 부자(父子) 두 세대를 걸쳐 같은 불운의 시절을 따다 않은 세 거레 앞에서 고난의 길을 걸었다는 점이다.

초지일관했던 필사즉생(必死則生)이 그들로 하여금 이 혼란한 세상을 하루 빨리 '정의로운 세상'으로 바로 세워야 할 깨우침인 것이다. 원칙에 철두철미했으며 인륜(人倫) 특히, 군신간 의리가 아무리 절대시된다 하더라도 천륜(天倫)마저 내팽개치는 태종의 야만적 반인륜적 골육상쟁에 몸기 어려웠던 탄천선생, 그의 곧은 삶과 바른 도리가 오히려 불행한 화를 불러들인 셈이다. 그러나 조상적부터 익힌 강직한 의리와 청렴결백이 학문연마로 이어졌던 탄천선생의 신념에 찬 원칙주의는 사회모순을 해결하는데 한 몸을 다 바쳐도 좋으리라 굳게 믿어 왔다. 그에게 있어 인의(仁義)는 강철과 같아 잘못된 세상일을 바로잡으려 했고, 왕족간 알력은 반드시 순리를 따라야 된다며, 병기(兵器)는 군사 앞을 막아 나섰다.

충장공 남이흥이 뿌리고 간 붉은 피의 행적을 돌아 오늘날 이 나라는 푸르고 활기 찬 나라로 지탱될 수 있으며, 그 숭고한 충효 애국혼이 우리 성남시를 일컬어 '충절의 표상'이 숨쉬는 고장이라고 자신있게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역사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였다. 자세히 선별 조사한 결과, 성남권역에서만도 14명의 청백리 모습을 우리는 처음으로 한 자리하게 되었다. 이 둡고 혼란한 시대, 순리로서 의(義)를 질타했던 우리 지역에서 가장 오랜 광주이씨 문중의 탄천 이지직과 의령남씨 문중의 충장공 남이흥 큰 인물을 만나 본 셈이다. 특히, 탄천의 백절불굴했던 청백리의 신념 앞에서 대궐의 실권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천륜을 순리대로 받아들이소서."라 직언한 탄천선생의 정치 도리는 '인간 의리의 정당성'이다. 한 집안 장자(長子)로서 몸소 체험했던 학문과 인격수양 영향력은 면면히 전해 내려왔을 것이다. 자기희생을 감내하면서 오로지 직간신 탄천선생이 할 수 있었던 최대한의 인간다운 수신(修身) 도덕성만은 우리가 지켜 가야 할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긴 역사의 흐름에 빛나는 청백리 그 떳떳함과 고귀한 자기희생이야말로 참된 공직자의 성공한 이념이었음을 배우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충장공 장군이 남긴 늠름한 대의(大義)와 살신성인(殺身成仁)은 후세인들에 의해 상당 부분 실현되고 또, 계혁되어 왔음도 배우게 되었다. 탄천선생 한 인간의 최후 생애는 궁핍했고 한편, 비애감마저 느꼈을지 몰라도 그의 장대(壯大)하고 청백(淸白)한 정신은 오히려 성공한 큰 모습으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섰다. 우리가 익힌 청백리 정신도 이와같은 맥락에서 국가의 기강과 정의로운 사회발전에 머지지 않을 불빛처럼 시대적 과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힘써야 할 일이다.

탄천의 평생 최후에 다다르자 "태종이 임종때 동궁(세종대왕)에게 당부하기를 '이지직은 충의지사(忠義之士)요, 정직하여 옛날 주운(朱雲)과 같이 역량있는 사람이니 네가 불러 중히 쓰라.'고 하였다. 세종이 즉위하자 곧바로, 부왕의 유지를 받들어 형조우참의에 제수하고 징소(徵召)하였으나 부임치 않고 세상을 떠나게 되니 증직(贈職)으로 영의정을 내렸다."고 문중 서책에서 간략히 전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천수(天壽)는 그에게 재차 입궐을 허여치 않은 채 얼마 후 그의 나이 만 65세가 되는 해인 1419년(세종1) 7월 21일, 세상을 떠났다. 이어 그의 은거지 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의 탄천 옆 산자락에 무덤은 진사 벼슬의 조한필에 의해 자리가 정해지고, 그 묏자리에는 아내인 정경부인 정주이씨(1355~1433) 무덤이 14년 뒤에 자리잡혀 현재, 앞뒷산 양지와 음지편 대부분이 광주이씨 신후대 집단 묘역의 엄숙함을 자아내고 있다. 탄천선생이 별세하자 세종은 몹시 슬퍼하며, 철조(輟朝)하고 부의(賻儀)를 보냈다.

뒤에 대광보국 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연 김현전 운문관 춘추관 서운관사 세자사에 증직하고, 행직은 통정대부 형조우참의 겸 보문각 직제학 경영함한관 춘추관 수찬관 세자시강원보덕을 지냈는데 청백리에 녹선되어 그 이름이 세월따라 전해진다. 아울러 그곳을 지나는 이들이 하나같이 '탄천선생'의 '청백묘(淸白墓)'라 칭송하였다고 한다.

논지를 마무리할 자리, 우리 자화상은 한 마디로 말해 '아직도 멀었다.'라고 하겠다. 아직도 1국가 통일체제의 평화안정이 되지 못한 사회라서 그런지 몰라도 권력층 또는 각계 지식층 각급 공직자들이 국민앞에 봉사·헌신하려는 자세가 부족한게 현실이다. 오히려 국민앞에 군림하면서 자신과 소속 단체 이익에 급급한 지도자들이 적지 않게 많은 것 같다. 심지어 과격함과 분열에 씌들어 있는 사악한 패거리들은 지도자 되기에만 급급할 뿐, 국민앞에서의 지도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엔 뒷전으로 흡물스럽기까지 생각되는

이들도 없지 않다.

국가기강이 흔들려진 이 사회, 원칙이 무너져도 누군가 바른 말하기를 주저하는 어른다운 이가 드문 이 무관심한 사회, 이처럼 잘못된 병폐의 사회에서 국민들의 가치관에 심각성이 드러난 가운데 우리 사회는 능력보다 편법으로 성공되길 기대하며, '돈을 많이 버는 이가 존경받을 수 있다.'라고 한국은 크게 변하였다. 가치관의 혼란이 심각할 지경에 이른 이 시점에서 옛 선조들의 등불같았던 국가 최고의 청백리 민족정신은 한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서둘러 되찾아야 할 일이다. 이런 공직자 및 사회 각 분야 지도자들 의식혁명이 실행 · 정착되는 길만이 선진 민족으로 갈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우리 역사속에서 한 두 번쯤 뇌리에 스친 정도전, 조광조, 황희, 이원익, 조식, 이황, 이이, 김인후, 서경덕, 기대승, 유성룡, 이수광, 최명길, 송시열, 허목, 유형원, 이익, 최한기, 이건창, 황현, 최익현, 박은식, 신채호 등의 청백리 선비들과 옛 광주권의 이원, 남이흥, 정대년, 김상헌, 명사성, 정약용, 남세건 큰 인물들 그리고, 성남시의 이지직, 이극감, 한계희, 권방, 한효순, 이자, 이병태 같은 우리 성남시의 빛나는 청백리에 관한 그들 정신은 재음미되어 본받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炭川 李之直의 淸白吏 精神」 학정토론

허창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정치학)

I

필자는 이 시대의 부조리 현상의 원인이 권력형비리, 물질만능주의, 인간성상실 등으로 인하여 비인륜적 타락상을 노정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처방의 일환으로 청백리 정신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성남지역 출신의 청백리를 발굴·조사하는데 연구목적을 둔 것 같다. 이 논문의 서론 일단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청백리라 지칭되며, 추앙받는 우리 역사의 위인들, 그 가운데 성남시 안에서의 청백리 인물을 조사·검증해 보면서, 이룸난 집안 선대속의 청렴과 강직한 삶이 그 어떤 귀감이었는지를 규명하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본론 장에서는 청백리로 추앙되는 인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5절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가)절에서는 우리 역사 속에서 청백리 정신을 중요시했던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나)절에서는 성남시 청백리 인물로 李之直, 韓繼禧, 南以興, 韓孝純, 李浈, 李秉烋 등을 제시하면서 (다)절에서는 그 인물들의 약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끝으로 (라)李之直과 (마)南以興에 초점을 맞춘 다음, 시문자료를 통하여 이 분들이 청백리임 것으로 추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필자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다. "우리 역사 속에서 한 두 번쯤 뇌리에 스친 정도전·조광조·황희·이원익·이황·이이·김인후·서경덕·기대승·유성룡·이수광·최명길·송시열·허목·유형원·이익·최한기·이긴창·황현·최익현·박은식·신채호 등의 청백리 선비들과 옛 광주권의 이원·남이흥·정대년·김상헌·명사성·정약용·남세근 등의 큰 인물들 그리고, 성남시의 이지직·이극감·한계희·권람·한효순·이자·이병태 같은 우리 성남시의 빛나는 청백리에 관한 그들 정신은 재음미되어 본받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곳 성남지역과 인연을 가진 역사적 인물로서 청백리에 녹선된 분이 있다면, 이는 성남의 자랑일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청백리정신을 삼학사의 선비정신과 접부시켜 성남시민의 정체성 확립에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이러한 인물을 찾는데 노력을 경주한 그 노고는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평자로서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만약 논자가 제시한 의문점의 내용에 대하여 필자로서 부정할 수 없다면 하루 속히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

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관한 문제들은 필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한 논평자로서 질의 자체의 한계가 있음을 전제해 둔다.

II

주제선정과 내용구성의 괴리에서 오는 불연속성으로 하여 사상사연구인지 인물사연구인지 평자로 하여금 아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한 연구라면 "모씨에 대한 청백리정신 연구"라는 주제를 설정해야 했고, 어떤 사상에 대한 연구라면 "어떤 측면에서 본 모씨의 청백리정신"으로 주제를 선정해서야 독자들로 하여금 필자가 의도하는 대로 인도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평자로 하여금 동문서답하는 오류를 가져오게 하고 있으니,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평자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는 필자가 선정한 인물들이 과연 조선시대의 청백리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고서는 필자의 글을 논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성남지역에 거주했거나 묘소를 두고 있는 청백리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 분들의 정신을 재조명하여 이곳에 살고있는 시민과 공직자로 하여금 오늘의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성남지역에 14명의 청백리가 살았던 흔적이 있는 것처럼 사실화 한 다음, <주>에서는 오히려 이 자료가 불확실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을 왜 먼저 인용해 놓고 <주>에서는 불확실하다고 하였을까? 불확실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이 내용을 인용문처럼 현혹시키지 말았어야 했고, 불확실한 남이흥을 연구대상으로 삼지 말았어야 했다. (※주6 참조 : "여기 제시된 성남지역 청백리 14명은 불확실이며 추후 계속 조사·발굴 예정".) 이러한 삼식적인 문제를 모를리가 없는 필자가 그럼에도 남이흥에 대하여 굳이 연구대상으로 삼았을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제시한 『염리전』, 『청백리록』, 『전고대방』 그리고 기타 자료를 두루 살펴보았으나, 그 자료 속에서는 필자가 제시한 6명의 인물 중 한계희·남이흥·한효순·이자 등 4명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필자가 조사·인용하고 있는 참고문헌 『성남시사』, 『성남의 뿌리』, 『성남의 지명과 인물』에서 위의 인물들이 설사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논자가 보기에 이는 이 지역 출신으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인물일 뿐, 청백리라고는 속단할 수 없을 것 같다. 필자가 제시하고 있는 청백리들을 논자가 다음 자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지직과 이병태 두 분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하여도 그분들이 성남지

역 출신임을 고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함께 제시했어야 필자의 논지를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는 질타에서 필자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姓 名	淸選錄	大東掌攷	文獻備考	姓氏大觀	淸白吏列傳	歷代淸白吏像	朝鮮淸白吏誌
李之直	○	○	○	○	×	×	×
韓繼禧	×	×	×	×	×	×	×
田以興	×	×	×	×	×	×	×
韓孝純	×	×	×	×	×	×	×
李 濟	×	×	×	×	×	×	×
李秉泰	○	○	○	○	○	×	○

Ⅲ

<청백리>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것 같다. 필자는 그의 논문에서 청백리를 다음과 같이 여러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① 그 당시 엘리트 선비들로서 가히 추앙 받는 권력자이면서도 옛 성현이 갈파했던 도리를 몸소 말과 글에 앞서 행동화한 흔치 않는 인물로 파악하고 있다. (1쪽) ② 높은 권좌에서 일신영달에 욕심을 털고 세상을 등진 은둔처사라 말할 수 있다. (2쪽) ③ 청백리정신의 구현을 오늘날과 견주어 생각하면 모범공무원상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청백리는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권력조차 국가기강확립을 위해 지조와 기개를 굽히지 않은 채 살다간 다스림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3쪽) ④ 조선시대의 청백리 선별기준을 살펴보면 피선정자의 성품이 청렴함과 결백함이 최우선이었고, 그 외에 절약, 선정, 준법정신을 중심으로 한 수기덕목의 후덕, 경효, 인의, 근검과 치인 덕목인 선정, 충성, 준법성 외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4쪽) ⑤조선시대 청백리에 녹선된 이는 『청고대방』의 경우 220여명이다. 이들은 국가를 위하여 예로부터 공정한 처신과 청렴결백한 삶으로 일관했던 역사 속의 인물이었다. 나라에 국난이 닥쳤을 경우, 생명을 다 바친 위국충신 못지 않게 우리의 정신적 지주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닌 인물중에 인물이 아닐 수 없다. (4쪽) ⑥ 조선 중기에 이르면 충과 효는 애국 · 애민사상으로 확대되어 이른바 사대부 정신 즉 선비정신으로 승화되었다. 이로 하여 멸사봉공, 살신성인 사상에 의

해 학처럼 살았던 청백리와 은둔처사, 송백처럼 지절을 돋보인 열사, 의사들이 속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처럼 멸사봉공 충의정신에 고귀함을 일생동안 몸소 실행에 옮겼던 인물이 곧, 청백리라고 사서에 규정짓고 있는 것이다.

그 후로 선인들을 후세에 길이 빛내기 위하여 그들의 행적을 책으로 엮은 것이 고려시대『廉吏傳』과 조선시대『淸白吏錄』을 들 수 있다. (2쪽)

필자는 1~4쪽에 걸쳐 많은 양을 할애하여 청백리와 청백리정신을 설명하고 있다. 필자가 제시한 내용을 평자 나름대로 그 핵심적 덕목을 정리하면 실천성, 은둔성, 정직성, 충성심, 준법성, 청렴성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그렇더라도 본 논문이 한 편의 논문으로서 성립되려면, 일단 청렴성을 상위개념으로 설정한 다음 여타 덕목과의 상관성을 설명하여 논리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갖추어야 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체계성을 결여한 채 단순히 나열하였기 때문에 독자로 하여금 개념적 혼란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을 것 같다. 일례로 위에서 제시한 덕목에 근거하여 어떤 특정 사람을 두고 한 마디로 <청백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반문한다면 위의 설명만으로는 명료한 대답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위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인물, 즉 충신, 공신, 열사, 의사, 은사 등이 모두 청백리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필자가 본 논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산의 율기6조 5항 즉 <절용>부분 - "훌륭한 목민관은 반드시 인자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자하게 하려는 사람은 청렴결백하지 않을 수 없고, 청렴결백하게 하려는 사람은 검약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목민관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덕목은 절용인 것이다."(논자가 의역한 것임) 이와 같이 절용으로 청렴결백을 도출하고 청백리의 개념을 정의하여 여타 덕목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더라면 필자의 논지가 훨씬 돋보였을 것이다.

평자라면 管子의 四維(禮·義·廉·恥)를 가지고 청백리와 청백리정신을 설명했을 것 같다. 그 관자가 언급한 원문을 여기에 옮기면 다음과 같다. "國有四維 : 一維絶則傾, 二維絶則危, 三維絶則覆, 四維絶則滅."이라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예의염치 네 가지 덕목 중에서 어느 하나가 부족하여도 국가·사회는 불안정한 현상을 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사유를 관계적 측면에서 보면 "羞恥心은 행위의 動機(정감적 표현), 淸廉性은 행위의 指向(의지적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염><치> 양자는 심리적 작용이라 하여도 무방할 것 같고, "禮는 행위의 表現(적법성의 판단), 義는 행위의 實踐(실현의 결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의> 양자는 행위적 준칙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하여도 청백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청렴성 측면에서 기타 三維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廉無禮則傷, 廉無

義則名, 廉無恥則汚."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퇴선정자는 합정성에 근거하여 합리성과 합법성으로 관료생활을 일관하였는지가 선정 기준의 최대 관권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선정 기준에 적합한 인물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었다. 조선조 500년 역사 인물 속에서 청백리로서 공인 받는 이가 200여 명에 불과한 사실에서 우리는 엄정성을 알 수 있다.

Ⅳ

특히 남의 글을 인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그 원문에 오류가 없는가 재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절대성을 인정해야 한다. 만약 인용문을 맹목적으로 초록하다보면 끝없는 오류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필자가 인용하고 있는 이서행, 「朝鮮朝淸白吏의 公職倫理에 관한 硏究」 24쪽에서 "儒敎의 性理學 理念은 爲人文學(治人), 爲己之學(修己)....의 실천을 강조하였다."로 서술된 내용중의 '爲人文學'은 '爲己之學'의 오타임 첫 같은데, 필자는 잘못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논평자로 하여금 오류의 오류가 사실인 것처럼 착각이 일어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비록 작은 문제이지만, 그대로 넘길 수 없는 부분이다. 평자가 이 문단에 이르러 문법적으로나 내용상으로 석연치 않아 이서행 교수 논문의 원문을 대조해 본 결과 필자가 인용한 그대로 인쇄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어」, 「맹자」, 「주자어류」 등 동양 고전을 뒤지면서 그 내용이 오타임을 확인하는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비되었음을 첨언해 두며, 또한 원문 없이 번역시만을 인용할 경우 작자의 진의를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다는 점도 부언해 둔다. 일례로 필자가 정다산의 율기6조를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善爲牧者必慈'를 '목민을 잘하는 자는 반드시 인자하다'로 번역하였으며, '欲廉者必約'을 '청렴결백하게 하려는 자는 반드시 검약하니'로 번역하고 있다. 논자라면 <必>을 당위적 입장에서 '반드시.....해야 한다'로 번역했을 것 같다. 즉 훌륭한 목민관은 반드시 자애로워야 한다'로, 그리고 '깨끗하려면 반드시 절약해야 한다.'로 해석하였을 것이다. 원문이 있음에도 해석상의 차이는 물가분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원문조차 없는 번역시는 평자로 하여금 난해한 부분 앞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로은 선생이 지은 시구 중에 '제주 없는 이 몸 뛰어난 글 밝힌 제자 반나 / 당대 제일 가는 사람이 되리로다.'에서 자신을 제일 가는 사람으로 지칭한 것인지 금제한 친구의 이들을 두고 한 말인지 모호한 부분이 있다. 원문을 삽입하여 독자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추가해 주었으면 한다.

「星川 李之直의 淸白吏 精神」 약정토론

정은경 (대전고교/한국사)

이 논문은 성남지역에 청백리로 길이 숭상될 수 있는 인물을 조명함으로써 그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자 하는 매우 의의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내세운 조선시대에 실시된 청백리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청백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실정이 아니다. 청백리의 개인별 연구는 물론, 각 지방별 연구성과가 축적되어야 그 역사적 실체가 밝혀지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성남지역의 청백리 연구는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즉 성남지역에서 청백리로 불리워진 인물로 14명을 밝혀내고, 이 가운데 특히 대표적 청백리인 이지직과 남이흥의 행적과 정신을 탐구하여 자랑스런 우리의 선조로 다시 한 번 자리매김해준 것이다.

다만 이 논문에서 아쉬운 몇 가지를 지적함으로써 약정토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역사를 다룰 때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바로 객관성을 담보해야 하는 것이다. 주관적 입장에서 인물평을 할 경우 진정한 역사상을 드러내기 힘들며, 역사연구의 현재적 효용가치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연구목적과 상반된 사료는 간과되기 쉽다. 이 논문은 오늘날 개인주의 비인간화, 물질적 향락추구의 도덕적 타락상을 보이는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역사상 청백리로 선정된 성남지역의 인물들을 고찰해본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칫 조선시대 청백리 제도의 긍정적 면만이 부각되지 않았나 여겨진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있어서 청백리제도가 정례화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우선 청백리 선발근거가 구체적 증빙자료가 아니라 보고 듣는 견문이나 추천이어서 선발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논란이 매번 선정과정에서 야기되곤 하였다. 또한 청렴한 직무수행을 권장하기 위해 시행된 청백리제도가 때론 이를세우기 좋아하는 사람의 행동으로서 남의 비웃음을 사는 일로 치부되기도 하였다. 심지어 실학자 유수원은 청백리를 선발하는 것은 근거없는 정치이며 허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하는 등, 청백리제도는 실시과정에서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성남지역 14명의 청백리의 경우도 이처럼 실제 청백리로 선정하는 과정의 허점을 감안하여 여러 측면에서 재고찰하여야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로 개인적 차원의 청백리정신의 감상적 고찰보다는 그 시대 정치세력 변동이나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청백리정신을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묘역이 성남시에 위치한 청백리의 고찰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겠으나, 성남지역(넓은 범주의 광주부) 역대 목민관들의 청백리 실태를 추적해보면 우리가 거주하는 성남시의 지역적 특성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1899년에 광주부에서 만들어 올린 읍지인 『広州府邑誌』[49]에는 광주부에 부임한 지방관들의 명단인 선생안이 실려있다. 이는 1871년에 편찬된 『広州府邑誌』[50]와 달리 간지와 도임, 체임 연월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개인별 자료들을 찾아 보안한다면 충분히 성남지역 지방관들의 통치양상이 제대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다른 지역과의 청백리 실태를 상호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자료의 문제이다. 소설가의 시각대로 각색된 『남한산성』이란 소설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남이흥장군의 충정을 대변하거나 2차 사료의 인용은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므로, 1차 사료의 발굴 노력이 보다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문학작품이 그 인물의 성품이나 가치관을 밝혀내기에 좋은 분석대상이나, 이 논문의 주제가 청백리 정신이므로 그 인물의 관직생활에서 청백리 정신을 구체적으로 추적해보아야 한다. 성남지역을 대표할 만한 인물로 선정된 이들이 과연 청백리에 해당되는지의 명백한 타당성이 입증되었을 때에 이 연구의 의의가 살아나리라 여겨진다. 각 인물들의 청렴성을 검증해 내는 세밀한 작업이 이루어지기에는 자료의 부족이란 결정적 한계가 있기는 하나,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문헌자료를 최대한 활성화시킨다면 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이지직과 남이흥의 행적을 일견해 보도록 하자.

실록에서 이지직에 관한 기록의 건수는 태종 1년 1월 갑신부터 예종 즉위년에 이르기까지 30여 개에 이른다. 여기에서 나타난 이지직의 관직생활을 통해 그의 곧고 청렴한 성품을 잘 알 수 있다. 태종 2년에 이지직은 내서사인(內書舍人)이란 간관의 직책에 있었다. 이 때 좌정언 전가식(田可植)과 더

49) 『広州府邑誌』, 古915 · 12-G994b, 『京畿道邑誌』 1, 서울대 규장각 편에 수록.
50) 『広州府邑誌』, 奎 12180.

불어 국사를 논한 상소를 임금에게 올리는데, 그 중에 "그러하오나 전하께서는 아름다운 옷을 입으시기를 매우 좋아하여 제도를 따르지 아니하시고, 대간의 말이 어쩌다가 뜻에 거슬리면 엄하게 견책을 가하시며, 매와 개를 좋아하고 성색을 즐겨 하심이 아직도 여전하십니다"[51]라고 직간하였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사헌부에서 삼원(三員)을 갖추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탄핵하였고, 이어 거짓으로 임금의 과실을 말하여 사책(史冊)에 쓰게 하였다는 이유로 국문해야 한다는 사헌부와 의정부 상소가 연일 빗발쳤다. 이에 결국 이지직은 천가식과 더불어 파면당하였을 뿐 아니라, 망언 과실의 죄로 국문까지 받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이지직은 '나는 직언하여 꺼리지 않았을 뿐입니다'[52]라고 하여 자신의 곧은 성품을 이실히 드러내었다.

이 사건은 당시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여 바로잡는 직책이었던 간관의 상소로 인한 것이었기에, 그 후 간관의 권한과 역할이 조정 관료들의 커다란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태종대에 이어 세종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되곤 했다.[53] 이렇듯 당시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이 사건에서 곧고 청렴한 성품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직책에 충실했던 이지직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이러한 업적의 결과로 이지직의 자손은 채용되어 당상관에 이르는 혜택을 누렸다.[54]

또한 이 논문에서는 충장공 남이흥에 관하여 청백리로서의 업적을 고찰하기보다는 정묘호란에서 어떻게 순국하였는지의 충절을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남이흥의 청백리 정신에 합당한 사례 추적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았을까 싶다. 조선왕조실록에서 남이흥의 기록은 선종 37년부터 현종 9년까지 모두 99개에 이르기 때문에, 다행히 여타 인물보다는 자료가 다소 있는 셈이다.

그 기록 중에서 몇 가지 사례를 잠시 살펴보자.

> 황해도 안문여사 이지완(李志完)이 아뢰기를 - -(중략)- - 장연현감 남이흥은 나이 젊은 武夫로서 마음을 가다듬어 백성들을 다스리므로 치적이 퍽 소문났습니다.[55]

> 황해도 암행어사 윤효선(尹孝先)이 아뢰기를 - -(중략)- - 장연현감 남이흥은 세

51) 『조선왕조실록』, 4월 계축조.
52) 『조선왕조실록』, 태종 2년 5월 계사조.
53) 『조선왕조실록』, 태종 2년 6월 경진조:7월 신축조:10년 3월 갑자조:세종 1년 3월 기사조:5월 을축조; 병인조; 4년 4월 임인조; 31년 1월 경자조; 정미조.
54) 『조선왕조실록』, 세종 31년 1월 경자조.
55) 『조선왕조실록』 선조 38년 4월 경오조.

스스로 재능이 있다고 여기고 외람된 일을 마구 저지르는가 하면 또 조사의 사행을 구실로 백성들에게 징수하는 것이 매우 번다하였습니다.[56]

위 기록에서 장연현감으로 재직할 당시 남이흥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 상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고를 올린 인물들의 정치활동 분석이나 시대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이 상반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에도 광해군 8년 공홍병사로 재직중이던 남이흥은 또 한번 불미스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결국 공홍감사의 조사를 받은 끝에 남이흥은 체차되고 만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광해군의 태도이다. 남이흥의 죄를 조사해서 파직시키고 더 나아가 국문까지 해야한다며 사간원에서 광해군 8년 9월 9일부터 10월 8일까지 9번에 걸친 끈질긴 요청이 있었지만, 광해군은 끝내 체차시키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지었다.[57] 또한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광해군 9년에 남이흥이 정상 우병사를 재직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광해군이 평소 남이흥을 신임하였음을 잘 알 수 있다. 이후 남이흥은 이괄의 난을 토벌하는 데에 커다란 공훈을 세우고, 특히 정묘호란 때 안주에서 장렬하게 전사함으로써 진무공신 1등에 봉해졌다.

이처럼 남이흥은 정묘호란 이전에도 평소 자신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여 인망을 얻고 있었고, 그것은 "지위와 인망으로 따진다면 남이흥을 써야 한다"[58]는 신흠의 경안병사 천거사유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끝으로 청백리 이지직의 시(詩) 분석과 남이흥의 여러 자료를 섭렵함으로써 오늘날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청렴결백한 삶의 타당성을 제인식시켜주고, 성남지역의 청백리 인물에 관한 진반적인 고찰을 시도함으로써 후학의 방향을 제시해준 노고에 감사드린다.

56) 「조선왕조실록」 선조 39년 3월 을해조.
57) 「조선왕조실록」 광해군 8년 9월 정축조; 무인조; 경신조; 10월 경자조; 신축조; 임인조; 계묘조; 갑진조; 을사조.
58) 「조선왕조실록」 인조 2년 7월 계유조.

주제 발표 논문 3

청백리 이병태(李秉泰)의 청치철학과 공직윤리

주제발표 : 지교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명예교수/동양철학사상)
약정토론 : 전보삼 (신구대학/윤리학)
약정토론 : 서승갑 (경원대학교/역사학)

청백리 이병태(李秉泰)의 정치철학과 공직윤리

지교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명예교수/동양철학사상)

<차 례>

Ⅰ. 서론
Ⅱ. 이병태의 가계와 정치적 배경
1. 이병태의 가계와 품격
2. 공직생활의 정치적 배경
Ⅲ. 정치철학의 구현
1. 진미재소
2. 건극책
3. 균민책
Ⅳ. 공직윤리와 청백리상
Ⅴ. 맺는말

Ⅰ. 머리말

생각해 보면 오늘날처럼 공직자의 윤리가 강조되고 청백리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도 많지 않을 것 같다. 그것은 공직자의 부정부패행위를 규제하는 여러 가지 법률과 감령이 제정되고 정부의 전담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부정부패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945년 8월 15일 조국 광복 이후 너무나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 공직자상을 보면서 실망과 좌절과 울분을 느껴 온 국민의 뇌리에서는 언제나 지난날의 역사에 기록된 이른 바 "청백리상"을 그려 왔다. 일찍이 고구려·백제·신라를 거쳐 고려조·조선조의 기나긴 역사를 통하여 만인이 우러러보던 청백리상은 이제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그들의 넋은 산산이 흩어지고 만 것인지 자못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우리의 전통사회는 군주정치체제의 사회이고 군주정치의 이상은 이른바

왕도사상의 실현이며, 관료는 군주를 도와 보국안민(保國安民)의 도리를 수행하는 공직자이었다. 그러므로 관료는 자신의 영달이나 안락을 생각하기보다는 국리민복을 먼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때때로 자기희생이 뒤따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도의 실현이나 보국안민을 망각하고 자신의 영달이나 탐욕을 일삼아 장리(贓吏)나 오리(汚吏)나 혹리(酷吏)나 간신으로 타락하거나 관료생활에서 물러나서는 유속(流俗)에 물들어 안주하는 이른바 향원(鄕愿)으로 전락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이다. 여기서 전통시대의 청백리정신을 현대적으로 조명하여 청백리정신을 오늘에 되새기 현대적 청백리상을 정립해야 할 당위적 요청이 자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역사적 인물 중에서 이 고장 출신으로 추앙을 받는 청백리 이병태(李秉泰, 1688-1733)의 시대적·정치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는 자신의 정치철학을 어떻게 구현하고자 하였는가를 문헌을 통하여 고찰하고 나아가 그가 실천한 공직윤리의 실체를 밝힘으로써 전통사회의 청백리상의 진면목을 파악코자 한다.

Ⅱ. 이병태의 가계와 정치적 배경

1. 이병태의 가계와 관직

이병태는 목은(牧隱) 이색(李穡, 文靖 1328-1396)의 후예로서 호는 동산(東山)이요 자는 유안(幼安)이요 시호는 문청(文淸)이다. 이병태의 가계를 직계로 소급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병태(秉泰, 문청공, 증 이조판서, 19세) - 협(浹, 증 이조판서, 18세) - 점룡(玷龍, 증 가선대부, 17세) - 제(穧, 증 가선대부, 16세) - 경류(慶流, 증 통정대부, 15세) - 증(增, 의간공, 아천군, 대광보국숭록대부, 14세) - 지숙(之菽, 한평군, 증 순충보조공신정헌대부, 13세) - 질(秩, 한성군, 관 부사가선대부, 12세) - 장윤(長潤, 한원군, 증 정헌대부, 11세) - 우(堣, 한산군, 증 가선대부, 10세) - 계진(季眞, 문열공, 한성부원군, 증 대광보국숭록대부, 9세) - 종성(種善, 양경공, 한산부원군, 증 순충적덕병의보조공신대광보국숭록대부, 8세) - 색(穡, 牧隱, 증 문정공, 한산부원군, 고려조 관 추충보절동덕찬화보리공신벽상삼한삼중대광문하시중, 7세) - 곡(穀, 稼亭, 문효공, 고려조 관 광정대부, 6세) - 자성(自成, 고려조 추증 광정대부, 5세) - 창세(昌世, 관추봉 봉익대부, 4세) - 효진(孝進, 관 봉헌대부, 3세) - 인간(仁幹, 관 정조호장, 2세) - 이윤경(李允卿, 관 권지호장, 시조).[50]

50) 이학구, 『한산이씨한평군파세보』 권2, 서울, 한산이씨한평군파세보소, 2000, pp.1-169 참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병태는 고려조의 호장 윤경(允卿)을 시조로 하여 잠신(晉紳)이 대대로 이어 내려온 한산이씨(韓山李氏)의 제19세손이다. 그는 1688년(무진, 숙종 14)에 진사 이협(李浹)과 청주한씨 (한성좌군 한제유(韓濟愈)의 딸)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자질이 청수하고 성품이 화창하였다. 어렸을 때 처음 『사기』를 수학하다가 범팽(范韸, 후한의 명사로 환관의 미움을 받아 억울하게 살해 당함)이 어머니를 사별하고 아들을 결별한 대목에 이르러 눈물을 주루루 흘렸으므로 외숙 한영조(韓永祚)가 '어질고 효성스러운 사람' 이라고 하였다. 그의 학문은 일찍이 성취하고 자라면서 명성이 높아졌다. 그가 1715년(을미)에 진사가 되고 1717년(정유)에 사릉참봉이 되었다가 1720년(경자)에 평시서봉사로 있을 때 딸먹이는 사람(騙直)을 쓰지 아니하고 2년간을 평시서에 저축해 두었다가 내자시직장(內資寺直長)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때 저축해 두었던 돈을 자신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하지 아니하고 서료(署僚)들로 하여금 시인(市人)에게 지급하게 하였는데 시인은 관청 창고에 맡아 두게 하였다. 그의 청렴한 정신은 이때부터 분명히 드러났다.[60] 그는 1723년(계묘, 경종 3)에 문과에 합격하여 1725년(을사, 영조 1)부터 주로 조정의 청요직(淸要職)에서 관료생활에 헌신하다가 1733년(계축, 영조9)에 서거하여 1796년(병진, 정조 20)에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청백리로 추천되었으며, 묘소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한산이씨세장지(韓山李氏世葬地, 原州 奚馬 癸坐之原)에 있다. 저서로는 『동산선생주의』(東山先生奏議)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권(御製陽祭文, 陽祭文) 권1(經筵日記), 권2(경연일기), 권3(경연일기), 권4(경연일기), 권5(疏箚 24편, 啓辭 2편), 권6(策問 2편), 권7(詩 9수, 書 58편), 권8(서 53편, 祭文 4편), 권9(遺事 외 5편), 권10(輓詞 三州 李錦 외 45인, 합천청백사상량문, 청백사봉안제문, 청백사향사축문, 합천해인사추사비, 합천청백사유지불망비명, 謚話, 청백리천, 시호망, 평시서사목).

『조선왕조실록』(『영조실록』 『정조실록』 『순조실록』)에 기록된 이병태의 공직생활은 1725년(을사, 영조1) 1월 29일 병조좌랑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곧 이어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사서(司書 1725), 사간원 정언(正言 1725), 세자시강원 문학(文學 1725)을 거쳐, 도당록(都堂錄, 이조록, 도당은 의정부의 별칭)에 회권(會圈)으로 뽑히고, 홍문관 부수찬(副修撰 1725), 교리(校理 1725), 이조좌랑(吏曹佐郎 1725), 경연 검토관(檢討官 1725), 홍문관 부교리(副校理 1726), 사간원 헌납(獻納 1725), 경연 시독관(侍讀官 1725), 홍문관 부응교(副應敎 1726), 응교(應敎 1726), 사헌부 집의(執義 1726), 사간원

60) 이학구, 「한산이씨한림군파세보」 권1, p.55 참조.

사간(司諫 1726), 중학교수(中學敎授 1726), 승정원 승지(承旨 1726), 홍문관 부제학(副提學 1727, 1729), 예조참의(禮曹參議 1728), 이조참의(吏曹參議 1728), 사간원 대사간(大司諫 1729), 성균관 대사성(大司成 1729),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1730), 함천군수(陜川郡守 1731) 등을 역임하다가[61] 1733년(계축, 영조 9)에 서거하였다. 그 후 1796년(병진, 정조 20) 4월에는 육조(六曹)에서 추천하는 청백리에 천거되고 5월에는 판서 윤용(尹容), 판돈령부사(判敦寧府事) 정형복(鄭亨復), 좌윤 한덕필(韓德弼), 절도사 허정(許晶)등과 함께 청백리로 선발되었다. 1808년(무진, 순조 8) 5월에는 사유(賜諭)의 명이 내리고 역명(易名, 賜謚)의 은전이 허락되어 1811년(신미, 순조 11) 6월에는 문청(文淸)이라는 시호를 받았다.[62]

이제 그가 공직에 종사하였던 시기의 정치적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2. 공직생활의 정치적 배경

청백리 이병태의 성장기에 해당하는 숙종조를 살펴보면 정치적으로는 소위 법열정치(閥閱政治)가 자리를 굳히가고 당쟁이 심화되던 시기였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숙종은 세자책봉(균, 후의 경종) 문제를 가지고 환비교체와 옥사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당인들을 농단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즉, 1689년(숙종 15) 소위 기사환국(己巳換局)[63] 이후 노론이 몰락하고 갑술환국[64]으로 소론이 득의하다가도 다시 1716년(숙종 42) 병신처분(丙申處分)으로 노론정권이 들어서는 격변기에 진사시에 합격하여 사릉참봉으로 벼슬길에 올랐다. 그가 문과에 급제한 1723년(경종 3)은 이미 신임사화(辛壬士禍, 신축 임인 1721-1722년, 경종 1-2)[65]로 노론정권이 완전히 무너지고 소론정권이 들

61) 그러나 성균관대사성, 이조참의, 경상도관찰사, 승정원우부승지 등은 취임하지 않고 사임한 것으로 전한다. 조선총독부중추원 『조선인명사서』, 조선총독부중추원 1937 p.530 참조.

62) 「영조실록」 | 「조선왕조실록」 41집 pp. 488, 476, 485, 530, 534, 534, 536, 542, 543, 544, 550, 551, 556, 563, 569, 571, 574, 582, 584, 587, 587, 597, 598, 601, 604, 606, 607, 619, 625, | 「조선왕조실록」 42집 pp. 82, 85, 195, 149, 150, 204, 243 「정조실록」 | 「조선왕조실록」 46집 pp. 647, 650, 「순조실록」 | 「조선왕조실록」 47집 pp. 519, 602, 696 참조. 재차 입법된 관직은 본문에서 생략하고 참고할만한 「조선왕조실록」의 근거는 모두 밝혔음. p.534와 587이 중복된 것은 2종의 관직이 기록되어 있음을 말함.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동국문화사, 단기4290(1957). 「조선왕조실록」 외에 이학구 「한산이씨한원군파세보」 권2, 서울, 한산이씨한원군파세보소 2000, pp.169-169의 관직과, 같은 책 권1 「문청공신도비명」에 소개된 관직의 기록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음. '청백리의 선정방식과 대우'에 대하여는 이서행, 『청백리정신과 공직윤리』, 서울, 민간사업 1990 pp.86~93 참조.

63) 소의 장씨의 아들을 세자로 삼으려는 숙종에 반대한 송시열 등 서인이 이를 저지하는 남인에게 폐하고, 정권이 서인에서 남인으로 넘어간 일을 가리킴.

64) 1694년(숙종 20) 소론의 김춘택(金春澤)등이 숙종의 폐비 민씨의 복위운동을 일으키자 이를 계기로 남인의 민암(閔黯)등이 소론 일파를 제거하려다 실패하여 화를 당한 사건을 가리킴.

65) 경종 1년 노론의 김창집 이건명 이이명 조태채 등의 주장으로 왕비 연잉군(후의 영조)을 세제로 책봉하게 되자 소론의 조태구 유봉휘 등이 반대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노론 4대신을 역모로 몰아 극형을 당하게 하고 집권하였다가 연잉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자 다시 소론 일파들이

어선 시기였다. 따라서 그가 문과에 합격하자마자 관로에 들어서지 못한 것은 특별한 정치적 권력의 배경이 없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영조는 노론측의 추대를 받았으나 당계를 철감한 그는 탕평을 명분으로 소론 온건파의 정권을 유지하다가 1725년(영조 1) 을사환국을 단행하여 노론의 기용과 신임사화에 희생된 노론 관료의 명예회복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노론측은 영조가 탕평책을 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66] 소론에게 당한 참화를 보복하려하자 영조는 부득이 1727년(영조 3) 소위 정미환국[67]을 단행하여 소론정국을 마련하였다. 이때에 소론의 집권하면서 조문명(趙文命) 송인명(宋寅明) 조현명(趙顯命) 정석삼 등 탕평론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듬해인 1728년 영조의 왕권계승에 불만을 품은 일부 소론과 남인계열이 합세하여 무신란(戊申亂)[68]을 일으켰다.

영조초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버슬길에 오른 이병태가 청요직에 있으면서 과연 소론과 관료가 제창하고 있는 탕평책에 동조하여 그 타당성을 추구할 만큼 당색의 입장을 초월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이나 환경이 허락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자아내게 된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탕평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고 내심으로만 반대하거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

축출되고 참살을 당한 사건을 가리킴.

66) 탕평론과 탕평책이 대두한 배경으로는 이른바 병열정치(竝列政治)와 관련된 붕당정치를 배제할 수 없다. 조선조의 관료사회가 동인과 서인으로 분당된 초기에는 동인이 득세하여 서인을 압도하였는데 동인에는 대체로 이황(李滉, 1501~1570)과 조식(曺植, 1501~1572)의 문인이 많고 서인에는 이이(李珥, 1536~1584)파 성혼(成渾, 1535~1598)의 계통이 많아서 당자의 대립은 학파의 대립과 밀접한 관계가 생겼다. 그러나 서인 정철(鄭澈, 1536~1593)의 건저의사건(建儲議事件, 1591년 왕세자 책봉 문제로 동서분당 사이에 일어난 득사사건)을 전후하여 동인은 서인에 대한 감정과 온건파로 나뉘어 남인과 북인의 대립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대립도 학파의 계열로 보면 이황의 문인과 조식의 문인과의 대립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세력이 강해진 북인이 광해군(1608~1623)을 추대하였기 때문에 광해군 재위 기간에는 북인이 정권을 전담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15년 후에는 서인이 광해군을 폐하고 인조를 옹립하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특히 효종(1649~1659)조에는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등용되면서 서인의 정치적 기반은 한층 굳게 되었다. 서인은 기사 남인의 도전을 받기도 하였으나 오랜 동안 정권을 장악하였고, 숙종조에 서인이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노론과 윤증(尹拯, 1629~1711)을 중심으로 한 소론으로 나뉜 후로는 송시열 계통의 노론이 주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와한 장기집권의 병열한 정치의 실권을 독점하고 때로는 무절수단으로 지세를 과거에 감격시켜 권력을 세습시키기도 하였다. 병열정치에 관하여는 이기백 「한국사신론」 개정증판, 서울, 일조각, 1987, pp.263~265참조.

67) 왕의 초년에는 소론 일파가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왕은 항상 당쟁의 폐해를 우려하여 조정을 복하고 인했으므로 당파심이 강한 자는 배거하고자 하였다. 때마침 노론파의 이의연(李義淵)이 상소하여 물의를 일으키자 그를 무해하고 이어 소론파의 김일경(金一鏡) 목호룡(睦虎龍)을 친히 심문한 결과 김창집 등이 희생된 신임(辛壬, 신축 임인,1721~1722)의 옥사가 김일경 목호룡 등의 날조한 허위 상소로 일어난 사실이 밝혀져 왕은 임인을 처형하고 이광좌 등을 유배하는 한편 노론의 참호(斬戶) 민진원 등을 기용하여, 김창집 등의 관작을 추복하였다. 이리하여 노론이 요직을 차지하였으나 그들에게 정권을 오래 맡기지 않고 그들을 추방하는 한편 소론의 이광좌, 조태억 등을 기용한 일련의 사건을 가리킴.

68) 김일경의 여당 이인좌(李麟佐) 등이 밀풍군(密豊君) 탄(坦, 소현세자의 증손)을 추대하여 변란을 일으킨 사건을 가리킴. 이인좌의 난이라고 부름.

를 유지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69]

영조(1724~1776)가 표방하고 정조(1776~1800)가 계승한 탕평책은 노론과 소론을 비롯한 어떤 당색의 인물이라도 고루 등용하자는 것이었다. 영조는 즉위하자 당쟁의 폐해를 통언하는 동시에 탕평의 정신을 하교하고[70] 그 후 이어서 노론의 거두 민진원(閔鎭遠, 1664~1736)과 소론의 거두 이광좌(李光佐, 1674~1740)를 불러 화목을 권하고(1730, 영조 6), 탕평책을 반대하는 호조참의 이병태와 설서 유최기(兪最基, 1689~1768)를 몰아내고 유생들의 당론을 금하였으며, 또한 1742년(영조 18)에는 성균관 입구 반수교(泮水橋)에 탕평비를 세우게 하였다. 탕평비문 '주이불비내군자지공심(周而弗比乃君子之公心) 비이불주식소인지사의(比而弗周寔小人之私意)' 의 요지는, '선비들은 마땅히 편당을 초월하는 공심을 가져야 한다' 는 것이었다. 이 결과로 당쟁은 비교적 잠잠해지고 양반들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져서 왕권도 그 권위가 크게 신장되었다. 그러나 탕평책은 당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는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작을 바라는 양반의 수를 더욱 증가시키는 결과를 빚었

69) 탕평책은 곧 탕평론에 따른 것이고 탕평론은 『서경』 의 탕평사상에 근거한 것이다. 탕평이라는 말은 『서경』 과 『춘추좌씨전』 에서 그 연원을 찾아 볼 수 있다. 『서경』 의 「주서」 〈홍범〉 편에는 '무편무피 왕왕지의(無偏無陂 遵王之義) 무유작호 준왕지도(無有作好 遵王之道) 무유작악 준왕지로(無有作惡 遵王之路). 무편무당 왕도탕탕(無偏無黨 王道蕩蕩) 무당무편 왕도평평(無黨無偏 王道平平) 무반무측 왕도정직(無反無側 王道正直) 회기유극 귀기유극(會其有極 歸其有極)'이라고 하였다. 편피호오(偏陂好惡)는 마음속에서 사사로움이 생기는 것이오, 편당반측(偏黨反側)은 사물을 접촉하는 데서 사사로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사리에 어긋나는 것(不中), 공평하지 않은 것(不平), 공변되지 않은 것(黨), 정상적인 일에 어긋나는 것(反), 사사로운 욕심 따위는 모두 군주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삼가고 피하면 군왕중대지리(君王蕩大之理)에 도달하여 왕도(王道, 王義, 王路)가 공평하고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기』 에 따르면 「홍범」 편은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은(殷)나라를 멸망시키고 기자(箕子)를 찾아가 천도(天道)를 물었을 때 무왕에게 말해 준 것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하(夏)나라 우왕(禹王)의 가르침을 기자가 추연술익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탕평사상은 기자가 무왕에게 왕도의 지혜를 가르쳐 준 것이며, 합식적으로는 가언적 또는 선언적 명법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정언적 명법의 성격이 짙다. 요약하면 사리사욕을 버리고 '왕도를 실천하라' 는 것이다.

위와 같은 『서경』 의 탕평사상은 『춘추좌전』 에서도 보인다. 즉 양공(襄公) 3년 여름 「공지차진」(公至自晉)의 '전'(傳)에는 기해(祁奚)라는 사람이 늙어서 은퇴하기를 청하므로 진도공(晉悼公)이 적당한 후임자를 물자 자기와는 숙적관계에 있는 해호(解狐)를 추천하였는데 미처 취임하기 전에 해호가 사망하므로 이 번에는 자기의 아들 기오(祁午)를 추천하고, 또 양설직(羊舌職)이 죽자 그의 아들 양설적(羊舌赤)을 추천한 사실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전'은 기해가 후임자를 잘 천거하였다고 찬양하고 자기의 숙적을 천거하였지만 아첨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자식을 천거하였지만 사사로움이 없으며 자기와 관계되는 사람을 천거하였지만 당파를 조성한 것이 아니니 이는 개인이나 당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임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공평무사한 객관적 조건에 맞는 인물을 임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극한 공심으로 정치하는 것이다.

70) 영조는 붕당의 폐단에 대하여 "붕당의 폐단이 요즘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처음에는 사론에 소견을 일으키더니 지금은 한 편 사람을 모조리 역당으로 몰고 있다. … 사람을 임용하는 것이 모두 당목(黨目)에 들어 있는 사람이니 이처럼 하고도 천리의 공에 합하고 세상의 마음을 복종시킬 수 있겠는가. … 신하들은 … 당습을 버리고 공평하기에 힘쓰라" 하고 (『영조실록』 (『조선왕조실록』 41집, p.452) 영조 1년 1월 3일 임인, 참조),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칠 의리와 목인(睦隣)할 도리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혹 당습에 어긋날까 염려하니 이것이 어찌 충효이겠는가. … 탕평하는 것은 공이요 당에 붙드는 것은 사인데 여러 신하들은 공을 하고자 하는가 사를 하고자 하는가" 라고 하였다 (『영조실록』 (『조선왕조실록』 41집 p.465) 영조 1년 1월 21일 경신, 참조).

다. 그리고 장헌세자(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하여 이를 동정하는 시파(時派)와 당연시하는 벽파(辟派)가 생겨나고 시파와 벽파의 분립은 당쟁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하였다.[71]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탕평책이라는 하나의 정책이 절코 지고지선한 정책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다만 노론(서인)의 장기집권에서 오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하나의 대증요법으로서의 조절(調停)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따라서 말단적 대증요법으로서의 탕평책을 초월하는 정치의 이념과 본질에 입각한 차원 높은 정책이 요구될 수 있고, 또한 탕평책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병태가 탕평론을 배척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고찰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영조의 탕평책이 표면적으로 표방되기에 앞서 1721년(경종 1), 부교리(副校理) 조문명(趙文命, 1680~1732)이 붕당의 폐단을 논하여 상소한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조문명의 주장의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다.

> 만약 나라가 병을 얻게 된 근원을 찾아본다면 오로지 붕당이 그것이다. 붕당의 폐해는 다섯 가지가 있으니 시비가 쓰이지 않은 것, 사람을 널리 쓰지 않는 것, 기강이 서지 않는 것, 언로가 열리지 않는 것, 명지가 없어지는 것이다.
>
> 당론(黨論)이 생긴 이래로 같이 옳다고 하는 것은 옳이 그르다하고 옳이 옳다고 하는 것은 같이 그르다 한다. 그 옳다는 데 대해서는 한 가지 좋은 일로 백가지 허물을 가리고 그 그르다는 데 대해서는 하등 것 없는 허물로 큰 덕을 버린다.
>
> 옛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재능에 따라 사람을 썼고 한 가지 급폐에 구애되지 않았다. 그런데 당론이 생긴 이래로 분호를 나누고 갈라 어떤 사람은 등용하고 어떤 사람은 물리나게 하며 이쪽 사람을 들어오게 하고 저쪽 사람을 나가게 한다.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의 현우를 가리지 않고 그의 주장이 자기와 같으냐 다르냐 만을 따진다.
>
> 당론이 생긴 이래로 애증(愛憎)이 편벽되어 사의가 이기게 되고 요행의 문이 열려 공도가 끊어졌으며 상벌이 밝지 못하여 호오(好惡)가 정상을 잃었다. 못사람은 불신하지 못하고 아랫사람은 두려워하는 바가 없다. …… .
>
> 당론이 생긴 이래로 예양이 점점 무너지고 정탈(爭奪)이 풍습을 이루어 모두 진퇴에 관계되기나 득실이 있는 것이라면 가로채 빼앗지 않음이 드물다. 사람들은 더럽듯는을 부라리며 아작같이 굴다가 구하는 것을 못하게 되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엿보며 기회를 노리고 때를 타려 하는데, 이익이 성상의 뜻을 괴동하는 데 있으면 임금의 뜻을 맞추고 이익이 당로를 공격하는 데 있으면 당로를 공격한다. 이익을 위해서는 체면도 빨고 언로도 막는다.
>
> 시비를 억지로 정하자 공의가 막히고, 용사(用捨)가 지나치게 편벽되자 여정이를 등용하는 길이 막혔으며, 기강이 서지 않자 군주의 위엄이 능히 밑에서 펴지지 않고,

71) 이기백, 『한국사신론』 개정증판 서울, 일조각 1987 pp.263~265 참조. 영조대 탕평책의 실상에 대하여는 이희환 『조선후기 당쟁 연구』 국학자료원, 1995, p.251 참조.

> 언로가 열리지 않자 아랫사람의 뜻이 위로 통하지 못했으며, 염치의 절조가 없어지자 한 세상의 풍화가 크게 무너졌다. 이 다섯 가지는 모두 정치를 해치는 큰 좀이자 나라를 병들게 하는 뿌리이다. 그 원인은 사사로움이 빌미가 되는데 이른 바 붕당이란 바로 사의(私意)의 소굴이다.[72]

조문명은 위와 같은 취지에 이어 붕당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표준을 세워야 하고 표준을 세우는 방도는 다만 성학(聖學)을 힘쓰는 데 있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영의정 김창집(金昌集, 1648~1722)은 경연에서 조문명의 상소가 시폐를 소진한 것은 좋으나 별다른 기이한 계책은 없다고 왕에게 아뢰었고 왕도 그대로 시인하였다.[73] 조문명의 이른바 '파붕당론' (破朋黨論)은 영조 1년 10월 5일 연경에서 돌아와 입시하였을 때와, 영조 1년 10월 15일 및 11월 16일의 상소에 이어졌던 바 그에 대한 비판론도 제기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어 붕당의 화가 동인과 서인에서 비롯되어 노론 소론의 명칭이 생겨나고 다시 회니(懷尼)사생(師生)의 논변으로 바뀌었음을 지적하고, 음양과 흑백이 분별함에도 불구하고 시폐가 나라를 그르친 죄를 지적하며 통렬하게 배척하지 못하였으니 제류가 해석하게 여겼다고 부연하였다.[74]

탕평사상의 근본적 취지에서 본다면 영조의 탕평책은 조문명이나 송인명(宋寅明, 1689-1746)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이기는 하지만[75] 여러 당파에서 고루고루 인물을 임용하는 산술적이고 형식적인 인사정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 한다는 한계를 보인다. 산술적인 배분적 인사정책의 시행과정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졸렬한 인재를 부득이하게 임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이것은 오늘날 각계각층의 인사정책에서 경우에 따라 지연적·이념적·학연적·계파적 안배를 공연한 기준으로 하는 것과도 매우 흡사하다. 요컨대 영조의 탕평책은 하나의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조문명의 상소에 관련하여 민진원(閔鎭遠, 1664-1736)이 '다만 옳고 그른 것을 가리지 않고 오직 분당을 타파하는 것으로써 마음을 먹는 것은 잘못된 것' 이라고 한 비판을 간과할 수 없다.[76] 또한 『왕조실록』을 기록한 사관들이 조문명의 이른 바 '파붕당론' (破朋黨論)에 대하여 '만약 붕당을 타파하려 한다면 충신과 역적이 나

72) 『경종실록』 (『조선왕조실록』 41집) 155면, 경종 1년 5월 5일, 을축, 참조. 『경종개수실록』 (『조선왕조실록』 41집) p.343, 경종 1년 5월 5일, 을축, 참조.
73) 위와 같음.
74) 위와 같음. 여기서 말하는 회니사생(懷尼師生)의 논변은 송시열과 윤증이 노소분당에 관한 사유를 상반한 것을 가리킨다.
75) 『영조실록』 (『조선왕조실록』 43집), p.161, 영조 30년 10월 26일, 기사 , 참조.
76) 『영조실록』 (『조선왕조실록』 41집) p. 559, 영조 1년 10월 17일, 신사, 20일, 갑신, 및 같은 책, p.565, 11월 18일 , 임자, 참조.

누어진 까닭을 명백히 조사하여 그 시비가 해와 달처럼 밝게 하여야 할 것이니 그리하면 붕당은 기다리지 않아도 타파될 것이다. … 조문명은 음지에 숨었다가 양지에 나타나면서 군주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다. 붕당은 예로부터 군주들이 싫어하는 것이기에 조문명의 말은 쉽사리 사총(四聰)을 현혹시켜 후일의 무궁한 화근을 만들 것이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평가한 사실은 매우 주목할만하다.[77]

이병태는 시독관(侍讀官)으로 소대(召對)에 나아가 한대·당대·송대의 붕당의 화를 차례로 진달(陳達)하고 "우리나라의 당론은 역대의 그것과 달라 문호가 이미 나뉘어지고 자손이 서로 전하여 수백년에 이르도록 한 사람도 혹 면한 이가 없었으니 대개 주장하는 바가 옳고 높이는 바가 어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의논하는 사이에 자연히 된 것이다. 만약 임금이 먼저 편당(偏黨)으로 본다면 일마다 마음이 얽매이고 말마다 의심스러워 장차 군신의 교제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니 신의 근심하는 바가 여기에 있다" 고 하였다.[78] 그는 조문명과 송인명 등이 숭상부에서 주장하는 탕평책에 대하여 '시비를 밝히지 아니하고 군자와 소인과 충역을 혼동하고 다스리지 아니하니 황극의 도가 아니다.' 라고 하여 벼슬을 거부하였다.[79] 이병태가 탕평책을 찬성하지 않고 반대하다가 유최기와[80] 함께 조정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탕평의 정치철학적 본질을 깊이 인식하고 탕평책의 정책적 한계를 충분히 인식한 행동의 결과라고 평가된다.

Ⅲ. 정치철학의 구현

1. 진비제소

이병태의 정치철학은 소차(疏箚), 계(啓), 책문(策問), 경연일기(經筵日記)를 비롯한 많은 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겠으나[81] 여기서는 우선 그의 「진비

77) 『영조실록』(『조선왕조실록』 41집) p. 558, 영조 1년 10월 15일, 기유, 참조.
78) 『영조실록』(『조선왕조실록』 41집) p.584, 영조 2년 2월 25일, 무자, 참조.
79) 疏소箚, 「文淸公書表」, 이학구, 『한산이씨한평군파세보』, 서울, 한산이씨한평군파세보소 2000, pp.573~578
80) 兪最基는 1723년(경종 3)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벼슬하지 않다가 1726년(영조 2), 설서가 된 이듬해 1727년(영조 3) "옛 신하를 모두 물리쳐버리고 한 쪽 사람만을 등용하면서 '탕평' 이라는 두 글자로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을 삼았다. … 임금은 탕평을 기약하고 있으나 신료들이 주어로 추구하는 것은 오직 붕당에 있다. … 홀연히 신을 정원(政院) 주서(注書)로 충당하여 은연중에 '탕평' 의 한 도움이 되는 것처럼 하였으니 … 세상의 이목을 가리는 것이다. …" 라고 상소하였는데 임금은 "…방자하고 거리낌없음이 어찌 이처럼 심할 수 있는가. … 우선 관직을 삭탈하고 성문 밖으로 추방하라." 고 하였다. 『영조실록』(『조선왕조실록』 41집) p.690, 영조 3년 12월 29일, 경술, 참조.
81) 이병태의 疏箚로는 「乞宣諭錄疏」 을사(1725) 4. 18, 「辭正言兼陳李文協論疏」 을사(1725) 4. 24, 「辭

제소」(陳弭災疏, 을사 1725. 10. 26)를 고찰하기로 한다.

그는 진미제소의 첫머리에서 "겨울이 춥지 않고 날씨가 더워서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은 그 조짐이 상서롭지 못하다는 것이 식자들의 근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지난 밤에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다가 새벽에서야 그친 것은 신하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춘추』(胡氏傳)에서 보더라도 3월의 번개와 우뢰는 나타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만일 나타난다면 그것은 양(陽)이 실절(失節)한 것이라고 하는데 주나라의 3월은 조선의 정월이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고 지적하고, 이어서 "한유(漢儒)가 재이(災異)를 논할 때에는 반드시 천인(天人)을 합하여 말하였으니 이것은 동중서(董仲舒)로부터 비롯되어 많은 학자들이 그러하나 천인감통(天人感通)의 이치는 틀림이 없으므로 재이(災異)를 돌이켜 상서로운 일로 만들려면 선유의 정론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고 하였다.[82] 소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 하늘이 임금을 인애하심은 지극하다. 임금이 실도하여 정사를 그르치면 하늘은 반드시 꾸짖음을 보여 임금이 스스로 반성하여 변이가 곧 경고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고, 이미 경고하여도 임금이 그것을 모르면 하늘은 반드시 괴이한 일을 나타내어 노여움을 알리며, 이미 노여움을 보여도 그것을 모르면 천인(天人) 사이에 상감(相感)하지 않게 되어 난망(亂亡)이 따르게 되니 이것은 같이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전하(殿下)는 재이(災異)가 일어나던 날 지체 없이 스스로의 허물을 인정하는 하교를 통하여 진언지로(進言之路)를 널리 열어 측달(惻怛)을 반복하였으니 능히 재이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이 과연 능히 재이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변고를 만나서 재이(災異)를 우습게 알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른 바 변고를 만나는 것은 이 마음을 보존하여 잊지 말고 건건석척(乾乾夕惕)을 버리지 말고 혹시라도 간절함이 없이 한결같이 하여 재이를 만나는 처음에 하늘의 위노(威怒)를 거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재이가 일어난 것은 역대의 기록에 모두 있지만 오늘날처럼 성신(星辰)이 그 궤도를 잃고 서리와 눈이 그 차례를 잃고, 인요(人妖)와 물괴(物怪)가 거듭하여 많이 일어나는 일은 없었고 청대(靑臺, 관상감)의 상주와 각도의 치문(馳聞)이 잇따르고 근자에 일어난 능침의 화재와 지진은 놀라운 일이다. 이 밖에 수한(水旱) 기

疏」 을사(1725) 7. 27, 「辭吏曹佐郎疏」 을사(1725) 12, 「[illegible]疏」 을사(1725) 10. 18, 「辭司諫兼陳所懷疏」 병오(1726) 8. 8, 「[illegible]」 을사(1725) 11. 9, 수찬 [illegible]과 함께 「再疏」, 「辭副應教疏」 병오(1726) 9. 10. 교리 [illegible] 등 연명, 「辭應教疏」 병오(1726) 10. 10, 「辭副應教疏」 병오(1726) 9, 再疏, 「辭司諫疏」 병오(1726) 8, 「陳弭災疏」 을사(1725) 10. 26, 「辭同副承旨疏」 병오(1726) 10. 26, 「再疏」 (1726) 11, 「三疏」 1726.11.11, 「辭刑曹參議疏」 병오(1726) 12. 26, 「辭副提學疏」 정미(1727) 2. 5, 「[illegible]上疏」 정미(1727) 2. 26, 「[illegible]疏」 무신(1728) 4. 22, 「辭戶曹參議疏」 무신(1728), 「辭戶曹參議陳所懷疏」 무신(1728) 7. 7, 「辭副提學陳所懷疏」 기유(1729), 啓辭로는 「正言避嫌啓」 을사(1725) 3. 24와 4. 10, 「獻納避嫌啓」 을사(1725) 10. 12, 策問으로는 「君民策」과 「[illegible]策」이 있으며 또한 「經筵日記」(권1, 2, 3, 4)가 있다. 이광좌, 『동산선생주의』 1808, 국립서울대 규장각도서 한국본, 古, 3428-324 참조. 『동산선생주의』는 [illegible]발행, 『한산문헌총서』 권2, 서울, 한산문헌총서편찬위원회, 1981, pp.153-327 에 영인본으로 게재되어 있음.

82) 을사(1725) 10월 26일, 「진미제소」, 『동산선생주의』, "伏以[illegible]" 이하 참조. 이정식, 『한산문헌총서』 권2, 한산문헌총서편찬위원회, 1981 pp.242-245 참조.

> 근(饑饉) 여역(癘疫) 찰차(札瘥, 病死)는 가히 민생을 병들게 하고 국세를 기울만한 일인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의 뇌우지변(雷雨之變)에 이르게 한 것이다. 더군다나 근년에 산악이 무너지고 냇물이 고갈하고 재목이 바닥나고 어별(魚鼈)이 변하고 기운이 쇠하고 재물이 탕진되고 정역(征役)이 많아지고 도적이 일어나니 이는 실로 비색하고 크게 어지러운 징후(徵候)요 구구한 재려(災沴)에 견줄 것이 아니요 인심이 이욕에 빠지고 풍속이 사치에 허물어져서 예와 법이 없고 기강이 문란함이니 만회하고 광정할 계책이 없다.83)

그는 위와 같이 지적하고 임금으로서 구체적으로 수관지방(授官之方)에 신중하지 못한 일은 없는지, 용재지도(用財之道)에 절제하지 못한 일은 없는지, 은상(恩賞)을 시행함에 사사로움이 없었는지, 사령(辭令)에 너무 번거로움이 없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수관지방이란 것은 임금이 어세용인(御世用人)하는 수단인데 반드시 그 사람의 재주와 사람됨을 헤아려서 명실에 어긋남이 없어야 아첨하는 자가 없어지고 선비들이 염치의 정조를 지키게 되고 나라가 화태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사로움을 버리는 것이며 이것이 곧 왕도라는 것이다. 용재의 요체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며 비용을 줄이는 근본은 검약을 숭상하는 것이라 하였다. 은상은 임금의 커다란 권세인데 공로를 보상하고 장재권현(奬才勸賢)이 이 은상에 있는데 만일 그것이 남용되면 반드시 폐단이 있으며, 은상으로 인한 요행의 사례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게 되고 분쟁이 그치지 않으며 그 폐해는 염절(廉節)이 점점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며, 임금의 명령은 백관과 만민이 보고 듣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하며 임금의 마음을 신하와 백성들에게 전함에 있어서 광대간중지체(宏大簡重之體)에 결함이 있으면 안 되다는 것이다.

또한 강학명리(講學明理)는 진덕홍업(進德弘業)의 근본인데 신하들이 어전에서 진언하였으나 출눌진부(拙訥陳腐)하여 성심을 계발하지 못하였으며, 격치성정지설(格致誠正之說)만 하더라도 성문성법(聖門成法)과 전현지훈(前賢至訓)이 스스로 있으니 원컨대 임금은 묵구심체(默究深體)하고 맹성(猛省)역행(力行)하여 본원(本源)을 밝게하고 치화(治化)를 방달케 한다면 재이(災異)가 일어나고 폐정이 많은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임금은 이 소차에서 지적한 것에만 국한하지 말고 더욱 넓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84)

---

83) 을사(1725) 10월 26일, 「진미책소」, 『동산선생주의』, "夫皇天之仁愛人君 其亦至矣…" 이하 참조. 이정석, 같은 책, 참조.

84) 을사(1725) 10. 26, 「진미책소」, 『동산선생주의』, "試其中數書者言之 授官之方 有所未擇歟…" 참조. 이정석, 같은 책, 참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동산 이병태는 근년에 일어난 재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고 그 정치철학적 근거를 천인감응설에 두고 있다. 천인감응설은 우선 천인합일사상에 부합한다. 천인합일사상은 유가철학의 기본적인 신념의 하나인 바 사람은 심성의 실천공부를 통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 천인합일의 경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상은 첫째로 인심은 능히 감통하는 주체라는 것, 둘째로 우주는 유정적(有情的)이라는 것, 셋째로 주관과 객관은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유가에서는 만물이 모두 유정하고 유정하면 상감하지 않을 수 없고 상감하면 화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종국은 만물이 서로 화해하는 태화세계(太和世界)라는 것이다. 천인감응설은 사람이 하늘을 본받는다는 것, 하늘과 사람은 덕을 합한다는 것, 사람의 형체는 하늘을 닮았다는 것, 하늘과 사람이 하나의 근본이라는 것, 하늘과 사람이 동심(同心) 동리(同理)라는 것, 천인이 상감한다는 것, 천지와 더불어 사람의 정신이 서로 왕래한다는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사람의 명(命)이 하늘에서 받아진다는 것, 지성(至誠)이라야 진성(盡性)이라는 것, 사람이 천지지심(天地之心)이라는 것, 천인지정(天人之情)은 일체라는 것과 같은 몇가지 논리에 따른 것이다.

천인이 서로 감응한다는 주장은 『상서』 『시경』 『좌전』 『국어』 등에 자주 나타난다.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천인감응설은 한대에 형성된 하나의 기화(氣化)를 중심개념으로 하는 새로운 우주관이다. 이러한 사상은 천의(天意)로 군권을 제재한다는 것과 정사를 감독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의를 가진다. 한대(漢代)의 천인감응설은 천자가 하늘로부터 명을 받고 천하는 천자로부터 명을 받는다는 것, 천자(임금)는 하늘을 본받는다는 것, 천의가 군권을 제재하고 정사를 감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이러한 사상은 당대(唐代)·송대(宋代)·원대(元代)·명대(明代)로 이어졌고 우리나라에도 원대의 유학사상이 고려로 전하고 다시 조선으로 이어져 조선시대의 많은 학자들이 천인감응설을 수용하게 되었다. 천인감응설은 일찍이 왕충(王充, 27-96)과 같은 사상가의 신랄한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거의 무제한한 왕권을 견제하고 인정(仁政)과 덕치를 핵심으로 하는 왕도사상을 실현케 하는 데 크게 활용되었다.[65]

따라서 이병태가 천인감응설을 근거로 「진미재소」를 구성한 것은 당시의

65) 천인감응설에 대한 자료는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유가의 여러 경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국내의 참고문헌으로는 이재봉, 「중국철학에 있어서의 천인합일론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1, pp.43-49 및 지교헌, 「이이의 천인상감론」 『동양철학의 한국사상』 서울, 민족문화 1985. pp.271-289 등이 있다.

유학적 풍조를 편승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정치의 성패가 임금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실에 입각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건극책

이병태의 정치철학은 그의 건극책(建極策)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86] 이것은 기자(箕子)가 "임금이 그 극을 세운다고 하였는데 극을 세운다는 뜻을 상세히 말할 수 있는가. 당우삼대 이후로 성군들 가운데 누가 극을 세우고 누가 극을 세우지 못하였는가. 짐이 왕위에 올라 극을 세워 다스리고 싶지 않음이 아니지만 돌아보건대 덕이 불명하고 도가 서지 않아 백성이 본받을 바가 없다. 조정엔 붕당이 자심하고 탕평의 길이 열리지 않으며, 사방은 습속이 괴벽하여 옹희지화(雍熙之化)가 멀어지고, 위로는 천변이 나타나고 아래로는 백성의 원한이 비등하는 것을 보면 위망(危亡)의 두려움이 있으니 어인 까닭인가. 만일 대본을 세우고 달도를 행하여 세상을 융평하여 황극지의(皇極之義)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려면 어찌하면 좋은가" 라는 취지의 책문에 대하여 논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병태는 "현종대왕이 '건극' 이라는 두 글자를 써 놓고 조석으로 거듭 체인(體認)하여 16년 동안이나 훌륭한 정치를 베풀었고, 숙종대왕이 신하로 하여금 건극잠(建極箴)을 지어 올리게 하여 정치에 힘써서 46년이나 태평지업을 이룩하였으니 주희가 지은 '황극변'(皇極辨)의 뜻이 밝히 드러났다. 극이라는 것은 지극함과 표준을 말하는 것이다. 극은 마치 북극성과 같아서 많은 별들이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금이 위에서 표의(表儀)를 세워 인륜의 지극함과 의리의 공변됨을 다하여 일동일정에 과불급이 없고 일언일사에 치우침이 없어서 백성들이 이에 감동하고 바르게 되어 탕평정치으로 돌아가면 건극지효가 지극할 것이다. 그러나 '극'은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임금의 신심(身心)에 근본이 있으니 마음이 부정하면 공(公)이 사리(私理)를 이기지 못하고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며 정령이 문란하여 대공지정에서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 어찌 위로 극을 세워 아래로 백성의 준칙을 삼을 수 있을까. 그러므로 자고로 황극지의를 논하는 자는 신심으로 근본을 삼지 않는 사람이 없다. 임금이 이를 안다면 또한 힘쓸 바도 알 것이다." 라 하고 이어서 조정의 붕붕비당(朋朋比黨) 을 없애고 천변지이에 대처하려면 스스로를 반성하여 건극해야 한다는

[86] 「건극책」은 「군민책」과 함께 그의 정치철학을 나타내는 책문이다. 책문은 본디 인재(관리)를 선발(임용)할 때 경의(經義)나 정치적 식견을 시문하는 것인데 이 때 응답자의 문장을 특별히 가리켜 대책(對策)이라고 하나 일반적으로 책시(策試)에 대한 문체(文體)를 가리킨다.

것을 주장하였다.[87]

3. 군민책

이병태의 책문 가운데는 「건극책」과 쌍벽을 이루는 「군민책」(君民策)이 있다. 이것은 "임금은 나라에 의지하고 나라는 백성에 의지하는 만큼 민심의 득실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판가름하는 것인데 당우지세(요순시대)에도 또한 민심의 득실이 있었는지 말할 수 있는가. 하(夏)나라 우왕과 상(商)나라 탕왕과 주(周)나라 문왕 무왕이 일어난 것도 요순 이후 백성을 얻어서 왕이 된 것이라면 태강(太康)이 거하(距河)의 변을 당하고 상나라 주(紂)가 도과(倒戈)의 공격을 당하고 여왕(厲王)이 분체(奔彘)의 환란을 당한 것을 보면 백성을 잃음이 그처럼 심하니 그 득실의 분수를 일일이 평가하여 가히 갖추어 경계하도록 할 수 있겠는가.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가 흥하고 망할 때에 반드시 득민하고 실민하였음을 말할 수 있다면 각각 그 내력을 논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태조와 태종이 나라를 세워 안정시키고 세종과 성종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 후에 임병지란(壬丙之亂)과 갑자지변(甲子之變)에도 다시 회복되고 안정된 것은 민심을 얻은 공효이며, 숙종과 경종에 이르러서도 정치가 잘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세금을 줄이려하여도 번중(煩重)을 면할 수 없고, 노역을 고르게 하여 침징지폐(侵徵之弊)를 없애기 어렵고, 해마다 기근이 거듭하고 명홍(鳴鴻)이 모이지 않고 관리들은 탐학하여 인심은 날로 나라를 떠나고 있으니 어찌하면 폐단을 없애고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책문에 응한 것이다.[88]

이에 대하여 이병태는 대략 다음과 같이 대책을 진술하였다.

> 옛날 노나라 애공(哀公)이 주풍(周豊)에게 묻기를 유우씨(有虞氏, 순임금)는 백성에게 신의를 베풀지 않았어도 백성이 믿고 하후씨(夏后氏, 우임금)는 백성에게 공경을 베풀지 않았어도 백성이 공경하였으니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였다. …그 말이 매우 바른 것이 참으로 백세에 임금이 민심을 얻는 근본이다. 유우씨는 광운지덕(廣運之德)이 있으므로 백성으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를 기필하지 않아도 백성이 스스로 믿었고 하우씨는 문명지덕(文命之德)이 있으므로 백성으로 하여금 공경하기를 기약하지 않아

---

87) 「건극책」의 내용은 『書經』 周書 洪範篇의 洪範 九疇에 속하는 다섯번째 '건용황극'에 근거한 것이다. '홍범'은 대법이라는 뜻이며,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하고 기자가 치국안민의 대법을 진술한 것인데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치철학으로 전한다. 홍범9주는 기자의 독창이 아니고 우임금으로부터 전한 것이라고 한다. 宋㒶 주역 『新譯尚書讀本』 臺北, 대만삼민서국 중화민국 72년(1983) 3판 pp.76~87 참조. 책문의 내용은 「건극책」, 『동산선생주의』, "王若曰 箕子曰 皇建其有極 建極之義可詳言之歟…" 이하 참조, 이정석, 같은 책, pp.258~262 참조.

88) 「군민책」, 『동산선생주의』, "王若曰 君依於國 國依於民 民心之得失而 國家之興衰判焉…" 이하 참조, 이정석, 같은 책, pp.253~258 참조.

> 도 백성이 스스로 공경하였다. 진실로 먼저 나의 덕을 극진히 하지 않고 한갓되이 백성으로 하여금 밀계하고 공경하게 하고자 한다면 비록 명서를 시키고 사람을 모아 회유하더라도 백성은 불신 불경하고 반역하고 의심한다. 윗사람은 쓸 데 없이 백성을 걱정하지 말고 마땅히 그 덕을 닦을 따름이다. 효종대왕은 일찍기 하교하여 말하기를 백성의 일에 미쳐서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덕스럽게 하는 뜻이 없지 않았으니 이는 작위(作爲)하는 바가 없으면서 행하는 바를 아는 것이니 참된 성학(聖學)의 요체이다.… 민심의 향배는 임금이 덕을 닦고 닦지 않는 것에 달려 있고 국가가 다스려지고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그에 달려 있으니 그 고동(機)이 심히 두렵다. 한고제는 관대한 덕으로 삼장지법(三章之法)을 베풀어 백성이 기뻐하고, 당태종은 교화지덕으로 4년지인(四年之仁)을 베풀어 백성을 평안히 하고, 송태조는 인후한 덕으로 오계지란(五季之亂)을 소탕하여 백성이 귀의하였으니 이것이 백성을 얻는 까닭이요 나라를 얻는 하닭이다. 그 후로는 덕으로써 백성을 교화하는 것과 힘써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백성을 잔혹하게 하고 백성을 학대하였으니 어찌 백성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으리오. …덕을 닦으면 흥하고 덕을 닦지 않으면 망한다. 원컨대 임금은 옛일을 놓이어 본보기로 삼아 후세의 경계로 삼으라.

그는 이어서 태조·태종·세종·성종의 정치를 예찬하고 선조·인조 때에 일어났던 왜란과 호란과 갑자괄적지변(甲子适賊之變)에 큰 화를 입었으나 머지 않아 기업을 광회(光恢)하였음을 지적하고, 오늘날에는 임금이 세금을 가볍게 하고 요역을 고르게 하려하여도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과, 아울러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고 근심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욱 덕을 닦는 것이 절실함을 강조하였다.[89]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병태가 「군민책」에서 강조한 것은, 민심을 얻는 것은 곧 나라를 얻는 것이며,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덕을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덕을 닦는다는 것은 그가 '명덕신민지극공' (明德新民之極功)을 말한 바와 같이 『대학』의 명명덕을 가리키는 것이다. 명명덕이란 명덕을 밝히는 것인데 명덕이란 사람이 하늘로부터 얻은 것이고 허령불매하여 중리(衆理)를 갖추고 있어서 만사에 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명덕이란 완전무결한 하나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람의 기품(氣稟)에 구애되고 인욕에 가리워져서 때로는 혼미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덕의 본체가 지니는 밝음은 멸추어지거나 훼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기품에 따라 인욕에 가리워지지 않도록 밝히므로써 본래의 명덕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다.[90] 그리고 명덕이란 절코 외부로부터 후천적으로 나에

89) 「군민책」, 『동산선생주의』, "德之修不修民心之向背係焉 而國家之理亂隨之 其機甚可畏也 …" 이하 참조. 이철석, 같은 책, pp.253-258 참조.

90) 이것은 주로 朱熹의 견해이며, 명덕은 '天賦靈明的 德性' 이다. 이것은 王陽明이 말한 '天命之性' 이며, '自然靈昭不昧者' 이다. 金天正 주역, 『大學今註今譯』, 대만, 상무인서관, 중화민국 74년 (1985) 8판, p.3 참조.

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천적으로 나에게 고유하다는 데 중요한 뜻이 있다. 그러므로 임금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명덕을 스스로 밝힘으로써 민심을 얻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가 정치철학의 핵심을 이루는 덕치사상의 철학적 기초이며 왕도사상을 강력히 권고하는 것이다.

Ⅳ. 공직윤리와 청백리상

서론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이병태의 공직생활은 주로 홍문관·사간원·사헌부·승정원·성균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청요직에 속하는 내직이었다가 1730년(경술년)에는 경상도 관찰사로 임명되었으나 곧이어 파직되었고, 1731년(신해년) 정월에는 승정원 승지로 임명되었으나 또한 부임하지 아니하고 임금의 뜻을 거슬린 까닭에 경상도 합천군수로 임명되었다. 군수라는 외직이야 말로 노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자신이 간절히 바라던 바였다.[91]

그가 군수로 부임하였을 때는 거듭하여 흉년이 들었다. 그는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국고를 덜어서 진휼할 양식을 확보한 까닭에 군내에는 굶어 죽거나 형용이 초췌하거나 떠돌면서 걸식하는 자가 없어서 다른 지방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이리하여 진휼을 맡은 관리가 식량이 떨어질까 걱정하여 외인들을 축출하기를 군수에게 진언하였다. 그는 허락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견지에서 보면 외인들도 모두 적자이다" 라고 하여 모두 온전하게 진휼해 주었다. 그리고 합천군에는 해인사(海印寺)가 있어서 부역(賦役)이 심히 번거로웠는데 그가 부임한 후로는 부역을 덜게 하였으며, 또한 자기의 음식과 의복과 거처를 더욱 검소하게 하고 백성이 부담하는 관청의 비용은 일전 수렴하지 아니하니 비록 큰 흉년을 겪더라도 백성들이 모두 편안하게 지내게 되고 아전들은 군수의 청렴함을 두려워하여 감히 간악한 짓을 하지 못하였다.[92]

그는 조정의 높고 중요한 내직을 택하지 않고 산간벽지의 합천군을 다스리는 수령직을 택하였다. 임금이 말한 것처럼 그는 '고직불궁사'(孤直不肯仕)라는 평판을 듣는 인물이었다. 사람이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나갔으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높은 관직에 오르고자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곧은 성품을 갖추고 높은 벼슬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사람이 높은 벼슬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만

91) 「[illegible]」(을사 1725), 『동산선생주의』, 이창석, 같은 책, pp.235~236 참조.
92) 송환기 찬, 「文淸公行狀」, "[illegible] …" 이하 참조. 이학구, 『한산이씨한원군세보』 권1, 한산이씨한원군파세보소 2000, pp. 535~556

큼 자신의 훌륭한 뜻을 펼치겠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거나 명예욕이나 물욕에 사로잡히기 쉽기 때문에 진정한 선비로서는 높은 벼슬을 담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것은 조선조의 수많은 선비들이 벼슬을 사양한 사실을 살고해 보아도 쉽사리 알 수 있다.

그는 목민관으로서 흉년으로 굶어 죽게 된 백성들을 최대한으로 구휼하였다. 소문을 듣고 달려 온 외인들도 자기의 관할구역 안에 사는 백성들처럼 돌보아 살려주었다.

그는 해인사의 부역을 덜어 주었으며[93] 또한 모든 백성의 부역을 덜어 주었다. 부세(賦稅)와 요역(徭役)은 물질적인 부담과 육체적인 부담이므로 백성들에겐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그것은 논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매고 쉴 사이 없이 일하여도 먹고살기 어려운 전근대적 경제사회이었음을 고려할 때 늘히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그는 자기의 음식이나 의복이나 거처를 극도로 검소하게 하였다. 목민관이 자기의 의식주를 기름지고 풍족하게 하면 그만큼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고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희생시켜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하여 희생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그는 백성을 적자(赤子)라고 불렀다. 적자는 갓난아이이고 양육을 받아야 하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약자이다. 그리고 목민관은 통치자의 명령에 따라 부모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듯 백성을 양육하는 자이다. 어느 신하가 그를 내직으로 불러들이자고 할 때 임금이 "합천 사람들로 하여금 염리지대을 받게 하는 것도 또한 가하다" (使陜人被廉吏之澤亦可也)고 한 것은 이병태의 진정한 목민정신을 이해한 증거이다.[94]

이병태의 목민관생활은 「군수이공병태불세불망비」(郡守李公秉泰去世不忘碑)에서도 드러난다.[95] 여기서 영의정 이의현(李宜顯, 1669~1745)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 공은 청렴결박하고 학문과 덕행을 닦기 좋아하는 참된 군자이었다. 몸소 먼저 실천하여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관리와 백성들이 저절로 따르므로 부임한지 3년 만에 모든 정치와 교령이 크게 행하여졌다. 이 때에 서울에 일이 있어 갔다가 질병으로 서거하였다. 군의 인사들이 울부짖으며 모두 말하기를 '공은 우리의 부모이다.… ' 라

93) 「합천해인사추사비문」, 이학구, 『한산이씨한평군파세보』 권1 한산이씨한평군파세보소 2000, pp.589-591참조.
94) 위와 같음.
95) 이학구 발행, 『한산이씨한평군파세보』 권1, 2000 및 이정석, 『한산문헌총서』 2, 1981 에서는 이 비문을 「합천해인사추사비문」이라고 하였으나, 미지근 편저 『가야산해인사지』 서울, 가산문고 1992 에는 「군수이공병태불세불망비」 라고 기록되었다. 입석연월일은 숭정후재갑인(1734) 5월이며 내용은 양자가 동일함.

> 고 하였다. 읍성 안에 사당을 세우고 22방에 비석을 세우려고 할 즈음 가야산 해인사에서도 좋은 돌을 다듬어 영구히 기리고자 하였으니 그 비명에 새기기를 '범속한 무리를 초월하여 월등히 뛰어나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는 그 인품이 단아하여 욕심이 없고 화평하였다. 백성들은 '공은 우리의 부모…' 라 하고 관리들은 '두렵도다. 공의 청렴함이 물과 같고 공사를 처리함에 법을 지켜 무고함이 없게 하고 백성과 관리를 부리되 교화와 덕으로 하였다' 고 하였다.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주도할계유인휴율' 의 정치에서 구휼사업을 훌륭히 수행하였으므로 백성들과 승려들과 관리들이 입을 모아 공의 덕화를 칭송하고 은택을 잊지 말 것을 명시하며 기뻐히 복종하지 않음이 없었다.96)

또한 대제학 황경원(黃景源)은 「문청공신도비」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 공은 사람됨이 청순관평(淸純寬平)하여 경계가 없고 밖으로는 허소한듯 하면서도 그 중심은 엄격하고 청렴하여 의리에 옳지 아니한 것은 비록 한 낱이라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대부인을 섬김에 효문(孝聞)이 있었으며 대부인께서도 공의 청렴함을 알고 불의한 식품은 집에 들이지 아니하였다. …공이 서거한지 37년이 되었다. 손자 대영(大永)이 유생들과 더불어 편전으로 알현하였더니 하교하여 이르기를 … '부제학 이병태는 옛날의 염리이다. 능히 굶주림을 견디어 나갔으니 이를 매우 아름답게 여기노라' 하였다. … 윤경평(尹景平)이 말하기를 '유안의 청렴함에는 참으로 미칠 수 없다. 그러나 나라에서 붕당을 조정할 당초에 직도(直道)만을 고집하여 작록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유안의 청렴함이다' 라고 하였다. …군자의 청렴함은 그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눈금반치라도 구차스럽지 아니하고 오직 그 뜻이 정직할 뿐이다.97)

그가 청백리로 추천된 것은 명예를 초월하여 직도(直道)를 고집하고 조금도 구차하지 아니하며 오직 그 뜻이 정직한 인품과 정치철학적 신념과 목민정신을 바탕으로 한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다.

조정의 신하에는 임금의 사랑을 받는 총신(寵臣), 임금과 가까운 근신(近臣)과 설신(褻臣), 권력을 누리는 권신(權臣)과 세리(勢吏), 공을 쌓은 공신(功臣)과 훈신(勳臣), 임금에게 직언을 올리는 직신(直臣)이나 쟁신(諍臣), 유능한 능리(能吏)나 양리(良吏)가 있을 수도 있고, 간사한 언행으로 자신의 안

96) 「합천해인사추사비문」, "…公清儉好務惠于也 以解先之不令而行 越三年政教大化 … 是年公有事于京師以後卒…" 이하 참조. 이학구, 「한산이씨한평군파세보」 권1, pp.590~591. 이정석, 같은 책, pp.322~323 참조.

97) 황경원 찬, 「문청공신도비명 병서」, "公爲人清純寬平 無畛域 外若謙懼 而其中剛直簡嚴 義所不可 雖一介未嘗苟取也 事大夫人 以孝聞 大夫人知公之廉 不忍以不義之食 入其家 …公旣卒之 三十有七年 孫大永以諸生入見便殿 下敎曰…故副提學李秉泰 古之廉吏也 [illegible] 予嘉尙之…君子之廉 匪求其名 [illegible] 之中心…" 「한산이씨한평군파세보」 권1, 한산이씨한평군파세보소 2000, pp.587~588

일과 영달만을 꾀하거나 부정한 재물을 취하거나 제주에만 치우친 간신(姦臣)이나 첨신(諂臣)이나 도신(盜臣)이나 농신(弄臣)이나 영신(佞臣) 따위가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역적행위를 저지르는 역신(逆臣)이나 반신(叛臣)이나 난신(亂臣)도 있을 수 있다. 간신들은 나라와 백성은 생각하지 않고 임금의 비위만 맞추기 위하여 부도덕한 일도 옳은 것처럼 호도하고 임금이 생각지도 않은 부도덕한 일을 생각해 내어 일을 그르치게 부추기기도 한다. 이들 가운데서 특히 사리사욕에 따라 부당하고 부정한 재물이나 이익을 취하는 자들을 일컬어 장리(贓吏)니 오리(汚吏)니 탐리(貪吏)라고도 한다. 이 밖에 사마천(司馬遷)이 『사기』의 열전(列傳)에서 열거한 것처럼 순리(循吏)나 혹리(酷吏)도 있을 수 있다. 순리는 백성을 위하여 법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시행하는 관리이지만 혹리는 공평이나 타당성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자는 죽을죄를 지어도 법을 왜곡하여 살려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자는 죄가 없어도 법을 왜곡하여 죽이기도 하며 백성을 혹독하게 다스리는 관리이다.[98] 혹리에 견준다면 순리는 매우 이상적인 목민관이지만 그들은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공평성이나 객관성을 유지할 수는 있어도 실정법을 초월하는 자연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준에는 미치기 어렵다.

1751년(신미) 4월 검상(檢詳) 이광문(李光文)과 응교(應敎) 이지연(李止淵)이 올린 「증이조판서이병태시호망」(贈吏曹判書李秉泰諡號望)에서는 문청(文淸: 勤學好問 廉潔不義), 문정(文貞; 勤學好問 淸白自守), 효간(孝簡; 慈惠愛親 正直無邪)을 발견하게 된다. 이병태의 시호는 문청으로 낙점되었지만 그가 학문을 힘쓰고 불의를 멀리 하고, 지극히 청렴하고, 자애롭고 효성스러우며, 정직하고 사특함이 없는 고매한 인품을 갖추고 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은 그의 가정생활을 통한 공직윤리이다. 대제학 남공철(1760~1840)은 「문청공묘표」에서 "그는 어머니를 섬기되 능히 그 뜻을 봉양하고 아우 병항(秉恒, 관 직장, 1691~1732)과 종신토록 각거하지 아니하고 부인과 제수와 모두 함께 살았으며"[99], "그는 어머니를 생각하여 목면(木綿) 몇 근을 백성으로부터 받았다가 뉘우치고 다시 돌려보냈으나 어머니가 추워서 기침하는 것을 보고 울었다." "하루는 공무로 집을 나섰다가 귀구의 집을 그대로 지나칠 수 없어서 수레를 내려 수리(數里)를 걸어서 다녀오고서야 다시 수레를 탔다" 고 기술하였다.[100]

---

[98] 司馬遷은 『史記』 「循吏列傳」에서 孫叔敖 鄭子産 公儀休 石奢 등을, 「酷吏列傳」에서 田叔 西門豹 甯成 周陽由 趙禹 張湯 義縱 王溫舒 尹賞 楊僕 減宣 杜周 등을 열거하였다.

[99] 남공철 찬, 「문청공묘표」, 이학구, 『한산이씨한평군파세보』 권1, pp.573~578 참조.

[100] 위와 같음. 이 밖에 인간적이고 공사를 구분한 이병태의 일화는 여러 가지 전한다.

Ⅴ. 맺는말

이병태의 부모에 대한 효심과 형제에 대한 우애와 친구에 대한 우정은 그의 공직윤리 속에 용해되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이병태는 가정에서는 효도와 우애의 실천인이요, 조정에서는 쟁신이요 직신이었다.[101] 목민관으로서는 실정법의 한계를 초월하여 봉사한 진정한 청백리요 염리요 충신이었다. 그의 충성은 권세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민의를 실현하는 충성이요 진기지(盡己之)의 충성이었다. 그의 정치적 사회적 환경은 매우 열악하여 청렴을 고집하기가 어려운 처지였지만 "날씨가 추워진 다음에야 송백의 지조를 안다" 고 한 선현의 말처럼 백절불굴의 선비정신을 보여주었다.[102] 오늘날 전근대사회의 간신이나 도신이나 장리나 오리를 무색하게 하는 일부의 부패공직자가 공직사회의 기강과 민족정기를 좀먹고 국민의 사기와 희망을 잔악하게 짓밟는 현실을 목격할 때 이병태의 공직윤리는 모든 공직자가 본받아야 할 영원한 의표(儀表)가 되어 마땅하다.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朝鮮王朝實錄」(영조실록, 정조실록, 순조실록), 동국문화사 축쇄영인, 단기 4290(1957)

이정석,「韓山文獻叢刊」2 서울,한산문헌총서편찬위원회 1981

이병태,「東山先生遺稿」1808(무진)김희찬 제, 국립서울대규장각도서 한국본, 고, 3428-324. (이 책은 이정석,「한산문헌총서」권2 서울, 한산문헌총서편찬위원회 1981에 영인본으로 수록되어 있음.)

이학구 편,「韓山李氏翰平君派世譜」권1, 한산이씨한평군파세보소 2000

이학구 편,「한산이씨한평군파세보」권2,한산이씨한평군파세보소 2000

송환기 찬,「文肅公行狀」「한산이씨한평군파세보」권1,한산이씨 한평군파세보소 2000

황경원 찬,「文肅公神道碑銘 幷序」「한산이씨한평군파세보」권1, 한산이씨 한평군파세보소 2000

남공철 찬,「文肅公墓表」「한산이씨한평군파세보」권1, 한산이씨한평군파 세보소 2000

김재찬 찬,「文肅公諡狀」「한산이씨한평군파세보」권1, 한산이씨한평군파 세보소 2000

101) 그는 소대(召對)를 통하여 임금에게 "여색을 경계하고 용도를 절약하며, 유현(儒賢)을 높이고 간하는 말을 받아들이며, 어진 이와 간사한 사람을 분변하고, 상과 벌을 신중히 해야 한다" 고 진달하였다. 「영조실록」(「조선왕조실록」41집) p. 604, 세종 2년 9월 23일, 임자 참조.

102)「論語」자한편, "歲寒然後知松柏之後彫" (송백이 엄동설한에 지조를 나타내는 것처럼 사람도 간난곤고 중에 그 훌륭한 인격을 드러낸다는 뜻) 南懷瑾,「論語別裁」상책, 復旦大學出版社 1993, 3쇄, pp.474-475 참조. 저자는 '疾風知勁草 板蕩識忠臣' 이라는 말을 인용하고, 높은 산 위에 서식하는 獨活(땃두릅, 토당귀)을 소개하는 동시에 暴虐하고 昏亂기 흉한 남송 말의 충신 文天祥을 예시하였다. '판탕'(板蕩)은 난세를 가리킴.

저자미상, 「陝川清白吏李公不忘碑銘」 『한산이씨한평군파세보』 권1, 한산이씨한평군파세보소 2000
김재로 찬, 「清白吏李公紀蹟文」 『한산이씨한평군파세보』 권1, 서울, 한산이씨 한평군파세보소 2000
이지완 편저, 「伽倻山海印寺誌」 서울, 가산문고 1992
이서행, 『淸白吏精神과 公職倫理』 서울, 인간사랑 1990
이기백, 『韓國史新論』 개정증판, 서울, 일조각 1987
이희환, 『조선후기 당쟁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1995
吳璵 역주, 『新譯尙書讀本』 臺北 三民書局 중화민국 72(1983)
李宗侗 주역, 『春秋左傳今註今譯』 중책, 대북, 臺灣商務印書館중화민국 71(1982) 5판
宋天正주역, 『大學今註今譯』 대북臺灣商務印書館중화민국 74(1985) 8판
南懷瑾, 『論語別裁』 上海, 復旦大學출판사 1993, 3쇄
司馬遷, 「史記列傳」 下, 藝苑學會編, 《漢文大系》 7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78
편자미상, 『[illegible]』 13책, 연기미상, 서울대학교규장각도서, (고) 4250-69
편자미상, 『[illegible]本末』 1책, 연기미상, 서울대학교규장각도서, (규) 7147
조선총독부중추원, 『조선인명사서』 조선총독부중추원, 1937
이재봉, 「중국철학에 있어서의 천인합일론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1991 박사학위논문
이교현, 「이이의 천인상감론」 『동양철학과 한국사상』 서울, 민족원, 1995

「청백리 이병태(李秉泰)의 정치철학과 공직윤리」 약정토론

전보삼 (신구대학/윤리학)

성남문화원 주최 제7회 학술회의에 「청백리 이병태(李秉泰)의 정치철학과 공직윤리」의 논문을 발표하여 주신 지교헌 교수에게 먼저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지교헌 교수께서 작성하여 주신 옥고에는 한여름의 땀이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잘 알려진 주제도 아닌 「청백리 이병태의 정치철학과 공직윤리」의 논문을 대하고 보니 단어마다 새롭고, 문단마다 새로움으로 가득 넘쳐나는 신선한 원고입니다.

지교헌 교수의 「청백리 이병태의 정치철학과 공직윤리」에 관한 논문을 대하면서 성남문화원의 향토문화연구소가 발굴한 새로운 모델의 향토사 연구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층 더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방사의 발굴이 국가사의 층을 더욱 든든히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논평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몇 가지 내용 설명을 경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교헌 교수님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1. 청백리 이병태(李秉泰, 1688－1733)의 시대적·정치적 배경을 살펴보면 종래에 치열하게 전개되어 온 벌열(閥閱)의 붕당정치에서 야기되는 이른바 당쟁의 폐단을 완화하기 위하여 탕평책(蕩平策)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던 시기였다. 이 때 이병태는 '당론(黨論)을 단순한 권당으로 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것' 과 '시비를 밝히지 아니하고 군자와 소인과 충역(忠逆)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을 주장하고 탕평책의 반대편 자가 되어 조정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러나 붕당의 폐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즉 시비가 참되지 않은 것, 사람을 널리 쓰지 않은 것, 기강이 서지 않은 것, 언로가 열리지 않은 것, 염치가 없어지는 것, 붕당의 원인을 없애기 위한 탕평의 주장을 반대하였는데 그 대안이 좀 더 명확하게 설명되었으면 합니다. 고견을 부탁합니다.

2. 이병태의 정치철학의 구현은 성리학적 왕도사상(王道思想)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보았고, 그는 「진미제소」(陳弭災疏)에서 천인감응(天人感應)을 먼저 말하고 있으며, 정치의 성패는 임금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실에 임각하였다고 보았고, 「건극책」(建極策)과 「군민책」(君民策)에서도 왕권은 천명(天命)이고 천명은 결코 사사로운 것이 아니므로 수신(修身)을 통한 인정(仁政)

과 덕치(德治)가 왕도의 요체임을 강조하였다고 보았다. 유가 정치 철학의 핵심을 이루는 덕치사상의 철학적 기초에서 왕도사상을 이해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철백리 정신도 임금에 대한 충성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 백성의 철학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교수님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3. 공직윤리와 청백리 상에서 사람이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비슬길에 나갔으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높은 관직에 오르고자하는 것이 당연함입니다. 사람이 높은 벼슬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훌륭한 뜻을 펼치겠다는 것이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거나 명예욕이나 물욕에 사로잡히고자 함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병태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곧은 성품을 갖추고 높은 벼슬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은 좀 자의적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백리라는 점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미화된 부분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의 고견은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 목민관이 자기의 의식주를 기름지고 풍족하게 하면 그만큼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고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희생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음식이나 의복이나 거처를 극도로 검소하게 하였다. 그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하여 희생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그는 백성을 적자(赤子)라고 불렀다. 적자는 갓난아이이고 양육을 받아야 하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약자이다. 그리고 목민관은 통치자의 명령에 따라 부모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듯 백성을 양육하는 자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백리 정신에 있어서 **군·신**의 관계가 적자(赤子)의 관계라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병생(竝生)의 관계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하여야 합니까?

5. 이병태는 목민관으로서 흉년으로 굶어 죽게 된 백성들을 최대한으로 구휼하였다. 소문을 듣고 달려 온 외인들도 자기의 관할구역 안에 사는 백성들처럼 돌보아 살려주었다. 그는 늙은 어머니가 추위에 떨어도 백성이 가져다주는 몇 근의 솜을 되돌려주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목민관으로서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공평성,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자기의 의식주를 더욱 검소하게 하고 백성의 요역(徭役)을 덜어주고 모든 정사(政事)를 공평하게 하여 아무도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함으로써 모든 백성의 존경과 추앙을 받았

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놈본주의 사회에서는 백성을 잘 다스린다는 의미는 강조하여도 좋지만 정보화 사회 즉 사이버 사회에서는 백성을 다스린다는 개념은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렇다면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청백리 정신은 어떤 점이 강조되어야 합니까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이병태가 실천한 공직윤리의 실체화, 전통사회의 청백리상의 진면목을 대하면서 21세기의 청백리 상은 어떠하여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문제아닌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논평의 소임을 다할까 합니다.

「청백리 이병태(李秉泰)의 정치철학과 공직윤리」 약정토론

서승갑 (경원대학교/역사학)

발표자가 빈약한 사료를 정밀적으로 분석 정리하고 청백리의 관점에서 이병태의 사상적 측면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사항에 전반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약정 토론의 양식을 갖추고자 입단의 사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간결하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전근대 사회의 이데올로기인 유교 사상에 기초한 청백리를 현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잣대로 비교 분석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사회적 제반의 모순이 공직자의 부패 구조에서 야기하는 점을 감안하면 여기서 논의되는 청백리에 관한 쟁점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백리에 대한 인식은 청요직을 중심으로 한 사림들의 이상적인 청백리상과 국가 정책을 실현하면서 현실적으로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한 실용주의적인 청백리 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 청백리의 이상적인 표상으로 현실 정치에 간접 기능을 수행한 반면 후자는 전체 사회 구성원의 공동 선을 지향하며 현실 정치에서 실천한 청백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발표자께서는 청백리 이병태의 경우 어느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궁금합니다.

영·정조시대는 진보적인 개혁이 추진되면서 서양의 관점에서 보면 르네상스시대에 해당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명청의 교체기에 대두된 북벌론으로 인해 조선중화주의가 정립되고 대내적으로는 붕당 정치가 실현되고 분배 문제의 핵심인 토지 개혁과 세제 개혁이 추진되었습니다. 탕평 정책에 관한 인식은 시대적 배경에서 야기된 것이므로 인식의 차이에 따라 관점이 상이해 질 수 있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탕평정치는 기본적으로 왕권 중심으로 권력을 집중시키려는 시도이므로 정책이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는 것이 특성입니다. 이런 관계로 정치 운영면에서 왕의 개인적 역량에 의존한다는 한계성이 내재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병태가 탕평책을 반대한 것은 덕치사상에서 벗어난 왕권의 본질을 강조한 것이지만 한편으로 합리적인 대안으로 타당성을 지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이병태의 정치 철학은 왕도정치의 핵심인 덕치사상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청요직의 정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이병태의 행위나 사실 등의 논거가 빈약하다는 점입니다. 군민책의 경우 일반 민들의 합산을 위한 정책적 개혁의 사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청요직의 경우 당대 최고의 지성인으로 국가적 이상을 책정하고 신진 관료를 이끌어 정책 결정권을 가진 고위 관료(당상관)을 견제하였다. 따라서 이병태가 역임한 관료 직책을 분석한 후 청요직 집단과 상이한 일면이 조망되어야만 전체적인 인물상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병태가 생존한 시기는 다양한 개혁과 변화가 요구되는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병태가 지향한 이상론이 진보적 개혁인지 보수를 유지하기 위한 점진적인 개혁주의자인지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당 정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수확량으로 표시하던 토지 면적을 실제 넓이로 표시하는 토지측량법의 개혁, 54단계로 나누어진 복잡한 토지 세금을 2내지 3단계로 단순하게 개선한 것, 지방 특산물에 부과하는 세금인 공납제도를 대부분 토지세로 전환하여 곡물로 납부케 한 세제 개혁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병태가 이상적으로 추구하던 정치적 사상을 현실에 투영한 것이 결상도 합친 군수로 역임 과정입니다. 물론 사료가 빈곤한 현실적 관계로 행적에 대한 추적이 표면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연구 방법론에서 보면 흥년을 대처하기 위해 구휼받은 현상만을 단순하게 언급한 것은 미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방재정에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정치적 운영 능력이나 합리성을 추구하려는 단력적 능력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만 청백리의 기본 조건인 타월성도 검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 록

조선시대 청백리 명단

조선시대 청백리 명단

王朝時代	名單	選定된 對象 (總 157명)	淸選考	大東掌攷	文獻備考	姓氏大觀	淸白史精神과列傳	歷代淸白吏像	朝鮮朝淸白吏誌	朝鮮王朝實錄
태조 (5)	安 省	○	○	○	○	○	○	○		
	禹玄寶	○	○	○	○	○	○	○		
	柳 珣	○	○	○		○				
	吉 再						○	○		
	徐 甄									
태종 (8)	[illegible]	○	○	○	○	○			○	
	李之直	○	○	○	○	○				
	金若恒	○	○	○	○	○	○			
	李伯持	○	○	○	○	○				
	崔有慶	○	○	○	○	○	○	○		
	李 原	○	○	○	○	○	○	○		
	朴壽生	○	○	○	○	○		○		
	崔士義	○	○	○	○	○	○			
세종	鄭 陟	○	○		○	○	○	○		○
	崔萬理	○	○	○	○	○	○	○		
	黃 喜	○	○	○	○	○	○	○		
세종 (15)	柳 寬	○	○	○	○	○	○	○	○	○
	孟思誠	○	○	○	○	○	○	○	○	
	柳 謙	○	○	○	○	○				
	李稙根	○								
	周不言	○	○	○	○	○				
	洪壯方	○	○	○	○	○				
	朴彭年	○	○	○	○	○	○	○		
	李廷俌	○	○	○	○	○				
	李 知	○	○	○	○	○				
	黃孝源	○	○		○	○	○			
	柳 墩	○	○	○	○	○				
	金 渚									
	盧叔仝	○	○	○	○	○				
세조	鄭文炯	○	○	○	○	○	○			
	朴 薑	○	○	○	○	○	○			
	李 暾	○	○	○	○	○	○	○		

王祖時代	區分名單	選定된對象	他典據收錄資料							
			清選考	大東掌攷	文獻備考	姓氏大觀	清白吏精神과列傳	歷代清白吏像	朝鮮朝清白吏誌	朝鮮王朝實錄
세조(6)	奇虔						○	○		
	羽安邦	○	○	○	○	○		○		
	鄭誠謹		○			○	○	○	○	○
	林整	○	○	○	○	○				
	成俔	○	○	○	○	○	○	○		
	許琮		○			○	○	○		
	許琛	○	○	○	○	○	○			
	朴淑	○	○	○	○	○	○			
	尹弼輔	○	○	○	○	○	○	○		
	具致寬	○	○	○	○	○	○	○	○	○
성종	李垍	○	○	○	○	○	○			
	李賢輔	○	○	○	○	○	○	○		
	金濂光	○	○	○	○	○				
	安彭命	○	○	○	○	○	○	○	○	○
	梁灝	○	○	○	○	○		○		
	朴虞綸	○	○	○	○	○	○	○		

王祖時代	區分名單	選定된對象	他典據收錄資料							
			清選考	大東掌攷	文獻備考	姓氏大觀	清白吏精神과列傳	歷代清白吏像	朝鮮朝清白吏誌	朝鮮王朝實錄
성종(21)	趙之瑞	○	○	○	○	○	○	○		
	閔暉	○	○	○	○	○				
	李愼孝					○	○		○	
	呂自新									○
	李約東		○			○	○	○	○	○
	柳琪									
	呂允哲					○	○		○	○
	鄭梅臣	○	○	○		○		○		○
	趙士秀	○	○	○	○	○		○	○	○
	崔命昌	○	○	○	○	○	○	○		
	權瑺	○	○	○	○	○				
중종	金斌	○	○	○	○	○				
	曺致虞	○	○	○	○	○	○	○		
	吳世翰	○	○	○	○	○				
	宋欽	○	○	○	○	○		○	○	○
	金澄	○	○	○	○	○	○		○	○

王朝時代	區分 名 單	選定된對象	他典據收錄資料							
			淸選考	大東掌攷	文獻備考	姓氏大觀	淸白吏精神과列傳	歷代淸白吏像	朝鮮朝淸白吏誌	朝鮮王朝實錄
	姜叔突	○	○	○	○	○			○	○
	李希段	○	○	○	○	○				
	鄭 忖	○	○	○	○	○				
	李 楙									
	金宗直		○			○		○	○	○
중	鄭甲孫		○			○	○	○	○	○
	鄭昌孫		○			○	○		○	○
	柳 洵		○			○	○		○	○
	李崇元		○			○	○	○	○	○
	鄭希儉		○			○			○	○
	金 詮		○			○			○	
	孫仲暾	○	○	○		○	○	○	○	○
	表 沿							○		
종	趙元紀	○	○	○		○	○	○	○	○
	宋之孫		○			○			○	○
	金綏壽	○		○			○		○	○

王朝時代	區分 名 單	選定된對象	他典據收錄資料							
			淸選考	大東掌攷	文獻備考	姓氏大觀	淸白吏精神과列傳	歷代淸白吏像	朝鮮朝淸白吏誌	朝鮮王朝實錄
	朴 祥	○	○	○		○	○	○	○	○
	尹思翼	○	○	○		○		○	○	○
	李繼均								○	
	李淡然	○	○	○		○	○	○	○	○
중종	金 淨		○			○	○			
(35)	俞 僔		○			○				
	權亨允	○	○	○	○	○				
	申公濟	○	○	○	○	○		○	○	
	金揚震	○	○	○	○	○				
	魚泳濬									
	鄭 碩		○			○			○	○
	尹 釜	○	○	○	○	○			○	○
	李世璋	○	○	○	○	○	○	○		○
명	鄭宗榮	○	○	○	○	○	○	○	○	○
종	安 玹	○	○	○	○	○	○	○	○	○
	朴守良	○	○	○	○	○	○		○	○

王祖時代	區分名單	選定된對象	法典讓收錄資料								
			清選考	大東掌攷	文獻備考	姓氏大觀	清白吏精神丹列傳	歷代清白吏像	朝鮮朝清白吏誌	朝鮮王朝實錄
명종	金 珣	○	○	○	○	○			○	○
	金從舜	○		○						○
	任虎臣	○	○		○	○	○	○	○	○
	任輔臣	○	○		○	○	○		○	○
	洪 迪	○	○		○	○	○	○	○	○
	李 浚	○	○		○	○	○		○	○
	李 滉	○	○		○	○	○		○	○
	李夢弼	○	○		○	○			○	○
	洪 曇	○	○		○	○	○	○	○	○
	成世章	○	○		○	○	○		○	○
	尹春年	○	○		○	○			○	○
	尹 鉉	○	○		○	○	○		○	○
	鄭 萬	○	○		○	○			○	○
	馬世謙	○	○		○	○			○	○
	朴永俊	○	○		○	○			○	○
	朴民獻	○	○		○	○	○		○	○

王祖時代	區分名單	選定된對象	法典讓收錄資料							
			清選考	大東掌攷	文獻備考	姓氏大觀	清白吏精神丹列傳	歷代清白吏像	朝鮮朝清白吏誌	朝鮮王朝實錄
명종	李增榮	○	○		○	○			○	○
	金夢佐	○	○		○	○			○	○
	李浚慶	○	○	○	○	○	○	○	○	○
	南世卿	○	○		○	○	○	○	○	○
	金 鎭		○			○			○	○
	李 浣	○	○		○	○	○	○	○	○
	宋 寶	○	○		○	○	○		○	○
	許世鵬	○	○		○	○			○	○
	安 瑭	○	○		○	○			○	○
	金卿鎰	○	○		○	○		○	○	○
	姜光曙	○	○		○	○			○	○
	吳 祥	○	○		○	○		○	○	○
	申 磼	○	○		○	○	○	○	○	○
	金 南	○	○		○	○			○	○
	李重慶	○	○		○	○	○		○	○
	安從鳴	○	○		○	○			○	○

王組時代	區分 / 名單	選定된對象	他典據收錄資料							
			清選考	大東掌攷	文獻備考	姓氏大觀	清白吏精神과列傳	歷代清白吏像	朝鮮朝清白吏誌	朝鮮王朝實錄
明宗	金 擴	○	○		○	○			○	○
	金彦謙	○	○		○	○	○		○	○
	卞勳男	○	○		○	○			○	○
	金若熙	○	○		○	○	○		○	○
	盧 禎	○	○	○	○	○	○	○	○	○
	辛士衡	○	○		○	○			○	○
	金就文	○	○		○	○	○	○	○	○
	宋翼瑄		○			○				○
	李 珥				○	○			○	
	沈守慶	○	○	○	○	○	○		○	○
	許 潛	○	○	○	○	○	○		○	○
선조	李 墜	○	○	○	○	○		○	○	○
	李友直	○	○	○	○	○	○	○	○	○
	李元翼	○	○	○	○	○	○	○	○	○
	柳成龍	○	○	○	○	○	○	○	○	○
	李恒福	○	○	○	○	○	○	○		

王組時代	區分 / 名單	選定된對象	他典據收錄資料							
			清選考	大東掌攷	文獻備考	姓氏大觀	清白吏精神과列傳	歷代清白吏像	朝鮮朝清白吏誌	朝鮮王朝實錄
선조	李直彦	○	○	○	○	○	○	○		○
	白仁傑	○	○	○	○	○	○		○	○
	李時彦								○	○
	崔興源	○	○		○	○	○	○	○	○
	張弼武		○			○	○			○
	宋自裕		○			○	○			
	李儒臣		○			○	○	○		
	鄭崑壽	○	○		○	○	○	○		
	金 坪	○	○		○	○	○	○	○	○
	李光庭	○	○	○	○	○	○	○	○	○
	李俊白	○	○		○	○	○	○		
	沈喜壽	○	○		○	○				○
	成 泳						○	○	○	○
	許 珥						○	○	○	○
	李有中								○	○
	崔汝霖								○	○

王朝時代	區分名單	選定對象	依典據收錄資料							
			清選考	大東掌攷	文獻備考	姓氏大觀	清白吏精神과列傳	歷代清白吏像	朝鮮朝清白吏誌	朝鮮王朝實錄
인조(14)	金長生						○		○	○
	李基卓						○	○	○	○
	吳憲卿						○	○	○	○
	金 行						○			
	金向忠	○	○	○	○	○	○	○		○
	金時讓	○	○	○	○	○	○	○		○
	閔汝任	○	○	○	○	○	○	○		
	李安訥	○	○	○	○	○	○	○		○
	金德誠	○	○	○	○	○				○
	李命俊	○	○	○	○	○	○	○		
	成夏宗	○	○	○	○	○	○	○		○
	申荷玉	○	○	○	○	○	○	○		
	李時白	○	○	○	○	○	○	○		○
	洪命夏	○	○	○	○	○		○		○
	平慶君		○			○				
	具時源		○			○				
	南以興				○			○		

王朝時代	區分名單	選定對象	依典據收錄資料							
			清選考	大東掌攷	文獻備考	姓氏大觀	清白吏精神과列傳	歷代清白吏像	朝鮮朝清白吏誌	朝鮮王朝實錄
인조	金盛國		○			○				
	李尚眞	○	○	○	○	○	○	○	○	○
	趙 絅	○	○	○	○	○	○	○	○	○
	姜栢年	○	○	○	○	○	○	○	○	○
	趙錫胤	○	○	○	○	○	○	○	○	○
	柳慶昌	○	○	○	○	○			○	○
	朴知丰	○	○	○	○	○	○	○	○	○
숙종	崔 寬	○	○	○	○	○			○	○
	李之楠	○	○	○	○	○			○	○
	成以性	○	○	○	○	○		○	○	○
	李頤定	○	○	○	○	○			○	○
	趙 涑	○	○	○	○	○		○	○	○
	洪 茂	○	○	○	○	○			○	○
	洪宇亮	○	○	○	○	○		○	○	○
	姜 浣	○	○	○	○	○			○	○
	李泰奭	○	○	○	○	○			○	○

王祖時代	區分 / 名單	選定된對象	他典據收錄資料							
			清選考	大東掌攷	文獻備考	姓氏大觀	清白吏精神斗列傳	歷代清白吏像	朝鮮朝清白吏誌	朝鮮王朝實錄
숙종(22)	李世華	○	○	○	○	○	○	○	○	○
	姜世龜	○	○	○	○	○			○	○
	尹 推	○	○	○	○	○		○	○	○
	姜裕後							○		○
	崔慶昌						○			
	尹汝仁	○	○	○		○		○		○
	李 濟						○			
	柳尙運						○	○		
	宋廷奎						○			
경종(6)	姜錫範									○
	李明俊									
	金斗南									○
	李夏源							○		
영조	許 晶	○	○	○		○			○	○
	李秉泰	○	○	○		○	○		○	○
	尹 容		○	○		○			○	○

王祖時代	區分 / 名單	選定된對象	他典據收錄資料							
			清選考	大東掌攷	文獻備考	姓氏大觀	清白吏精神斗列傳	歷代清白吏像	朝鮮朝清白吏誌	朝鮮王朝實錄
영조(9)	韓德弼	○	○	○		○			○	○
	鄭享復	○	○	○		○			○	○
	崔有賢									
	尹德載									
	李台重						○	○		
	李謙鎭									
정조(2)	李義弼									
	李端錫						○			
	南履炯									
순조(4)	徐箕淳							○		
	韓益相							○		
	沈宜臣									
계	221명(%)	一五七	一七六	一一五	一四二	一七九	一一二	九七	一一五	一二七

이 표는 이서행교수의 「儒佛史 精神과 公職倫理」(인간사랑) 105쪽부터 116쪽의 표를 참고로 하였으며 <조선왕조실록>자료는 문수진 교수의 확인으로 첨가하였음.

집행위원회
대회장 : 남선우
위원장 : 백남옥
위 원 : 지교헌, 문우진, 한문섭, 정은경

제7회 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조선시대 청백리 정신의 현대적 조명

인 쇄 : 2002년 9월 3일
발 행 : 2002년 9월 6일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 연구소
주 소 :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96-2
(성남농업기술센터 2층)
전 화 : (031)781-1020, 2802
팩 스 : (031)709-5246

※ 이 논문집 발행은 성남시 문화연구지원금에 의하여 제작하고, 무료 배포하였음.